

제416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7월29일(월)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 제5차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보고의 건
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보고의 건
 - 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사업

상정된 안건

1. 업무보고 3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 제5차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보고의 건 3
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보고의 건 3
 - 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사업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지속되는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산업통상자원부 공직자 여러분들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제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기관의 업무와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물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점검하여 다가오는 결산 심의와 법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현안에 대해 고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시어 우리나라의 산업과 민생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및 소관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참고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에너지

공급망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각 분야의 다양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정책을 비상한 각오로 적기에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 등 21개 공공기관장이 배석해 있으니 질의 시에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는 오늘 예정된 보고사항을 모두 들은 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차 회의 때 미처 참석치 못해서 인사를 못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인사를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곽상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언 위원**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철규**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향엽 위원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철·쌀·사람, 생명 보듬의 정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권향엽입니다.

지난 9일 날 첫 상임위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에서 LNG터미널 준공식이 있어서 청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따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의 첫 상임위로서 산중위를 저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역 주민들이 원하셨습니다.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이곳 산중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지역구인 광양에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회사들과 국가산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철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 1위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철강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를 비롯한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같이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국회사무처 정기 인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한 전문위원의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유인규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한번 치시지요.

(박수)

박희석 수석전문위원과 유인규 전문위원께서는 직원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김원이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잠깐 이것 하고 난 다음에 기회를 드릴게요.

1. 업무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 제5차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보고의 건

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보고의 건

- 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사업

(10시08분)

○위원장 이철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제5차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원이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으니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의사진행발언 겸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산자중기위원회의 가장 큰 핵심 이슈가 사실은 동해 유전, 동해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한 140억 배럴의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동해 유전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영일만 앞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의혹 보도가 지금 언론에서 이어지고 있어서 국회에서는 그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자료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영일만 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시점이 언제고 보고한 내용이 뭐고 관련 부서와 어떤 협의를 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그동안에 안 했던, 그동안과는 다르게 대통령이 직접 이 얘기를 브리핑하게 됐느냐라는 내용을 물었고요, 자료 요청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드사이드라고 하는 회사가 물러나면서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가 선정돼서 이 매장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했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석유공사에서 해외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그 업체를 새롭게 선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해외출장보고서라든가 어떤 업체하고 협의를 했는지 그 협의 내용이 무엇인지 협의 결과가 무엇인지 자료가 있을 터인데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요청을 거부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액트지오의 선정 과정,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과 전문가의 그 검증 결과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국가자원안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업기밀이다……

시간 5분 아십니까?

잠깐만요. 마무리할게요, 자료 요청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 이철규 자료 요청, 이따가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김원이 위원 2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할게요.

위원장님,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철규 잠깐 간사님, 장관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김원이 위원 아니아니요. 이걸……

○위원장 이철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린다고요.

○김원이 위원 자료 요청을 먼저 해야지요. 자료도 없이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글썄요, 드리는데 자료……

○김원이 위원 일단 제 발언에 대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위원장 이철규 알았어요. 시간을 드렸으니까……

(「의사진행발언부터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잠깐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은 다 보고받을 수 있고요 또 보고를 드리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질의 시간도 있고 할 때……

○김원이 위원 아니아니요, 자료 없이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아니, 일단 보고를 받으시면, 보고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보고를 받아 봐야 아실 것 아닙니까?

○김원이 위원 방금 저희가 확인한 자료, 받은 자료에 다 영업기밀이라고 공백으로 왔어요.

일단 2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자, 그러면 2분이 아니라…… 요구 자료가 뭔지 말씀을 조금 더 하시도록 시간을 드리세요. 1분만 더 드리세요.

○김원이 위원 그런데 이 자료 요청, 아까 얘기했던 대통령실 업무보고 시점, 액트지오 선정 과정, 액트지오의 분석에 대한 검증, 검증한 전문가들 요청을 했는데 ‘영업기밀이다, 없다, 국가자원안보의 문제여서 줄 수 없다’라고 했던 게 정부 포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3년 국감 자료로 제출한 자료예요. 왜 안 하는 겁니까? 국회를 무시하는 거지요. 이것은 위원장님……

○위원장 이철규 자료를 요구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김원이 위원 아까 얘기했으니까요, 자료는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러한 국회 무시, 국민 무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해 주세요. 산업부하고 석유공사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해 주시고요.

23년 국정감사 때는 보고했던 자료를 왜 24년에는 주지 않는 겁니까? 그 문제는 명백하게 위원장님께서 산업부하고 석유공사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셔야지요.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것 조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됐습니다.

자료 요구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김성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첫 상임위인데 가급적 원만하게 의사가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의사진행발언과 자료 요구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여태껏 자료를 내지 않은 것 자체가 매우 유감이기에는 합시다만 자료를 제출하는 데 걸리는 최소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 보면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보고를 받는 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저도 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보통은 실제로 무슨 가스나 석유가 나오더라도 과거에는 산업부의 담당 사무관이 발표하거나 혹은 보도자료를 내서 끝낼 일을 실제로 아직 시추도 안 한 것을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할 만큼 정부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 일입니까?

그런데 왜 자료는 안 냅니까? 저희 방에서 26건의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단 1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석유공사가 제출을 안 한 건지 산업부가 통제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입찰 과정에 지장을 초래한다, 투자 유치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세계 1위, 3위 업체를 제치고 1인 기업이 당당하게 수주했으면 엄청 공정하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자료를 내놓고 이사회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왜 예타는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자료를 몇 가지만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석유공사입니다. 문서번호 국내사업처-1622번. 국내 동해 8구역, 6-1 광구 북부지역 시추 기본계획안. 2023년 10월 31일 자입니다. 자료 내놓으세요.

국내 6-1 해저광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부·동부 지역……

30초면 됩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성환 위원** 석유탐사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이것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내놓으세요.

23년도 제5차 투자리스크위원회 상정 안건 및 보고자료 일체, 마지막으로 동해 탐사사업 관련 이사회 보고 문서 및 회의록 일체, 오전 중에 산업부장관이 통제하지 않는다면 석유공사가 제출하고.

위원장님, 본격적인 현안질의 하기 전에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의사진행발언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료를 요청하는 의사진행발언 시간입니다. 간단히 말씀, 본질이 뒤로 가서 방송에 나가지 않고 자꾸만 다른 부분이……

○이언주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위원장 이철규 그러니까 간단히 자료 요청만 하시는 분들은 다 받아들일 테니까.

그다음에 산업부와 석유공사 등 해당 기관은 자료를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자료라면 전부 제출을 해 드리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얼른 들어도 지금 현재 민감한 시기라서 나가면 또 안 되는 것이 내부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면 그 사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언주 위원님 자료 요청 발언하십시오.

○이언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은 원래 시간 제한 없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렇게 되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언주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자료 요청을 지금 계속…… 엄청 오래됐어요. 느낌에는 거의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 게 거의 없어요. 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동해 석유탐사 관련해서 보고자료하고 회의록하고, 석유공사 회의록 같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없을 리가 없잖아요. 이따가 제가 물어볼 텐데 회의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의록이 있는데 회의록을 제출 안 하겠다.

그러면 비밀입니까, 이것? 국회에 비밀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국민한테 비밀인 회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 공개할 수 없는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국회에서 요청을 하면 회의록 같은 것은, 당연히 이것은 공개된 다라고 가정하고 그때 회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록하고 보고자료는 전부 다 주셔야 됩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철규 말씀 계속 하십시오.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자료 제출 지금 오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으니까 오전 중에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규 또 다음, 허성무 위원님이시지요? 저기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여.

허성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성무 위원 역시 자료 문제인데요.

먼저 정말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실에 와서 보고나 협의하는 과정에도 두 페이지짜리를 들고 있습니다. 자료가 두 페이지짜리가 다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동해 심해 시추가 이미 세 번이 있었습니다. 주작·홍계·방어지요. 그리고 또 하려고 하는 심해의 대왕고래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의결된 시추 계획안이 있을 겁니다. 이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해에서 세 번의 탐사 지역 그리고 동해 광구 3D 탐사별 연도 그리고 대왕고래, 7개 유망 광구들이 있습니다. 이 광구들의 좌표가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7개 발견했고 5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동경 몇 도 몇 분까지 그리고 위도가 얼마인지 다 좌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랑스럽게 발견했고 또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신 내용인데 그 좌표들 다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하나 더 요청드리면 제 질문 시에 석유공사 사장님이 답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 처장이 대기하셨다가 답변할 수 있도록 실무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종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종민 위원 저도 자료 좀 간단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한수원 자료인데요. 한수원이 저희 의원실에 그동안의 수의계약 관련해서 현황, 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 해당 업체에 한수원 퇴직자가 근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최근 10년간 자료를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이게 안 와요.

그래서 수의계약 체결 업체마다 한수원 퇴직자가 근무하는지, 근무 기간이나 부서, 직책, 해당 업체 입사 연도 이런 자료들을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출해야 제가 질의를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지혜 위원님이 아까 손을 먼저 드셨으니까 말씀하십시오.

○박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국회의원 박지혜입니다.

저희가 5월 30일에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두 달이 다 된 오늘에서야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다뤄야 될 기관도 굉장히 많고요. 추가적으로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보고 같은 것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의 시간이 저희가 5분·3분 2회가 제가 초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충분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의가 가능한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49조의2제2항에 따라서 ‘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57조 6항은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상임위 의사일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국회법을 반드시 준수해서, 정말 민생경제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22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또 간사님들께서 꼭 노력하셔서 의사일정을 국회법에 준수하는 수준으로 잡아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철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두 분만 더, 보니까 김정호 위원님하고 이재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이고, 다들 한 말씀씩 하시려고요?

(「자료를 너무 못 받았어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공통적인 사안 같으니까요. 여기서 김정호 위원님 말은 하시고.

그다음에 전부 다 자료 요구시지요? 자료 요구시니까, 자료 요구만 하시면 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정호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 제안서, 계약서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입찰 제안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이게 비밀준수의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왔어요.

이게 진짜로 비밀입니까? 다 공개된 것 아닙니까, 입찰 제안서는?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다음에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자료 제출입니다.

석유공사와 협의를 하면 위에서 자료를 아마 막는 것 같습니다. 이사회 속기록을 받았는데 일부분이 블라인드 처리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맥락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블라인드 처리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 그리고 원본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액트지오 계약과 관련해서 최종 품의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영업비밀이 있다면 이 비밀을 삭제하고 줘도 좋다고 했는데 일체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철규** 다음, 장철민 위원님.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앞에 이재관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이사회 회의록 요청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출된 것 보니까 정말로 조금만 관련돼 있어도 다 편집해서서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사회 회의록에 대해서 그렇게 편집해서 제출받아 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 원본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이 대왕고래 관련된 것 아니어도 예를 들면 주작·홍계·방어 시추 관련됐었던 자료들도 하나도, 사실 이것은 경제성이 없든 이미 비어 있든 다 결과가 나온 건데도 자료 제출을 안 해요. 이것은 사실 정말 이해가 아예 안 되는데 주작·홍계·방어 프로젝트 관련된 탐사자원량 같은 것들이 표시돼 있는 보고서 부분들도 확실하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 관련 자료, 아예 자료 제출 안 하고 있고요. 최근 5년간 한일 공동개발구역 기술 협의 관련된 횡수조차도 확인을 안 해 주더라고요. 관련 자료도 전혀 제출을 안 하고 있어서 이것은 국회를 아예 무시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수준의 자료 제출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위원장님께서도 좀 확실하게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왕고래든 아니면 이 대왕고래 구조 다른 부분들도 사실 탐사자원량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언급했었는데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더 디테일한 걸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추 전 탐사자원량 관련해서는 사실 국회에는 너무 당연히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 질의는 좀 늦어서 오전 중에 즉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님께 이렇게까지 자료 제출에 게으른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확실하게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 드릴 테니까, 마지막에 정진욱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진욱 위원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입찰 과정에서부터 최종 보고서까지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자신 있게 발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영업비밀이다 등등의 이유로 해서 자료가 제대로 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가 와도 대부분 확인할 수 없다, 답변하기 불가하다 이런 자료만 받아 봤습니다.

액트지오처럼 세금을 미납하고 사실상 법인격을 박탈당한 업체와 용역계약을 한 선례에 대해서도 확인이 불가하다, 이런 자료가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이미 답을 정해 놓고 보고서를 짜맞추기 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언 내용에 대해서까지 자료 제출만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발언 시간이라든가 또는 발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너무 처음부터 지침을 주고 시작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가 요청하려고 했던 자료들을 앞에서 다 말씀하셔서 오늘 오전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만큼 석유공사 사장님보다 우리도 격을 한 단계 높여서 주로 산자부장관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정진욱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만 요청해 주십사 하는 게 여기서는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잠시 전에 저도 궁금한 걸 보고를 받았습시다. 그런데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법인격이 박탈됐다고 하는 보고는 못 받았거든요. 법인격이 유지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방송을 보는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무제한으로 요청하실 수가 있지만 자료를 요청한다는 발언을 이유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표명하는 것은 국민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질의 시간에,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정진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사실관계까지도 판정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철규 판정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 질문과……

○정진욱 위원 법인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보고를 안 받으면 법인격이 살아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철규 글썄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를 받은 게…… 그러니까 답변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위원님, 발언을……

○정진욱 위원 아니, 보고를 안 받으면 법인격이 살아 있는 거냐고요.

지금 우리 아무 보고도 안 받았습시다. 그러면 대통령 말이 다 진실입니까?

○위원장 이철규 아니, 답변을 들어 보시…… 그러니까 없다고 단정을 하시지 말고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정진욱 위원 보고를 안 받으면 그 말들이 다 진실이냐고요.

○위원장 이철규 위원님, 여기 야당 위원님들의 이런 자료 요구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또 어떤 말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는 쪽은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확인

하고 싶은 욕심 또 그다음에 그런 의욕이 당연히 있지요. 공격수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가 스포츠에서도 공격수의 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룰을 지켜 가면서 공격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정진욱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됐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하시고요.

김성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지지요.

○정진욱 위원 한 달 동안 국회에 대해서 어떤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이 룰을 지키는 겁니까?

○김성원 위원 정진욱 위원님, 잠깐만.

○위원장 이철규 위원님!

○정진욱 위원 지금 룰을 지켰습니까?

○김성원 위원 정진욱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정진욱 위원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정진욱 위원님!

○위원장 이철규 말씀하세요.

○김성원 위원 저희 산업위가 한 삼십여 분 정도 되기 때문에 서로 조금 예의를 지키가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21대 국회……

○정진욱 위원 잠깐만요. 제가 예의에 어긋나게 했습니까?

○김성원 위원 참, 이렇게 말꼬리 잡을 일이에요?

(「발언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예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혼자 회의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하는 위원 있음)

○정진욱 위원 아니, 예의에 어긋나게 했냐고요.

○박성민 위원 아니, 본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회의도 하기 전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이철규 조용히 조용히…… 김원이 간사님, 다른 분들 조용히……

○정진욱 위원 제 발언 뒤에 예의에 어긋나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예의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김성원 위원 아니,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게……

○박상웅 위원 회의 진행을 지나치게 방해하시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자제하십시오.

○정진욱 위원 자제 요청까지 하십니까?

○박상웅 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정진욱 위원 아니,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정을 내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전부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요.

○박상웅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다 생각이 있는데 혼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

짧아요.

○**위원장 이철규** 우리 박상웅 위원님도 발언을 중지하시고 전부 다 조용히 하세요.

김성원 위원님, 잠시 발언 좀 중단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서로들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더 확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낭비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는 위원님의 발언이 듣기 거북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발언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동료 위원이 발언하실 때는 가급적 경청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발언 계속하십시오.

○**김성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에서 산업위 간사를 하면서 그때 전문가들을 만나면 산업계가 변하는 속도는 너무 빠르고 일분일초가 급한데 여의도 시계는 너무 느리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빨리 업무보고의 본질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물론 지금 산업부에서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강력하게 산업부에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려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산업부에서 생각하는 이것이 국익에 또 아니면 계약에 의해서 못 주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료를 못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오늘 하루 몽개서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아마 국정감사·예산 때까지도 계속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업부에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제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명확한 사유를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봉 위원** 자료 요구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송재봉 위원님 말씀 듣고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봉 위원** 저는 청주시청원구의 송재봉 위원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브리핑으로 발표를 하시는 바람에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궁금증, 이것 진위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졌는데 자료 요구를 해도 정말 단 하나도 제시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지금 제출을 안 하더라고요.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 과업지시서하고 액트지오사가 연구한 최종보고서도, 연구용역 보고서는 당연히 공개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료도 지금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요구하고요.

또한 최근에 투자 설명을 위해서 로드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설명자료를 만들었을 텐데 이와 관련된 자료도 같이 공개를 요구합니다. 이게 외국 기업에게 공개하는 자료를 국회에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동해 울릉분지에 용역 관련된 사업비부터 총괄책임자, 평가책임자 명단, 액트지오

용역 관련 용역 감독원, 이걸 당연히 어떤 분들이 제대로 일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 했는지 알 수 있는 기본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함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 중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금 이따가 끝내고, 보고받고 하십시오, 다 동일한 건데.

산업부와 그다음에 소관 기관들은 검토를 잘 해서 보안에 문제가 없다든가 또 계약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면 가급적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제출이 도저히 어렵다 하더라도 위원님들 찾아뵙고 대면보고를 하면서 이해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요구는 보고받기 전에……

○권향엽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 잠시만 협조를 해 주시지요.

○김원이 위원 마지막으로 드리지요, 몇 명 안 남았으니까.

○위원장 이철규 아니, 다들 한 말씀씩 하셨으니까.

내용은 동일한 것 아닙니까?

○권향엽 위원 동일한 것 아닙니다.

○위원장 이철규 전혀 다른 겁니까?

○권향엽 위원 예, 석유공사에다가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권향엽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만 간단히 듣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권향엽 위원 자료 요청을 36종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받은 자료가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업부가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 주신 사항이나 의뢰 절차를 석유공사에다가 좀 물어 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석유공사에서는 영업비밀이라고 하시면서 자료를 주지 않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영업비밀인지는 제가 동의가 되지 않아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최근 대왕고래 탐사 시추와 해저 지형 조사 관련한 기술자문 계약하고요. 최근 석유공사 임직원들의 3년간 해외출장 내역 그다음에 동해탐사팀장의 출장 내역하고요. 석유 시추 관련한 자재 발주 계약하고 최근 3개년간 석유공사 현 동해탐사팀장의 출장 내역 등 이것을 제대로 좀, 사업별 예산결산 내역, 탐사팀장 직책 등 아마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영업상의 비밀이 아니라면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4일 날 대통령께서 발표한 이후에 6월 7일에 공교롭게도 액트지오사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한국을 방문하셨더라고요. 방문을 하셔서 어떤 일정들을 수행하셨는지 상세한 일정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철규 이제 그만……

○**장철민 위원**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국회법을 초월한 말씀을 주셔서 이것은 의사 진행발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저도 이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요. 제가……

○**장철민 위원** 아니, 방금 위원장님께서 직무상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료 제출을 안 할 수 있다라고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셨는데……

○**위원장 이철규** 아니, 자의적이라고……

우리 위원님!

○**장철민 위원** 국회법에 분명히 직무상 비밀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사실 법을 초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금.

○**위원장 이철규** 장철민 위원님 나중에 말씀 주시고요.

○**장철민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도, 상임위도 직무상 비밀은 국회 증감법상 자료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만 제출을 안 할 수 있고 그것은 장관이 5일 이내에 증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철규** 거기에 대해서 장관과 소관 기관에서……

○**장철민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회법을 초월한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철규** 하여튼 말씀하셨으니까 속기록에는 기록해 놓고 산업부장관님 나와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세요.

○**장철민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철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회의에 협조해 주세요.

○**장철민 위원** 정말로 국회법과 국회 증감법을 초월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불법을 조장하신 겁니다.

○**위원장 이철규** 여기 회의의 진행……

그만하십시오요.

○**장철민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수정해 주십시오.

○**김원이 위원** 위원장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니까요.

○**위원장 이철규** 간사님, 잠깐만요. 간사님, 기다리세요.

○**장철민 위원**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료 제출하게 지금 국회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위법을 요구하신 겁니다, 지금.

○**위원장 이철규** 글썄,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을 하시고 절차를 거쳐서 하십시오.

○**장철민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원이 위원**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료 제출을 안 해도 되는 것인양 얘기를 하셔서……

○**위원장 이철규** 안 해도 된다고 한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출해야 될 것은 하시고……

○**장철민 위원**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게 국회법을 초월해서 정부가 지금 자료 제출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장관, 인사말씀하세요.

○김원이 위원 잠깐만 1분만 주십시오, 1분만.

○위원장 이철규 감사님, 회의합시다.

○김원이 위원 1분만 주세요.

(「회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철규 장관님 인사하시고 빨리 진행하자고요.

하세요.

○장철민 위원 법에 정확하게 ‘직무상 비밀이라고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존경하는 이철규……

○정진욱 위원 장관, 잠깐만요.

○김원이 위원 장관, 잠깐 계세요.

○정진욱 위원 지금 기준을 잘못 제시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철규 위원님, 서로 존중하자고 말씀드렸지요.

○정진욱 위원 아니, 그러면 수정을 하셔야지요.

○위원장 이철규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당장 여기서……

○정진욱 위원 자료 제출을 앞두고 있는데 그 기준을 지금 위원장님이 다르게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정 위원님!

○정진욱 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수정을 해 주세요.

○이연주 위원 법에 나와 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철규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지 말라 한 것 없고요. 그러니까 내야 될 것은 내고 제출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설명하라는 게 취지 아닙니까?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국회법을 지켜라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철규 글썽요. 그게 그 취지 아니에요?

○장철민 위원 취지가 전혀 다르지요.

○위원장 이철규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외에는 또 안 내도 되는 거라 할지라도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대면보고를 해서라도 설명을 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라고 요구한 것이 방점 아닙니까?

○이연주 위원 위원님,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서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국회법에 따라서.

○김원이 위원 자료 제출을 해야 된다니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철규 그런데 왜 우리 위원님들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김원이 위원 양해를 구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강승규 위원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언제 얘기했어요, 위원장이. 무슨 위원장 말꼬리를 잡고 그냥……

(장내 소란)

○위원장 이철규 잠깐만 좀 조용히 하세요.

(「법률에 따라서 제출하면 되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속기록 보세요, 속기록」 하는 위원 있음)

○**김원이 위원** 그 말이 정답이에요.

○**강승규 위원** 위원장 말꼬리 잡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이철규** 강승규 위원님, 김원이 간사님, 좀 조용히 하세요.

지금 회의는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방해하지 마시고요.

장관님, 인사말씀 빨리 진행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2대 국회 상임위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고물가·고금리에 더하여 러-우, 중동 등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미중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이 모두 녹록지 않은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산업부는 실물경제 총괄 부처로서 수출 확대를 통해 민생 회복을 이끌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수출 확대 전략 등 수출 총력 지원으로 수출 증가세를 굳건히 하고 역대 최대 외국인 투자 실적을 달성하여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을 통해 약 24조 원 규모의 수주 기반을 다지고 원전 최강국 도약의 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미국 IRA·반도체법, EU CBAM 등 주요국의 자국 우선 조치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반도체·바이오 등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입지, 금융·세제, 인프라, 인재 등의 종합 지원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본격 추진으로 안정적인 공급망도 구축 중입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도 첨단산업 등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에너지믹스를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소상공인 효율 개선 지원 등 에너지 복지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부는 지속적인 수출·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제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크게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특화단지를 구축하고 소부장 등 성장 생태계 조성 및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으로 150조 원 민간투자 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AI 경쟁 심화에 대비하여 AI 시대 우리 산업의 제조·기술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와 함께 AI산업활용촉진법도 마련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최초 성과 창출을 위해 도전적·혁신적인 R&D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석박사 전문인력, 현장인력 양성과 함께 글로벌 우수 인재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가 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안보 제고, 핵심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동해 심해 가스전을 비롯한 국내외 유망 자원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제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촉진하고 산단 혁신을 가속화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역대 최대치인 수출 7000억 불, 외국인 투자 350억 불을 달성하고 경제 안보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유망 수출품목에 대해 업종별 맞춤형으로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FTA 신규 체결 및 고도화, IPEF 활용 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을 지속 확대해 가겠습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현지 전시회 마케팅 강화, 상호인정협약 품목 확대 등 인증 취득 지원으로 수출 3대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EU CBAM 등 주요국 보호 조치에는 다층적 채널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프리카, 중남미 등과 EPA, TIPF 체결로 공급망,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확산해 가겠습니다.

셋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무탄소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주요국과 공조하여 무탄소에너지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등 무탄소에너지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하겠습니다.

체코 원전이 최종 계약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전방위 세일즈를 통해 추가 성과도 도출하겠습니다.

국내 원전산업 전 주기 생태계 완성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법 제정에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 보급 확대, 산단·농지 등 우수 입지 중심의 태양광 보급 등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시장 개설, 수소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글로벌 수소시장을 선도해 가겠습니다.

미래 전력 수요 확대에 적기 대응하면서 원전, 재생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안정적 전력 수급을 뒷받침하는 대규모 국가전력망을 신속히 확충해 가고 전력망 특별법 등 제도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상향 및 지원기간 연장 등 수혜자 중심으로 에너지 복지를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 선도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산업부의 노력에 더하여 입법, 예산 등 국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말씀들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보고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성 1차관입니다.

최남호 2차관입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입니다.

김대자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입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입니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입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입니다.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입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입니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입니다.

이옥현 전력정책관입니다.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입니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입니다.

안세진 원전산업정책국장입니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산하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입니다.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입니다.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입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입니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입니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입니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입니다.

김희천 한국남동발전 사장입니다.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입니다.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입니다.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입니다.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입니다.

최철규 강원랜드 부사장입니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입니다.

김인수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입니다.

정동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입니다.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입니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입니다.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입니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입니다.

조재일 전략물자관리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대자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대자 산업부 기초실장직무대리 김대자입니다.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조직은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87명, 현원은 1362명입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는 기관 주요 업무입니다.

산업부는 1차관 소관의 산업, 통상교섭본부장 소관의 통상, 2차관 소관의 에너지 분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조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는 산업부 예산 현황입니다.

24년 세입예산은 총 22조 6043억 원, 세출예산은 총 11조 5188억 원입니다.

9페이지, 소관 법률 현황입니다.

산업부 소관 법률은 총 103개이며 중점 추진 주요 법안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총 41개로 공기업 17개, 준정부기관 11개, 기타공공기관 13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첨단·주력산업 고도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입지·세제·인프라 구축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제정 및 소부장 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했습니다.

산업 경쟁력의 기반인 R&D, 지역경제,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혁신·도전적 R&D 투자

와 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등도 추진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통상 네트워크 강화와 수출 총력 지원으로 무역수지와 외투를 개선했습니다.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수출을 통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역대 최대 외투 유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무역 안보 확보를 위해 각국의 수출 통제에도 적극 대응했습니다. IRA, 반도체법 시범 등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했습니다.

중동 정상 경제외교를 토대로 신중동 붐을 조성하고 신통상 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무탄소에너지 대전환과 에너지 공급 기반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중장기 에너지믹스 재정립과 원전, 재생,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공급 역량을 확대하였습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하고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을 위한 지원을 확대·강화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였고 산단 태양광 보급을 촉진했습니다. 튼튼한 에너지 안보 구축과 함께 에너지 복지도 확대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의 수출 산업화 및 체코, 이집트, 루마니아 등 원전 수출 성과도 가시 화하였습니다.

17페이지, 최근 정책 여건 및 방향입니다.

올해도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소비와 기업 투자 위축이 우려되며 저 성장이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급망,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요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산업구조 혁신과 수출·투자 확대를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산업부는 수출 7000억 불, 외투 350억 불, 첨단산업 중심 민간투자 150조 원을 목표로 역대 최고 수출 달성,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확보,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 무탄소에너지 대전환, 지역경제 및 투자 활성화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력 및 유망 수출 품목에 대해 범부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해 신규 FTA 및 FTA 고도화, IPEF 활용 등 경제 운동장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수출 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수출 지원 제도의 통합 공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금융, 마케팅, 인증 등 수출기업 3대 애로를 집중 해소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수출로 직결되는 수출 마케팅 지원, 해외인증 취득 지원을 위한 긴급 해외인증 지원반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수출기업 유형별 성장 지원을 위해 테크기업, 내수·초보기업, 수출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상 경제외교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가별 정상 경제외교의 실질적 성과 이행을 촉진하고 전략적 세일즈 외교 기획과 성과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첨단산업 중심 150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프라, 인력 양성, 금융·세제, 규제 혁신 등 관련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첨단산업 분야 100대 핵심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첨단·공급망 핵심 기업의 유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반도체는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반도체 생태계 펀드 확대를 통해 팹리스·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차전지는 핵심 원자재 공급망 자립화를 추진하고 차세대 전지를 본격 개발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OLED 기술 격차를 확대하고 차세대 무기발광 대규모 R&D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는 첨단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전략 거점을 육성하고 제조공정을 고도화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민간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AI 시대 산업 분야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AI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담은 ‘AI가 가져올 미래’를 하반기 내 수립하겠습니다. AI 자율제조 전략을 추진하고 분야별 AI 활용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산업 AI활용 촉진법 마련을 통해 AI의 산업 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R&D 혁신을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과 청년 연구자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최초 성과를 위한 도전적·혁신적 R&D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등 11개 분야 초격차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고 10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유인을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CVC 펀드 확충, 기술이전·사업화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첨단산업 우수인재 양성 및 청년 연구자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달성하겠습니다.

공급망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수입처 다변화, 핵심기술 비축 확대 등을 통해 첨단산업 공급망을 안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부장 특화단지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생산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석유·가스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석유 공동비축 사업 확대, 제16차 장기천연가스 수급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외 자원개발 활성화 및 국내 도입 연계를 위해 관련 재정·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자원부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 구조에 대한 순차적 탐사 시추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 안보

위기 대응 역량 구축을 위해 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도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조치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양자 측면에서는 국가별 맞춤형 협력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다자 측면에서는 다자 협력 활성화 및 국제적 공조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공급망, 첨단기술 관련 경제·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겠습니다. 불공정 무역으로부터의 산업 피해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해 나가겠습니다.

첨단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무역·기술 안보를 강화하고 국가 간 교역 전반의 안보 기능 확립을 위해 지원기관을 강화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하고 외연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국과 함께 무탄소에너지 조달, 검증 등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양·다자 채널, 민간 교류, 국제행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 확산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원전, 재생,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원별 공급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원전 일감 공급을 확대하고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추진하는 한편 추가 성과 창출을 위한 전방위 세일즈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풍력 보급, 산단·농지 태양광 보급, RPS 제도 개편 및 자발적 재생에너지 시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정수소 시장 개설, 투자 본격화를 통해 글로벌 수소 선도국으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질서 있고 조화로운 무탄소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중장기 무탄소에너지 전력공급 계획 마련을 위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원전, 재생 등 원별 시장제도 신설을 통해 무탄소 전원 확충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유연성 자원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추진하고 기간망 확충과 전력 수요·공급 분산을 통해 전력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효율 혁신을 통한 에너지 수요 절감을 추진하고 따뜻한 에너지 복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해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현장의 선제적·자발적 효율 투자를 확산하겠습니다. 에너지 복지 제도 및 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수혜자 중심의 폭넓고 촘촘한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지방 투자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수요 중심, 지방 주도로 경제자유구역, 자유

무역지역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산단을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혁신 공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킬러규제 효과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문화와 융합하여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단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디지털·저탄소 전환을 지원하여 산단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중견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고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성장 지향형으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형 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유통산업 규제를 개선하고 온라인 유통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이 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몇 군데나 더 받지요?

○위원장 이철규 업무보고는 이제 끝났고요. 우리가 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보고를 받아야 될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보고하고 간략히 그다음 또 예타 면제한 사업이 있어요. 짧게 하라 할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배석한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차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에 대해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입니다.

제5차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개요입니다.

한수원 등 5개 원전 공공기관은 원전감독법 제20조에 따라 매 2년마다 원전 공공기관별로 구매·계약, 조직·인사, 원전 시설관리, 국민 소통·참여 4개 분야에 대해 운영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다음, 추진 경과입니다.

5개 원전 공공기관은 전문가 점검단의 이행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6월까지 운영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제4차 운영계획 주요 점검 결과입니다.

먼저 구매·계약 관련입니다.

장기보관자재 관리방법 개선, 입찰비리 포착 강화 및 주요 자재 증장기 비축기준 수립

및 수급 다원화 등 구매·계약 관련 절차와 시스템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조직·인사 관련입니다.

직무만족도 등 조사 결과를 조직·인사 관리에 반영하고 감사 결과와 타 업무 간 연계성 강화 등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원전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원전 내 화재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설비 정비·점검 시 그 인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민 소통·참여를 위해 정보공개에 관한 관리 방법 개선과 함께 효과분석에 기반한 홍보활동 추진을 권고하였습니다.

3쪽, 제5차 운영계획 주요 내용입니다.

구매·계약과 관련해서 장기보관자재를 시스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자재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입찰비리 제도개선, 우라늄 등 수급관리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직·인사 부분은 종사자의 니즈를 조직 개편에 적극 반영하고 조직진단 주기를 단축해서 이를 적기에 환류함으로써 조직 운영 유연성을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쪽, 원전 시설관리 관련입니다.

원전 내 위험물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계획예방정비 공정을 최적화하는 등 정비 관리체계 또한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AI 등 4차산업 요소기술을 현장에 도입하여 원전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소통·참여에 대해 정보공개 강화 등 국민 알권리를 증진하고 국민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수주활동 홍보 강화로 우리 원전의 기술력과 우수성을 국민께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해서 김동철 한전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6조 규정에 따라 국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면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 지역에 조성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첨단산업 반도체 특화단지입니다.

이러한 첨단 반도체 산업은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이 핵심인데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력이 풍부한 동해안과 호남지역에서부터 용인지역까지 총길이 1153km인 345kV 송전선로를 약 3조 7000억 원을 들여 새롭게 건설해야 합니다.

이 같은 송전망은 동해안의 발전력 수송을 위해 강원 평창과 경북 영주에서부터 용인 지역까지, 호남지역의 발전력 수송을 위해 전남 화순과 해남, 고흥에서부터 용인지역까지 국토 전반에 걸쳐 총 14개의 선로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규모의 송전망 구축에는 지자체와 주민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적기 추진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 면제 신청을 하였고,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제2차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에서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성, 사업 추진 긴급성과 구체성이 인정되어 지난 6월 25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보받았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약 1년 6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본격 착수하여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송전선로를 적기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는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산업부와 소관 기관은 위원님들 요구에 충실히 답변을 하시도록 해 주시고요. 부득이 답변할 수 없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가서 대면보고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십시오. 이해를 구하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의 협의에 따라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으로 하였으며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별도로 3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순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국민의힘의 나경원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 동작을 출신 나경원입니다.

먼저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산업부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대중 호조를 보이고 수출 성장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지속가능할 것이냐, 우리가 계속 경쟁력을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현황 보고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

아시다시피 철강, 석유화학도 일종의 중국발 공급 과잉의 위기가 있고 또 자동차나 로봇, AI도 중국의 경쟁력이 상당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전기차 이런 부분. 그래서 최근에 알테쉬 공습도 사실 단순히 저가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 부분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인력 유출에 대한, AI라든지 이런 첨단산

업에 대한 인력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것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현황이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좋지만 앞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퀘스천 마크가 보인다. 그런데 새로운 주도 산업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직은 약간 좀 불투명한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인력이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부분이 빠진 것 같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AI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력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너지산업 부분, 결국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이 구조 개편을 조금 더 속도를 내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업무현황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선도하기보다는 지금 좀 뒤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하면 저희가 미래에 과연 무엇을 먹고살 것이냐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현안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티몬하고 위메프 사태예요. 티몬이나 위메프, 결국은 유통산업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맞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산업부가 한 일은 무엇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유통산업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가 최대한 경쟁력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이 산업을 잘 관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을 키우고 진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역시 또 주무부처가 해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보면 소위 이런 온라인 유통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것을? 온라인 유통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관리 감독한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티몬, 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후에 산업부에서 한 조치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기본적으로 유통산업 관련해 가지고 소비자 피해 관련되는 부분에 저희 산업부가 직접적으로 관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경원 위원 소비자 피해 부분은 전자상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공정위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맞지만 결국은 이게 유통업이고 그러면 유통산업에 있어서 입점 업체에 대한, 판매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규제 문제라든지 그동안에 이미 판매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정산금이 늦어졌을 때 산업부가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 하신 게 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번 사태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인 조치에 지금 나선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관계부처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경원 위원 저는 두 가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판매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무런 조치나 점검을 하지 않고, 단순히 이것은 그냥 중소벤처기업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산업부가 일단 입점 업체에 대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그다음에 왜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대강의 시나리오를 알지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라는 것은 하나는 지금 피해 입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업체들에 대한……

마무리해야 되겠지요?

피해 현황에 대한 것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유통산업 발전에 있어서 진작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감독의 소홀한 부분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감사합니다.

지금 애로사항 점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김해을 김정호 위원입니다.

답변은 제 질의 마치고 난 다음에 하시거나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한수원이 이번에 체코 원전 댔는데 이때 제시한 건설 단가가 킬로와트당 얼마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체코 정부가 발표한 총액 24조 원 다 수주한 것 맞습니까? 세 번째, 1.2GW 건설비 71.4억 불, 한화로 9.3조 원 맞습니까? 이게 체코 원전 사업비 24조 원의 40%에 불과하다, 중국보다 싼데요. 이게 진정 기술력에 의한 가격 경쟁력 맞습니까?

답변 짧게 나중에 해 주세요.

원전 수주 금액의 60%는 체코 기업으로부터 기자재나 부품 조달해야 되고 또 노동력은 체코와 유럽 노동자 우선 고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EPC 수주한 실제 건설비는 9.3조 원 중에서 40%에 불과하지 않나요, 60% 빼고 나면? 제 계산으로는 3.7조 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까지 주게 된다면 진정 이게 남는 장사냐,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

나중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체코 원전은 유럽 원전 안전규제에 따라야 하지요? 이중 격납건물, 코어 캐처, 대형 냉각탑 이렇게 한국 APR1400과 달리 대형 설계 변경해야 되지요? 이것 시공 경험 있습니까?

그렇다면 공기 지연이 불가피하고 체코하고의 우선협상대상 내역에 지연 시 위약금 조항이 있지요? 또 아직 개발되고 있지 않은 사고저항성연료도 넣어야지요? 주 40시간 일해야

되는 노동규제 어떻게 할 겁니까? 바라카 원전과 비슷하게 수주했다고 그러는데 공기 지연, 건설비 크게 증가하지 않겠는가 심히 우려됩니다.

또 자금 조달 리스크인데요. 체코 정부가 마련한 재원은 1호기 건설비로 EU 집행위원회에서 60억 유로를 대출받습니다, 한화로 11.5조 원. 2호기는 EU가 난색을 표해서요 이것 조달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24년 6월 10일 미국 워싱턴 나토정상회의에서 체코 대통령에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통해서 원전 건설자금 금융 지원 약속했지요?

이것 짧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저가 수주에 돈까지 대 주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아직 속속들이 몰라서 그렇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출, 미국 웨스팅하우스 특허기술 사용 동의 없이, 미 에너지부 수출 승인 없이 가능합니까? 신청했는데 반려됐지요. 법적 대응한다고 웨스팅하우스 성명서 발표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정호 위원 나중에 답변하세요.

부족한 건설비 한국이 대 주고 원전 짓고 파산한 아레바나 웨스팅하우스 타산지석 삼아야 됩니다. 무리하게 저가 수주했다가 대형 설계 변경해야 되고 공기 지연돼서 결국 한전이 지금도 어려운데 적자 누적, 도중에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수주를 받았지만 최종적인 계약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 아마 손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돈 안 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 못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동해 유전 140억 배럴 발견했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호들갑을 떨었는데 이것 김건희 특검 몰타기, 국면 전환용 그런 카드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도 3년이 채 남지 않은 윤석열 정권이 무모하게, 무리하게 원전 수출 실적 올리려고 나중에 국민 세금 탕진할까 걱정입니다. 국민 세금이 윤석열 대통령 통치 자금, 쌈짓돈이 아닙니다. 원전 수출 리스크가 큰 만큼 국회법 개정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검증 절차 만들어야 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께서 과도하게 이번 사업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상황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호 위원 객관적으로 봐야지요. 비관적으로 보면요……

○위원장 이철규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못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시간도 드려야 되니까 장관님께서 여기서 대면보고, 바로 공개보고를 드릴 사항은 드리고요 서면답변을 하실 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것 빨리해 주세요.

○**김정호 위원** 할 건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너무 비관적으로 이번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김정호 위원**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번에 두산스코다파워 같은 경우에, 아까 60%, 우선 고용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지에 있는 두산스코다파워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업체인데 우리 기업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산스코다파워는 두산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핵심 엔진을 납품하는 업체라서 현재 체코와 우리 기업들이 협력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배제가 돼서 60%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체코의 산업이 공동으로 이 부분 기술 협력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공기 지연 문제 이런 것들을 단정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형 설계 변경이 필요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저희가 UAE에 들어가 있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특히 이번 사업에서 체코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 EU의 회원국인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나라를 선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공기를 기한 내에 적기 시공을 한단다는 그 부분 때문에 했다고 제가 직접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업 능력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업체들이……

○**김정호 위원** 유럽 안전규제는 무시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낮에 보충질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몇 시간을 가도, 한 분이서 시간을 다 잡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김정호 위원** 아니,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지요.

유럽 안전규제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철규** 답변을 들으시든가 일문일답을 하셔야 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관련되어 있는 인증이 다 취득되었기 때문에 선정이 되는 겁니다.

○**김정호 위원** 이게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철규** 장관님,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국민의힘 강남병 고동진입니다.

우선 장관님 이하 모든 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산업 발전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반도체는 필수이자 의무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가 국력이고 반도체가 청년들의 미래다.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19일 제1호 법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장관님께서서는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알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제가 왜 반도체 특별법을 제출했느냐. 지금 1차로 2036년, 2차는 2047년까지 경기 남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지금 산업계와 언론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내용인데 반도체 클러스터에 2026년까지 3GW, 2047년까지 7GW, 도합 10GW가 필요한데 그 송전망을 적기에 구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송전망을 누적적자 200조 원이 넘는 한전에만 전담해서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 인허가와 보상 절차들을 단축시켜서 속도감을 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구체적인, 역무의 부담을 어디까지 정부가 하고 어디부터 관련돼 있는 업체가 해야 되는지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잘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고동진 위원 제가 법안도 발의했습니다마는 법안 통과 전이라도 정부 차원의 반도체 TF를 구성해서 송전망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고동진 위원 전력에 있어서 사실은 송전망도 중요하지만 발전원도 중요합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재생에너지, 즉 RE100을 강조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분명 확대되어야겠지만 대규모의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에는 RE100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CFE) 방식이 더 부합한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고동진 위원 지금 대만의 TSMC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1위, 세계 시총 8위에 올라섰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TSMC 같은 회사를 만들어 산업을 발전시키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독일 등처럼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건설, R&D 비용, 도로 구축 등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또 10년, 15년 이내에 우리나라에서도 TSMC 같은 회사가 나올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방향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위원님과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반도체 산업을 볼 때 잘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더욱 잘하게 하고 국제경쟁력이 뒤쳐져 있는 파운드리, 팹리스는 정부가 지원할 건 지원을 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운드리에 생태계 경쟁력이 곧 파운드리에 경쟁력입니다. TSMC를 보더라도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OIP)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강력한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이렇기에 애플, 퀄컴, AMD,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TSMC에 100% 위탁생산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TSMC 같은 파운드리 기업이 나오려면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등의 국내 기술력을 발전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량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자금 지원을 해 주는 이른바 국내 팹리스 생태계 지원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 정책 방향이 바로 그런 방향이고 더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 위원님 실과 저희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장관님, 반도체는 속도와 시간 싸움입니다. 앞으로 사오 년이 골든타임인데 이때를 놓치면 10년, 15년 뒤를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 발전이 뒤처지고 궁극적으로 청년들의 밝은 미래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산자부가 반도체 기업들과 같이 손잡고 대한민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명확한 비전과 의지 그리고 실천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고동진 위원님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장관님, TV에서만 뵈다가 오늘 처음 뵈고 오늘 대화도 처음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장관님께서 영일만 일대 가스·석유 사업과 관련해서 산업부 내 공무원이나 석유공사 임직원들에게 ‘국회의 자료 제출에 응하지 말아라’ 이런 지침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절대 없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런가요?

좀 이상한 게 석유공사에서는 ‘윗선 때문에 자료를 못 주겠다’ 그다음에 산업부 직원도 ‘윗선 때문에 자료 제출을 못 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장관님 외에 윗선이 누군지 제가 되게 궁금한데요. 한번 확인하셔서 오늘 중으로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마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겠지만……

○**김한규 위원** 참고로 아까 장철민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국회 증감법상 제출 거부 사유가 되게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하셨다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가스전 매장량이 140억 배럴로 굉장히 많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라고 장관님께서 홍보하셨는데 혹시 투자 유치, 즉 조광권의 일부를 외국 업체한테 주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하게 되면 같이 공동 개발을 하는 것이지 조광권을.....

○**김한규 위원** 공동 개발을 하게 되면 조광권을 나눠 갖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조광권은 당연히, 그게 우리가 기술력이 안 돼서, 지금 워낙 심층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은 조광권을 나눠 주는 거냐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석유공사가 50을 하고 나머지 50은 해외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 표현인데 이 조광.....

○**김한규 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법에는 조광권이라고 돼 있으니깐요. 조광권의 일부를 외국 업체한테 주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수익을 공동으로 나누는 방식인데 그것은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 조광 지역에 따라 가지고 계약을 맺는 것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조광권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것은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하면 석유공사가 주도적으로 100% 조광권을 갖고 사업을 하고 외국 업체에는 구체적인 탐사에 대한 용역만 맡기고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러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김한규 위원** 그러면 결국 쉽지 않으면 이익 공유가 조광권을 직접 주든 아니면 석유공사가 조광권을 갖고 있고 계약상 이익을 나눠 주든 여하튼 이익을 외부에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패널을 들어 보이며)

조광료라는 게 있는데 장관님께서 1400억 배럴의 가치가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정도 될 거다, 그때의 시총 기준으로 하면 한 2200조가 되는데 그런데 가공·수송·저장 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그게 한 30%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총 70%, 1540조 주는 것 중에서 조광료가 비율이 다 다른데 가장 높게 하는 12%라고 할지라도 국가가 가져가는 조광료는 184조 정도에 불과합니다, 2200조 중에.

그러면 나머지 금액 중에 만약에 50 대 50으로 조광권을 나눠 갖든 아니면 석유공사가 이익을 50% 나눠 주든 석유공사가 가져가는 건 677조입니다. 그러면 시추 관련한 비용 자체도 외국 업체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이익 배분이든 조광권이든 여하튼 외국 업체가 가져갈 가능성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큼니다. 2200조의 사업이지만 우리가 실제 가져갈 금액은 1000억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쭙보고 싶은 건데 이게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사업 아닙니까, 20% 정도면? 다른 나라 광구에 비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리고 우리 석유공사가 해외에 진출해서 석유랑 가스 개발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왜 우리가 직접 독자적으로 사업 수행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 해저 심층에 있는 자원이라서 기술이 지금 부족합니다.

○**김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석유공사 기술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기술개발을 그동안 못 했던 부분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조광료 비율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것은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하고 그런 계약 관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 조광료는 우리나라 유전의 가치가 낮았을 때 산정한 건데 이렇게 20%나 되는 거라면 조광료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산업부나 석유공사가 외국 업체를 끼고 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국회의 권능을 피해 가려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비타당성도 외부 업체에서 비용 부담해서 피하게 하고 예산 심의도 석유공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니까 피해 가고 그리고 외국 업체한테 조광권을 주든 아니면 업무상 제휴를 하든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도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판단하고 검증을 하는데 지금 다 이런 것들이 결국 국회를 바이패스(bypass)하려는 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신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국회한테 투명하게 자료 제출하고 국회가 동의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자료 제출도 안 하니까 야당은 마치 반대하는 사람처럼 만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자원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글로벌 프랙티스(practice)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해외자본 유치하고 최대한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조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광료 비율도 조금 낮고 유전국들은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도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국익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 진행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관련돼 있는 법규가 이런 상황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 놓고 우리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개편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규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의 서왕진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해 주신 장관님 또 이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번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나 또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물리탐사 단계에서, 사실은 물리탐사라는 것은 평가자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들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인데 여러 가지 예측 상황을 마치 석유·가스가 대량 확인된 것처럼, 시추 이후의 결과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국정 브리핑이 되면서 많은 관심과 의구심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석유공사의 상황을 보면 창사 이래로 실제로 유전 자원 시추와 관련해서는 한 48번을 시추했고 그중에 27번이 동해 지역이었는데 전체 성공 사례는 1998년 동해 가스전이 유일합니다. 워낙에 어려운 분야라고는 합시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실패의 연속인 석유공사가 이번에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국정 브리핑을 함으로써 많은 관심과 함께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석유공사는 이런 실패의 어떤 연속선상에서 한술 더 떠서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를 해서 6조 7000억이 넘는 투자를 했고 실제 그를 통해서 얻은 소득은 전혀 없는 상태로 그 결과에 따라 19조 원 부채로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이런 석유공사가 이번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장관님께서서는 자원 시추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러면 이런 정도의 석유공사 상황이면 훨씬 더 엄격하게 지도·감독하고 보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지도·감독에 대한 새로운 원칙이나 기준을 정한 게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잠깐만 제가 미리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이 800개가 넘는 시추공을 가지고 국내 탐사를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4만 8000개가 넘는 시추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제가 질문한 것만 우선 좀 답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우리나라는 말씀처럼 지금 한 70여 개 하고 나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심해 가스전 3개를 저희가 트라이를 하고 이번에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서왕진 위원 추가질문,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엄격한 지도·감독에 관한 어떤 원칙이나 기준은 없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장관님께서 한술 더 떠서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직접 건의한 걸로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으로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왕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의 실패 사례들에 비교해서 대통령까지 직접 브리핑할 정도면 이번에 기존 실패 사례하고 비교되는 특별히 높은 가능성이 있는 게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금세기 최대의 석유 발견을 하게 된 가이아나가 그 확률이 16%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20%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러면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러면 장관님이 처음으로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관련 보고를 받으신 건 언제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제가 직접 한 것 말씀이십니까?

○서왕진 위원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직접 한 것은 저희가 발표하기 그 전날 제가 직접 가서……

○서왕진 위원 6월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모든 내용을 제가 직접……

○서왕진 위원 그러면 액트지오의 보고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기도 전인데 그 판단은 어떤 경로로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대통령실에 관련돼 있는 자료가 간 것은 훨씬 전부터입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렸고 그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재검증을 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이후에 재검증이 꼭 이루어졌던 겁니다.

○서왕진 위원 액트지오의 입찰 과정에 대해서 사전 보고받거나 판단한 사항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1차 자료가 나와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서왕진 위원 아닙니다, 입찰에 관해서 여쭙보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입찰은 제가 들어오기 전이라서 제가 알기는 어려운데요.

○서왕진 위원 지금 액트지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어떤 전문성 또 입찰 자격 문제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액트지오가 보고한 결과를 가지고서 또는 그 이전에 석유공사의 수많은 실패가 반복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정도로 특별한, 과거와 비교해서 특별하게 더 우월하다는 근거 자체는 액트지오의 보고 결과 외에는 없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겠는데 심해 탐사에 관련돼 있는 전문가를 가지고 있는 외부 업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해 탐사 전문성만 놓고 보면 액트지오만큼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 지금 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왕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장관님께서 액트지오라는 업체가 분석 보고한 결과를 보고서 그것에 근거해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우월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브리핑까지를 건의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국내 전문가와 해외 업체의 검증을 받았고요, 전문가들에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련돼 있는 기업에게도 저희가 검증을 받고 수차 검증을 받은 이후에 확신이 생겨서 제가 직접 대통령께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서왕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국회의원 박지혜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사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PPT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장님,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성 평가 사업 업체 선정은 지명경쟁입찰에 의해서 진행하셨지요? 총 4곳을 접촉했는데 최종적으로 3개사가 입찰에 참여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사실이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예.

○**박지혜 위원** 지명경쟁입찰이라는 것은요, 다음 장 표 보여 주세요. 특수한 기업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계약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기업들을 사전에 지명해서 그들만의 경쟁을 시키는 입찰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장 표 다시 보여 주세요.

그런데 이번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 참가자들의 체급 차이가 현격해서 사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업계 최정상 기업들과 영세기업을 경쟁시킨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액트지오를 처음에 어떻게 발굴했느냐 이에 대해서 정말 모두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두 기업과 액트지오를 발견해서 경쟁을 시켰느냐.

그런데 사장님, 제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다음 장 표 보여 주시면 국내사업개발처에서 올해 3월 12일경에 ‘국내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 계획 및 용역 입찰계약 의뢰’라는 제목의 공문을 생성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금 대왕고래 말고도 울릉분지에서 추가적으로 유망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계약 또한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 사업 보시면 추가 유망성 평가 업체로 선정된 회사가 어디인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아직은 제가 확인…… 추가 입찰 액트지오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 입찰 경쟁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이미 선정된 것이 아닌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제가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다음 장 표 보여 주시면……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그 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대형 회사……

○**박지혜 위원** 제가 다음 장 표 보여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알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다음 장 표 보여 주시면 석유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같은 부처에서 올해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동해 추가 유망성 평가회의 그리고 잠재 파트너사 업무

회의 목적으로 미국 휴스턴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다녀왔고요. 저 제록만 있고 저희가 출장보고서를 요청했는데 내용을 주지 않으셔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더라도 아마 추가 유망성 평가 역시 액트지오에 준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석유공사가 분명한 근거 없이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세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예, 알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여기 공문에 표시된 지명경쟁입찰 근거 서류, 경쟁입찰에 대한 평가 기준 그리고 수차례 설명을 하신 것이 액트지오가 심해 유망성 구조 평가에 있어서 타 업체보다, 글로벌 톱3보다 뛰어난 업체이기 때문에 선정했다 이런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저희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시추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비타당성조사가 잠깐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시추 하나를 하는 데 한 1000억 좀 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박지혜 위원** 예타 진행하지 않으실 것이 맞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건 2000억 넘어가야 되는 사안이라서……

○**박지혜 위원** 그러니까 하지 않을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기준 미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걸로 봐도 2000억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예정된 시추 횟수가 총 5회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

○**박지혜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차관님께서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다섯 번까지 시추하는 게 당초 계획이 아니라면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하나당 들어가는 것이 지금 천 몇백 억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을 하는 2000억 기준에 못 미칩니다. 그렇지만 기재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지혜 위원** 사실 그렇게 설명하시면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쪼개기를 해서 예타를 회피하는 그런 행위다 이런 비난을 받기가 충분해 보입니다.

다음 장 표도 보게 되시면, 6월 18일에 산업부 보도 설명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금년 말 1차공 시추를 포함해서 앞으로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이에 대해서 통째로 대통령이 승인하셨다’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전체 범위는 최소 5공 이상을 시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서 전체 다 예비 타당성조사 범위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지금 그 5공을 확정을 한 게……

○박지혜 위원 책임 있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철규 잠깐만.

○김동아 위원 제가 한마디만, 박지혜 위원님 질의하는 와중에 석유공사 사장이 계속 웃으면서 지금 그렇게 서 있는데 그것 한번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동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들이고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주의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질문을 받으시면서 실실 웃으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저는 제가 존중의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동아 위원님, 석유공사 사장님의 모습이 처음부터 그렇게 표정이 온화하고 미소짓는 모습인데 그게 좀 언짢게 보이셨다면 이견 서로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시는 위원님이 계신다는 것도 인지하고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세종시갑의 김종민입니다.

장관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오늘 산자부 업무보고 중에서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관련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게 앞으로 42년까지 전체 약 한 600조가 넘는 사업비 중에 한 90% 이상이 여기에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종민 위원 562조면 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 예산에 맞먹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앞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좌우한다. 산업의 미래는 결국은 민생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예타 면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의결이 돼 있어서 행정부의 의결을 거쳐서 상임위 보고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뒤집을 수가 없어요. 보고를 받아야 되는……

그런데 문제는 이 예타 면제보다도, 예타 면제가 되게 된 지역 지정이 2023년 7월이던가요? 7월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에서 용인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종민 위원** 그때 지정될 때 상황을 좀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어떤 상황을 말씀……

○**김종민 위원** 그때 지역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이렇게 용인으로 지정됐을 때 반론이라든가 대안 또 쟁점, 이런 것들이 혹시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전반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쟁점을 말씀하시는지 싶어서……

○**김종민 위원** 지역을 선정할 때 용인으로 지정할 때 전력 공급이나 용수 공급, 반도체 산단의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 전력하고 용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래서 전력·용수 공급을 지속적으로 또 충분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 또는 균형발전에 대한 판단도 있을 거고 또는 산업적 연계 협력도 있을 거고요. 또 인재 수급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때 지역 지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 근거가 뭐였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수도권 지역에서 인력을 확보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입지에 국가 전략적으로 가장 필요한 지역이……

○**김종민 위원** 인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인력과 기타 말씀하셨던 그런 인프라 같은 것들이……

○**김종민 위원** 산업 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산업 연관 같은 것들이 너무 수도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용인 지역에 저희가 입지를 하게 됐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22조 들여서 공장 짓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허허벌판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허허벌판이라고 그러지만, 그 땅이 넓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가 산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산업 고도화를 따져 보면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텍사스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허허벌판인 게 뭘 의미를 하시는지 제가 지금 잘……

○**김종민 위원** 그래서 저는 단순히 용인이나 수도권만 볼 게 아니고 특히나 반도체는 전력이 중요한데, 지금 예타 면제를 하는 게 다 송전망이잖아요.

그래서 송전망이 일단 공사 비용도 몇 조가 들어가고 또 전력 손실도 있어야 되고, 특히나 여기 보면 다 원전을 전제로 해서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있어요. 원전을 통한 전력 공급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발전소를 내부 발전소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력 공급을 하는데 재생에너지와 원전으로 같이 하겠다 이런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RE100 달성은 좀 어려운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RE100도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RE100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민 위원** 탄소 프리로 가서 이게 해결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빅테크들이

RE100 제품을 구매한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게 구매선이 조정되거나 문제 생길 가능성은 없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저희가 RE100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마는 그것으로만 전원을 공급할 방법은 없고요.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 최근에는 이태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원전을 들여오기로 하고 많은 국가들이 다시 원전의 활용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같은 첨단기술이 들어오면서 전원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 저희가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같이 키워서 우리 산업에서 필요한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저희 산업부의 입장입니다.

○**김종민 위원** 제가 보충질의에서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철규**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위원** 장관님, 아까 김한규 위원님 물어보신 조광료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이렇게 합작을 시도하는 이유가 사실은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기술 문제가 더 큼니다.

○**이연주 위원** 아니, 기술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심해를 전혀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전혀 안 했습니까? 지금 처음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처음은 아니지만 막대한 규모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합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연주 위원** 여러 가지, 하여튼 기술도 그렇고 리스크를 분담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연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확률—시추 성공률—을 2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과장됐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가이아나 광구가 16% 그런데 지금 이것을 20%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과거에 보면 심해에서 공사한 것 중에서, 32공 중에 심해 3공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이연주 위원** 주작·홍계·방어 이렇게 3공이 있는데 이 중에 홍계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것도 그 당시에 20% 시추 성공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

○**이연주 위원** 그렇습니다. 20% 성공률을 석유공사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홍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복수의 탄화수소 부존을 가리키는 현상을 확인했다. 그래서 유망성이 있다까지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말씀하신 그 홍계하고는 평가 방법이 달랐고요. 아까 가이아나 말씀을 하셨는데 가이아나를……

○**이연주 위원** 그것은 하여튼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홍계만 말씀을 해 주세요.

어쨌든 홍계는 탄화수소가 발견이 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이언주 위원 그런데 탄화수소가 발견이 됐는데도 결국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가이아나 16%를 얘기한 그 팀이 여기에 와서 20%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언주 위원 어쨌든 실패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이언주 위원 탄화수소 발견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이언주 위원 그 탄화수소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잖아요. 그래도 어떤 조짐이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대왕고래 이 건에, 동해 석유탐사 건에서는 탄화수소 발견됐습니까? 아직 안 됐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냥 유망하게 보인다 이런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이언주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홍계보다도 아직 갈 길이 훨씬 먼 것이지요.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먼 게 아니라 지금 단계가 다르고 그동안 검토한 자료가 다릅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탄화수소도 아직 발견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예전에 홍계 같은 경우에 1000억 이상의 혈세가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탄화수소도 발견되고 했는데 왜 이게 실패했냐, 실패 원인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당연히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이상……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탄화수소도 발견이 됐고 그때 당시에 20%의 성공률이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결국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어려운 사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 말씀인데요. 가이아나가 16%라고 해서 발견을 했던 그 팀이 와서 여기서 20%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언주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게. 확률상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런데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잘 모르셔서 그런지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은 마치 금방이라도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잘 모르시면, 그렇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지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왜 그러면 그 당시 1년 전에……

석유공사 사장님 어디 가셨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예.

○이연주 위원 일어나서 대답해 보세요.

그 당시 1년 전에 석유공사에서 이미 잠정 승인을 했지요?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1년 전에, 시추 말씀입니까?

○이연주 위원 예.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예, 1월 달에 이사회 통과했습니다.

○이연주 위원 2023년 1월이잖아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예.

○이연주 위원 그런데 어째서 1년이 지난, 한참 지난 다음에 대통령이 발표를 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장관이 언제 승인하셨어요, 시추 승인?

장관, 언제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는 1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시추 승인…… 이게 지금 시추가 아닙니다.

○이연주 위원 아니, 그러면 장관은 승인을 언제 하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직 승인을……

○이연주 위원 장관 승인 안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직 승인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보고드리고 할 계획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연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맞느냐는 얘기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이연주 위원 2023년에 석유공사에서 잠정 승인한다고 의결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대통령이 갑자기 국정 무슨 뭐 발표한다고 하면서 6월 달에 발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의무 시추를 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공사는 의무 시추 하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 자료를 봤더니 이게 의무 시추 하나로 끝낼 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팀들이 조사를 했는데 가이아나에서 16%라고 한 게 금세기 최대의 발견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20%의 확률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탐사를 해야 된다는 상황을 판단하고 제가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의 의무 시추로 끝낼 일이 아니라 이것을 본격적으로 시추를 하자라고 돼 있는 겁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간 더 못 주시나요?

○위원장 이철규 추가 때 하시지요, 위원님.

○이언주 위원 제가 좀 가야 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제가 마이크 없이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예, 잠깐만 더 하세요.

○이언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첫째는 이게 20%라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통계에서도 이미 20% 해서 실패했다, 그 실패의 원인 아까 분석한 거 있다고 하니까 저희 의원실로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어쨌든 대통령이 이것을 갖다 그렇게 떠들썩하게 할 일인가. 그리고 왜 그것을 그전에 이미 잠정 승인하고 석유공사에서 그 한 해 전 1월 달에 이미 다 의결한 것을 대통령이 24년 여름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떠들썩하게 발표를 하느냐. 그 이유가 뭐고 그 의도는 뭔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라는 말씀이고.

이것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탄화수소도 하나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구체적인 게 없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다 어느 정도 구체화된 다음에 대통령이 발표하셔도 충분한데 말이지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개발 기간 내에 의무 시추를 한 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했던 것이고, 예전에 홍계 같은 경우에는 2D 자료를 가지고 했었던 거고요.

○이언주 위원 2D 실패하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금세기 최대의 발견을 했던 그 팀이 와서 그때보다 더 높은 확률을 얘기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확률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확률적인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는 탐사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결정을 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고위원 선거가 있으신가 본데 가서 열심히 하셔서 성과 거두고 오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오세희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고 민생경제의 근간입니다.

장관님, 제가 오늘 의견을 말하고자 하는 것,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준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매월 이들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표를 보면 매월 이들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장관님, 이해당사자가 누구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해당사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관련돼 있는 그 지역 내의 이해당사자……

○**오세희 위원** 이해당사자는…… 이 취지가 뭐냐 하면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골목상권, 가장 중요한 것은 골목상권입니다.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안 거쳤기 때문에…… 지금 전국의 59곳이 의무휴일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대구광역시도 2023년 2월에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했어요, 23년도에 하고서. 그런데 이분들이 홍보를 또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6개월을 하니까 그 기간에 소매업이나 음식점의 매출이 굉장히 뛰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2023년 2월 달은 전년도, 2022년은 코로나 팬데믹이예요. 감염자가 996만 명, 사망자가 9100명. 이것을 대구에서 전년도보다 매출이 뛰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코로나 기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두고 말씀을 하시기는……

○**오세희 위원** 비교를 했던 말이지요.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예, 그게 맞지 않습니다. 또 거기다 발표를 했던 말이에요, 소매업이 18% 뛰고 뭐도 뛰고. 그런데 중요한 건 대형마트 매출이 52.9%가 증가했습니다. 의무휴업일의 폐지가 대형마트를 위한 전환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표에도 나와 있고.

영국과 독일에서도 대규모 점포가 될 때는 기존 상권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제한하고 있어요. 아까 업무보고에 글로벌 스탠더드가 골목상권을 규제하는 꼴이거든요. 글로벌 스탠더드라면서요, 이것 제한하는 것 규제를 푸는 게. 그러면 골목상권을 규제한다는 거거든요. 한 달에 두 번 대형마트가 공휴일에 문을 닫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도 우리 골목상권을 지키자는 합의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산업부가 지난 22년 10월에 일부 중소기업 대표들과 대·중소유통 상생 협의회를 구성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단체 하나, 특정 업종 하나, 이분들이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근거로 두 개를 해 가지고 대화하기 쉽게……

사진을 보면요. 대구시에서 저렇게 협약식을 했던 말이에요. 이 협의회를 만들었다 이거지. 상생협회가 어디 단체인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오세희 위원** 모르시지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상인협회 이 두 군데입니다. 뒤에 보시지요. 지금 골목상권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사업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스트에 보다시피 몇만 개가 있는 업종이 많은데 왜 이 두 분들을 해 가지고 근거를 만들었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을 위해서 물류센터 지어 주기,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 역사 지어 주기, 역사 홍보관, 물류센터 89억 원, 23년에 41억 원, 24년에 28억 원. 이게 그러면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대화가 쉬운 창구를 선택한 건데 이건 정말 안 된다고 보고요.

2012년에 도입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은 변함없이 지켜져야 될, 골목상권이 보호

되어야 되고 산업부가 전체 골목상권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의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함에도 그거 없이 이 두 업종, 두 단체만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께서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금 이게 대형마트에…… 아까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입장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은 대형마트도 죽이고 다른 데 다 죽여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소비자들이 나와서 대형마트를 키우고 중소 유통업체들하고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들이……

○**오세희 위원** 중소 유통업체가 왜 두 단체가 돼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특정 단체 하나, 특정 단체 역사관 지어 주고 그 사람들 물류센터 지어 주고 이게 지금 다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것이 공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오세희 위원**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골목상권에 물어봤어요, 이분들 대표로 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것처럼 대형 상권에 대형마트들의 그런 포션이 늘고 있는 것들이 그만큼 소비자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세희 위원** 소비자 편리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생이라는 게 있어요, 다 같이 가는 것. 그러면 장관님은 소비자 편리성만 하고 독점화되는 걸 원합니까?

○**위원장 이철규** 장관 답변 빨리 정리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제 말씀은……

○**오세희 위원** 그러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실 게 뭐냐면요 상생협의회 근거 조항이 있는지, 두 군데를 지정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 이 상생협의체 계속 갈 건지, 계속 그 두 군데만 집중 투자해서 84억의 지하 2층 지상 3층을 지어 줄 건지, 이걸 특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알겠습니다. 소비자를 끌어내서 중소 유통업체들하고 대형마트가 같이 살 수 있는……

○**오세희 위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상생 방안을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장관께서 오세희 위원님께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오세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저는 동해 심해의 석유·가스 개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야당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십니다. 의구심이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의구심이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발표 시점이, 왜 6월 3일 대통령이 발표하느냐 이런 의혹을 많이 제기하십니다.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은…… 지금 산유국의 꿈이라는 것은 정말로 수십 년 된 그런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들께 직접 발표한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아나 광구가 16%의 확률이었는데 우리가 20%라면 정말 그건 희소식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께 설명하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점을 가지고 자꾸 왜 6월 3일에 대통령이 발표를 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시점 가지고는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6월 3일이면 총선이 이미 다 끝난 시점입니다.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총선 직전에 이것을 발표했다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총선에서 대패를 했는데 이걸로 무슨 정국을 반전시키겠다고 정국 반전용으로 이것을 발표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결과는, 당장 올해 말부터 시추를 하면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시추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20%의 가능성이 없다거나 시추해 가지고 전혀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을 부풀려서 발표했다 그러면 6개월 만에 금방 드러날 일을 왜 하겠습니까, 정부나 대통령께서?

이것은 지나친 의혹 제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게 저희가 처음 인지한 시점이 사실 작년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걸 검증을 하고 선거 뒤로 이걸 미루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정치적으로 이게 이상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오히려 조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도 나왔는데요. 우리가 20% 확률인데 20% 가지고 추진하는 게 너무 확정적으로 우리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고 또 거꾸로 20%면 굉장히 높은 확률인데 왜 해외 업체를 참여시키느냐 이런 비판도 해요. 저는 지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보이는데 일단 객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퍼센티지 정도가 나왔을 때 시추를 하고 있고 실제 아까 얘기를 하시다가 잠깐 중단되던데 일본이나 중국에서의 지금 현재 시추 현황 그것도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일반적인 업계의 관행은 저희가 듣기로는 한 10% 이상이 되면 시추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한 20% 나왔고 특히나 이번 이 업체는 금세기 최대 발견이라고 하는 가이아나 광구를 발견했던 그 팀이 사실은 그때보다도 더 높은 확률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상당히 확률적으로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사업에 뛰어들어야 되는 충분한 근거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향후의 절차를 잘 준비를 해서 국가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 외에도 지금 우드사이드라는 호주 회사가 철수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현재까지는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혹시 얘기가 나오면 제가 다음에 보충질의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액트지오사 관련한 여러 의혹들 중에서 오늘 나온 얘기는 왜 지명입찰에 액트지오사를 참여시켰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금세기 최대의 광구를 발견한, 가이아나의 유망 구조를 분석한 곳이 액트지오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명입찰을 할 때는 첫 번째로 이 업체를 참여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제가 하나……

○박형수 위원 잠깐만요, 이거하고 하나만. 끝나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독자 개발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해외 유망 업체를 참여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야당이나 일부 언론 또 국민들께서 제기하시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투자를 하는 회사가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으면 왜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광권 문제, 조광료 문제 이런 것들 충분히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해외 업체를 참여시켜서 같이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액트지오사가 그때 했던 것은 아니고 아브레우 박사가 당시에 엑슨 모빌에서 일을 하면서 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전문가가 하는 것은 맞지만 액트지오사가 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수익구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국가적으로 불합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고 우리 위원님들 일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됐는데 오찬과 그다음에 휴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위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 이재관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6월 3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발표는 정상적인 절차로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시 정국을 보면 정부의 실정 또 대통령 지지도가 바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 관심사를 돌려서 국면을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발표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동해 석유 발표 이후에 논란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글썽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래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보고받기는 11월 달에 처음에……

○**이재관 위원** 저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98년도부터 21년 동해 가스전이 발견이 되고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어느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발표한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석유공사 본연의 업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분야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 기억으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영일만 일대에서 석유를 발견했다는 1976년 1월 16일 기자회견이 유일합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그 대자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채 상병 특검법 거부, 총선 참패 등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21%라는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할 때였습니다. 국면 전환 카드로 동해 석유를 이용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정치적인 공세로만 생각이 되시나요?

이번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돼 온 광개토 탐사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석유공사 이사회의 속기록 최근 3년치를 봤습니다. 광개토 프로젝트는 제2의 동해 가스전을 찾기 위해서 계획했던 그리고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던,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24건의 시추를 계획합니다.

24년 1월 26일—금년 초입니다—이사회 속기록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연말에 시추를 개시해서 내년 초 그러니까 25년 1분기쯤에 부존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확한 매장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평가정을 삼사 정을 더 뚫습니다. 이렇듯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즉 대통령께서 발표한 내용 그대로가 이사회 기록에 다 있습니다.

장관님, 23년 11월에 처음 이것을 인지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 이 내용을 최초 보고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5월인데요. 이게 처음 발견된 것은 2023년 11월입니다.

○**이재관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 내용 발표 시기를, 총선과 관련해서 시기를 고려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제가요? 아닙니다.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총선 때문에 오히려…… 2023년 11월에 처음 이것을 인지했지만 확인을 하기 위해서 확인 작업을 거쳤고, 그 확인 작업이 완수가 된 시점이 지난 한 5월쯤 됩니다. 그래서 확인 작업을 저희는 내부적으로 한 두 차례 정도 거쳤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확인을 거치고 그다음에 유수 개발회사의 검증을 거친 이후에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발표를 했습니다.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내부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때 발표하실 때 탐사 시추계획에 대해서 승인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보면 승인권은 장관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관 위원 아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장관님은 최종 승인하지 않으셨다고 또 아까 말씀 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승인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건데 지금 저희가 유망 구조가 7개가 발견이 돼서, 그게 확인이 돼서 저희로서는 업계의 관행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의 확률, 매우 높은 확률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보통 하나 의무 시추공을 뚫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5개 정도는 뚫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지만 해 보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승인을 하시고 그리고 워낙 사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국민들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관 위원 어쨌든 대통령이 승인 권한이 없는 것은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그걸 보고를 드리고……

○이재관 위원 보고를 드리는 것과 그다음에 이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과고는 별개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5개 시추공 들어가는 데만 5000억이라는 얘기고요, 5000억이 넘는 작업이고. 실제로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게 수백억의 돈이 들어가는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나왔을 때 해외 업체들하고 어떤 식으로 기술을 나누고 그 수익을 분배할지 같은 것들은 어마어마한 작업이 됩니다.

○이재관 위원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한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주어져 있는 승인 권한 자체가 대통령한테 넘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또 다른 절차를 통해서 가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기존에 예가 없었던 국정 브리핑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이것은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결정을 하셔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잠시, 김한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김한규 위원** 짧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예, 말씀하십시오.

○**김한규 위원** 오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시간이 부족했는지 아직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개별 의원실별로 관행적으로 자료를 정부기관에 요청을 했는데 이게 법무부에서 국회법상 의결을 거친 자료 요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회법상 의결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같은 경우에 위원회 의결로 요청한 게 아니라 다 개별 의원실에서 기존의 관행대로 시스템으로 요청을 했는데 자료 제공이 안 됐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까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제공받지 못한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취합을 해서 위원회 의결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우리 여야 간사 간에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요.

이재관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봉 위원** 청주 청원구의 송재봉입니다.

지난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다 하는 발표를 보면서 저도 상당히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제 산유국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정말 잘 검증하고 준비해서 한 발표인가라는 의문이 여러 가지가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께서 세계적인 심해 기술평가 기업을 통해서 이것을 평가했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 확인된 것을 보면 세금 체납하는 1인 기업에 가까운 기업이고, 실질적인 세계적인 기업은 배제하고 오히려 이 액트지오를 선정한 것에 대한 의문이 크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수의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쳤다고 했는데 이 연구기관과 검증을 하였던 전문가들을 보면 석유공사 직원과 학연으로 모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의 객관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 더 많은 탐사자원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 매장량과 탐사자원량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데 이것을 마치 같은 것처럼 보이도록 발표를 함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40억 배럴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제 시추 계획 승인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시추전은 계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것인지 일단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덕근 산업부장관님도 그날 같이 배석해서 발표를 같이 하셨었지요. 그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40억 배럴이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매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었는데 PPT를 한번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단순 계산을 해 봐도 그 정도의 삼성 시가총액의 5배가 나오려면 당시의 유가가 117달러가 되어야 됩니다, 1배럴에. 그런데 그렇게 된 적이 없지요. 우리가 100달러를 넘 어간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장관님께서 이것 계산을 실수할 리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뭔가 굉장히 급작스럽게 이것을 발표해야 되는 무슨 상황이 생겼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 정말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 건가 아니면 용산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이것을 맞추신 건 아닌가요, 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월에 저희가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용산에서 이 발표 준비하라고 먼저 연락이 온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오류 개월 정도의……

○송재봉 위원 오류 개월 준비를 했는데 대통령이 이런 수준의 발표를 하고 장관님께서 이렇게 수치가 틀린 것을 발표할 수가 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수치가 틀린 게 아니고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으면 총선 전에 발표를 했을 텐데……

○송재봉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삼성전자의 5배에 달하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것은 유가……

○송재봉 위원 그런데 이런 걸 국민에게 발표를 하면서 이런 정도의 수치가 틀리는 걸 발표할 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뭔가 갑작스럽게 이걸 준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정말 제가 묻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기업이 허위·과장 광고하면 과징금도 물고 처벌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허위·과장 광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과장 광고가 아니고요.

○송재봉 위원 그러면 장관님이 발표한 대로, 대통령께서 발표한 대로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나올 확률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매장량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제 개인적인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탐사 관련해서 금세기 가장 최대라고 하는 가이아나 광구를 발견한 그 전문가가 판정을 하기에 가이아나보다 지금 우리 동해안에 있는 여기가 확률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이렇게까지 실질적으로 140억 배럴 이 정도의 가치가 나올 확률이 몇 프로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볼 때 0% 아닙니까,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가이아나가 금세기 최대라고 하는 게 16%로 시작을 한 사업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20%라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준비가 제가 볼 때는 사실 굉장히 부실하게 됐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고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꼭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 추진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향이 있으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비타당성조사는 지금 이런 사업에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사업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생각하고요.

○**송재봉 위원** 아니, 맥락이 맞지 않다는 건 어떤 말씀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수입의 1·3·4위가 아시는 것처럼 원유·가스·석유 제품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것을 물어 놓자는 얘기는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송재봉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기업도 보니까 1인 기업에다가 별로 신뢰하기도 어려운 기업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기업의 말만 듣고 어떻게 유망성이 높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까?

○**위원장 이철규** 추가질의 때 하시도록 하고요. 장관님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언론보도에 보니까 금년에 수출액이 아마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금년 상반기에 보니까 35억 불 차이까지 따라잡았다고 나오던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하여튼 금년에 추월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수출 주력 산업으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석유화학제품 이런 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조선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선산업 중에 최고 효자 상품이 LNG선인 건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지금 전 세계에서 운항되고 있는 LNG선이 한 700척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이 중의 한 4분의 3을 건조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지난 4월에는 장관님 우리나라에서 만든 LNG선 500호 기념 명명식에도

가셨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갔었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요 이 LNG선이 1척당 한 3500억 정도 하는데 이게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이게 보면 화물창 원천기술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프랑스 GTT라는 회사에 있는데 선박 수주액의 5%를 원천기술료로 지급합니다. 지금 LNG 1척당 한 3500억 정도 하는데 5%면 175억이 로열티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로열티 나간 것만 해도 한 5조 원 정도 나갔고요. 지금 조선 3사에서 LNG선 건조 중이거나 앞으로 건조하려고 하는 게 한 250척 되는데 여기에도 지금 현재 금액대로 한다면 로열티가 한 4조 원 이상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 채주는 곶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는 것처럼 정말 조선업이 우리나라에서 효자 상품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이익은 프랑스에 로열티로 다 간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지금 울산이나 거제나 조선산업 도시가 경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조선소 근로자들의 임금이 박하니까 내국인들은 오지를 않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바로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 이런 게 지금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물창에 대해서 국산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 저희가 기술 자립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가스공사 사장님 잠시 좀, 계십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 예.

○서일준 위원 지금 가스공사하고 조선 3사가 한 20년 전에 화물창 국산화를 위해서 시도한 게 있잖아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 예.

○서일준 위원 KC-1이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 KC-1이요.

○서일준 위원 KC-1인데 이게 사실상 실패를 해 가지고 콜드 스팟이 생겨 가지고 지금 2척이 폐선하려고 인도네시아에 가 있지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 말레이시아 해역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말레이시아에 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동안에 한국형 화물창을 만들어 보자 해서 시도했는데 정말 뼈아프게 실패를 했지만 이게 또 하나의 큰 전기가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KC-1 이 실패를 해 가지고 각 사별로 손실 규모를 보니까 한 9500억 정도 됩니다. A사가 한 4900억, 가스공사가 한 3500억, B사가 한 900억 되는데요. 저는 이것 가스공사하고 이 관련 회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국형 화물창을 꼭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가스공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2004년 국책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거의 2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사업이 실패해서 이렇게 당사자 간에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매우 안타깝고요. 저희도 더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우리 한국형 화물창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광주 동·남갑 정진욱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는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정책 입안을 해서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키워 온 우리 정부의 노력이 있고요 또 그 뒤에는 수없는 도전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 성공과 좌절을 겪어 온 기업가의 눈물도 있습니다.

장관님, 덤채라는 브랜드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정진욱 위원** 위니아전자에서 만드는 김치냉장고인데요. 그 회사가 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두 회사가 현재 어려워져서 지금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3년 9월 기업회생 신청 이후에 전기요금 5억 4000이 밀려 있습니다. 사실 큰 기업에서는 이런 돈이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기업회생하고 있는 회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런데 지금 24년 7월—이번 달이지요—한전에서 요금 미납 시에 전력을 차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광주 가전산업 제조업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두 회사입니다.

광주시가 돈이 많아서 이행보증보험을 끊어 주면 좋은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광주시는 지난해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지금 긴축 중이어서 장관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M&A가 끝날 때까지 한전의 전력 공급 차단을 일시 유예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동철 한전 사장님도 나와 계시는데요. 지금 광주 지역의 133개 업체가 여기에 함께 운명 공동체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차단되면 어쩔 수 없이 광주 전체 경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좀 빨리하겠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호구의 대명사 같은 그런 위치가 될 것도 같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가 24조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정진욱 위원** 24조라고 할 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총사업비가 그렇게 책정이 돼 있고요. 실제로 금액은 실제 계약에 들어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진욱 위원** 지금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실제로 25년 3월에 정식 계약이 치러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힘에서는 곳곳에 24조 수주를 했다고 붙였는데요.

실제로 24조가 될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납기 지연 패널티가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정진욱 위원 이중 격납 원자로 시공 경험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

○정진욱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

체코와 유럽의 노동자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데 예산 내 적기 시공 전략으로 따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납기 압박 받지 않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런 게 다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전체 사업 중에서 체코 산업계가 60% 가까이 참여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국내 기업들도 같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 60% 속에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굉장히 줄어든다는 이야기지요, 60%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진욱 위원 그냥 24조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정진욱 위원 수주를 할 때 윤 대통령이 보낸 산업 패키지 지원 친서 그게 큰 역할을 했다,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제가 친서……

○정진욱 위원 아니, 보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친서 자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정진욱 위원 ‘예, 아니요’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친서는 안 장관님께서 직접 가지고 가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가서 전달이 되었지만 이것은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수는 없는……

○정진욱 위원 그러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들고 가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원래 친서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원래 친서가 그렇지요. 그렇지만 들고 갔을 때 그 속에 약이 들었는지 독이 들었는지 정도는 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전반적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진욱 위원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우리가 뭔가 주는 것도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그런 조건으로 이걸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협력을 같이하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산업협력은 주로 우리가 가진 주요한 기술들을 이전해 주거나 도와주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체크하고 우리가 산업협력했을 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같이 원원하는 겁니다.

○정진욱 위원 말은 원원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같이 원원을 한다는 것이고요.

○정진욱 위원 그런데 장관님은 그 내용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EU에 있는 앞으로 굉장히 잠재성이 많은 네덜란드라든가 하는 그런 원전 시장에 같이 공동으로 진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진욱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분 투자도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분 투자 같은 건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런데 하자고 하지 않을까요? UAE 할 때도 18%가 있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은 전적으로 체코 정부가 자기들이 자기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시간 주십시오.

혹시 윤 대통령께서 체코로부터 무슨 상 같은 것 받으실 기회 있으실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글썄요, 저는 생각지 못한……

○정진욱 위원 그렇군요. MB 정부 때는 상을 받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로부터 바라카 원전 수주 후에 자이드 환경상이라는 걸 받고 50만 달러를 받았고요. 그걸 개인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아마 바라카 원전에서 손해 난 걸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도 보충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24조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그게 24조가 될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체코로부터 환경상이든 뭐든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받도록 꼭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 제가 외람되지만……

○위원장 이철규 말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대한민국 대통령이 50만 불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수십 조 사업을 메이크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건 국가적으로 너무나 무책임한 말씀……

○정진욱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되지요. 그런데 MB가 받았습니다,

그런 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것은……

○**정진욱 위원** 그리고 그 당시 그 자원외교를 담당했던 분이 지금 청와대에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제 그만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대한민국 중심고를 충북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안덕근 장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안덕근 장관님 취임이 금년 1월 초였는데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1월 초에 취임해서 이제 한 7개월도 안 됐는데 큰 성과들을 올리고 계세요. 수출도 완전히 회복이 된 것 같은데 금년도에 수출 목표 역대 최대 7000억 불,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무역협회에서는 6900억 불 이러는데 그런 목표를 세우고 지금 아주 줄 달음을 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고 그런데 안덕근 장관님이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이고 또 국제경제 쪽 이런 것 전문으로 하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상반기에 보니까 한 3348억 불, 지난보다도 9.1% 증가를 했는데요. 이 9.1%에는 기저 효과도 좀 있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이종배 위원** 그렇지만 하반기에도 상당히 수출이 지속되고 더 확대될 거다 이렇게 해서 7000억 불까지 목표를 세웠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7000억 불이면 역대 최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는데요. 대한민국의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윤석열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더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연내에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일부에서는 원자재가 상승 또 환율 문제 이런 것으로 채산성 문제를 지적하던데 그런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수출액은 최대로 늘리고 또 수출이 내수로 잘 이렇게 순영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뿐만 아니고 또 체코 신규 원전, 2009년도 바라카 원전 이후에 15년 만에 아주 대형 수주를 하신 것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모든 전력을 다 들여서라도 꼭 우리가 목표하는 바 성과를 이루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그렇게 노력을 하셨고.

또 장관님도 네 번 가셨어요, 체코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지난 4월부터 해서 네 번 다녀왔습니다.

○이종배 위원 짧은 시간에 또 네 번씩이나 갔다 오시고.

황주호 한수원 사장님, 아주 어려운 가운데 유럽 프랑스 안방에, 유럽 가 가지고 이런 아주 쾌거를 올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한수원 사장님뿐만 아니라 직원 여러분들 모두 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장님, 잠깐 앉으시고요.

오늘도 많은 부분 지적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덤핑. 덤핑, 저가 수주로 억지로 얻어 냈고 앞으로 정식계약 체결하고 그 이후에 마지막까지 완성될 때까지 이런 문제, 변수들이 있다 보면 우리가 사업성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던데 이게 저가 수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덤핑 논란이 경쟁국에 비해서 우리가 워낙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마 언론에서 그렇게 썼던 것 같은데요. 그게 세계원자력기구 같은 데 나와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 실제로 이번에 입찰이 끝나고 나서 현지 언론에서는, 체코 언론뿐만이 아니라 해외 우수 언론에서도 사실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보도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적기에 시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공능력에 대한 확신이 아마 체코 측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적기 시공, 그동안 쌓은 경험, 기술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게 유럽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것에 상당히 의미가 있으니까 앞으로 더 우리가 목표했던 바, 2030년까지 10기 수출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 꼭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시간 딱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성무 위원 기계산업의 요람이고 방위산업의 메카인 창원 성산구 출신 허성무입니다.

장관님, 국무위원이지않아요 주무부처 장관이시기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허성무 위원 국무회의는 국민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심의 의결하는 자리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국무위원의 한마디는 정말 천금과 같이 무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렇습니다. 6월 3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하셨는데 대통령 나가시고 장관님 백브리핑을 하셨어요. 그때 140억 배럴하고 환산하면 2200조 이야기가 나왔

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허성무 위원 장관님이 직접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어제 장관님 KBS 일요 대담에 나오셨지요, 아침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허성무 위원 장관님, 얼마를 이야기하셨습니까? 5배가 아니고 2배를 이야기하셨지요, 어제? 2배 이야기하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허성무 위원 그러면 5배에서 2배로 내려왔어요, 두 달도 안 됐는데. 그러면 2200조에서 880조가 됐어요. 두 달 사이에 1320조가 날아갔어요.

장관님, 이것 국무위원으로서 말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닙니까? 이것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민들 앞에? 사과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죄송합니다. 제가……

○허성무 위원 아니, 설명하시지 말고, 장관님이 직접 다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전 언론에 대고 하신 말씀이시고 객관적인 수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님의 말씀이 두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리고 돈으로 환산하면 1320조가 날아갔는데 이것 장관님 표현에 대해서 장관님 스스로 해명하실 뿐만 아니라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위원 장관의 답변이 두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제가……

○허성무 위원 아니, 이 발언 잘하신 겁니까? 이렇게 바뀐 게 옳은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제가 어제 KBS에 나가서 얘기를 할 때는, 그동안 저희는……

○허성무 위원 장관님, 저도 다 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백브리핑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고. 그러니까 그 상황 설명은 안 하셔도 돼요, 국민들도 다 보셨기 때문에. 장관님 발언이 이렇게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무위원의 말이 이렇게 두 달도 안 돼서 엄청나게 변화가 있으면 앞으로 이 880조 2배는 그러면 두 달 더 지나면 1배가 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장관 발언의 무게가 너무 가볍다는 거지요.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부터 하고 잡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최소치·최대치 얘기를 할 때는 35억 배럴, 140억 배럴을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이걸 계속……

○허성무 위원 좋습니다. 장관님 뭐 사과 안 하시고 계속 설명을 하시려는데 그걸 모를 사람 아무도 없고요. 최대·최소는 다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계속 말씀하시면서 매장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매장량이라는 것은 상업성이 있는 부분만 매장량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해에서 상업성이라는 것은 부존자원의 10%에서 30%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요? 1000m 이상의 심해에서는 실제 상업성이 매우 떨어지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건 나옴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허성무 위원 아니, 그건 해 봐야 아는 거지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장관님께서 그렇게 매장량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부존자원량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헷갈려서 계속 이야기하시고 국민들도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과장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앵커가 질문을……

○허성무 위원 아니, 저도 석유가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우리가 산유국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경제성이 높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우리의 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장이 많이 들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장관님의 입을 통해서 과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달도 안 돼서 번복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반성하시고 사과하셔야지요, 국민들한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발표를 할 때 이 매장량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도저히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성무 위원 그 해명 하시는 것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번 봤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 점은 장관님이 가볍게 말씀하신 거고 장관님 스스로 입장을 번복하신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입장을 번복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최대·최소치 얘기를 하는데요……

○허성무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니 장관님, 그 설명은 여러 차례 장관님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다음에 석유공사 사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2024년 1월 26일 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지요, 1공을 시추하기로? 맞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예,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성무 위원 그래서 그것을 산자부에 보고할 때 1공으로 보고한 것 맞지요? 1공으로 보고하셨잖아요, 산자부에.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이사회에 1공입니다.

○허성무 위원 그렇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예.

○허성무 위원 그러면 대통령실에도 1공으로 보고했습니까, 아니면 5공으로 했습니까?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저희들 광개토 프로젝트 상태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이것은,

아까 일본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도 했지만 꾸준히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허성무 위원**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산자부에도 1공으로 보고했고, 대통령실에는 1공으로 보고했던 5공으로 보고했던 직접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저는 산자부에 보고했습니다.

○**허성무 위원** 산자부에만 했지 대통령실에는 직접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꾸준히 해야 되고 지코스(GCOS)가 20이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된다고는 했습니다.

○**허성무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석유가 나올 때까지 파악하지요. 인디언 기후제처럼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 지내듯이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건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이철규** 허성무 위원님.

○**허성무 위원** 1분만 주십시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질의하던 것은 계속하시게끔……

○**허성무 위원** 장관님, 그러면 석유공사에서 1공을 보고받았는데 5공을 대통령이 말씀하시도록, 최초의 5공 이야기가 6월 3일 대통령 입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5공을 이야기했느냐? 장관님의 보고를 받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최소한 5공 정도는 시추가 돼야 되는, 7개 구역에 우리가 유망 구조를 발견했었기 때문에 7개의 유망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개는 필요하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니까 원래 석유공사에서는 1공만 의결해서 왔는데 그 5공 이상을 이야기한 것은 장관님의 의견이지요? 석유공사의 의견이 아니지요?

○**위원장 이철규**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보충질의 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끝이 안 납니다.

장관님, 나중에 정리해 가지고 답변드리고요.

○**허성무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대구 수성갑 출신 주호영 위원입니다.

김동철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산자위원장 하시면서 사회도 보고 그러셨는데 뒷자리에 앉아 보니까 소회가 어떻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의정생활 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또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좀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공식적으로 하시기 어려운 이야기는 나중에 사석에서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감사합니다.

○**주호영 위원** 장관님, 체코의 원전 우선협상자 된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감사합니다.

○주호영 위원 저는 UAE 바라카 원전에 두 번 다녀오고 그랬거든요. 갈 때마다 뿌듯한 생각을 하고 돌아오고 그랬는데 오랜 노력 끝에 체코에 성사가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수주하러 체코에 간다고 한번 들리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때 정작 체코 대통령은 나라를 비웠고 그래서 수주가 되겠나 그랬는데 노력 끝에 돼서 축하드리고요.

외국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 원전이 APR1400인가요?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공기도 단축되고 가격도 낮아서 좋은데 대한민국이 또다시 탈원전 정책 해서 원전 생태계가 다 깨질까 봐 제일 걱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수출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유럽 인근 국가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리스크가 작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출할 기회가 많이 열릴 텐데 국내에서 먼저 앞으로 탈원전 정책이 없을 거다 이것을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같은데, 현실적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갖고 반대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부가 탈원전할 것이냐 원전을 더 강화할 것이냐에 관해서 국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야당의, 정부의 논리라든지 이것이 필요한 것을 꾸준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앞으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고 나서 지금 주변 국가로부터 굉장히 많은 전기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사서 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섬나라기 때문에 사실상 탈원전해 가지고 전기가 부족하게 되면 사서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우리는 탈원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앞으로 국회와 더 열심히 소통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탈원전도 탈원전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AI가 발달되면서 챗GPT라든가 이런 데에 기존 전력의 여러 배가 소모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것을 댈 수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주호영 위원 무슨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하나 만드는 데 원전 4기 정도의 전기가 필요하다 이런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런 원전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모든 산업이 올 스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반대 논리도 담아서 그것을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좀 해 줘 봐요.

우리가 단편적인 이야기만 들어요. 외국에 원전을 폐기했던 나라들이 원전을 다시 만드는 것은 어떤 사정에서 만드는 것인지부터 앞으로 우리나라 예상 전력량이 얼마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줘 봐요. 저희들도 단편적으로만 들어서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있고, 제일 중요한 노력은 외국에 협상하는 것보다 우리 안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다. 모으는 것이고, 우리 국민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서 힘을 합칠 때 훨씬 더 수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우리는 외국에 수출하면서 국내에서는 탈원전하자 반대하는 여론이 생기면 그것은 너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많이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소위 폐기물 처리장 만드는 것 이것 지금 계속 미루어져 가면서 앞으로도 가능성이 좀 드문데 제가 지난번 국회 연금을 해 보니까 할 때 하지 않으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비용이 수배 더 들어요.

그래서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에 관해서 진짜 국민 여론도 좀 환기시키고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원전 주기 전체에 맞는 세계적인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해 주고, 제가 부탁드린 것 세계 원전 상황이라든지 원전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랑 정부의 입장을 잘 담아서 저희들에게 책자로 하나 나누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태리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을 했다가 다시 전환해서 원전을 사용하고 있고 빠르게 기술개발이 되면서 전환에 대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생기고 있고 이것을 지금 수용하기 위해서 안전한 원전으로 넘어가는 국가들이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처럼 에너지와 관련한 섬나라 상황인 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더 안전하게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선도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말씀해 주신 것 유념해서 우리 산업 키우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시간 지켜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종식 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허종식입니다.

가까우니까 묻고 답하기는 참 좋습니다. 그렇지요, 가까이 가서 가지고.

장관님, 아침에 장관님 인사말씀 중에 보면 업무보고, 아침에 인사말씀하셨잖아요. ‘국내 유망 자원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동안의 우리나라 국내의 자원개발 성적표는 어떤가……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봐 보시지요.

130건을 하셨는데 257억 4800만 달러가 들어갔지요. 이 중에서 101건은 이미 끝났는데 이것 보시면 참 손해가 많지요. 그렇지요? 일반 기업에서 이랬으면 이 기업 망했습니다, 이미.

그러면 우리 국내 개발 사업만 놓고 보면 어떠냐? 국내를 보시면 30건이고 회수가 2건입니다. 이 회수는 뭐냐면 동해 가스전 조그마한 것 2곳은 회수를 했고요, 나머지 30건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7조 5000억 정도 들어간 캐나다 자원 사업 같은 경우는 490억 빼 놓고 다 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손해가 많은, 자원개발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해 대왕고래 건도 이렇게 자원개발이 어려우니, 정말 쉽지 않으니 또

공개하고 또 검토하고 이렇게 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국민들도 잘 믿지 않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도 잘 안 믿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정부에다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공개 좀 해 봐라 했더니 이게 산업부와 석유공사에서 저희들에게 보낸 답변입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산업부와 대통령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오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답변, ‘수시로 긴밀히 협의하였습니다’. 뭘 협의했어요? 이러니 국민이 설득되겠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도 이것 보시면 어떻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언제 대통령에게 보고했냐’, 떼뻗하시면 ‘언제 보고했다’, 산자부와 석유공사는 ‘언제 이러이런 걸 가지고 협의했다’ 이렇게 밝히시면 되지요. 그런데 ‘긴밀히 협의하였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라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반장도 이렇게 답변을 안 합니다.

장관님 어떠세요, 이 답변 내용 보시면? 이러니까 국민들이 대왕고래 사건을, 우리가 중동처럼 산유국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기쁜 일이기도 한데 이것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근차근 밝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아침에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정부 보고에서도 보면 ‘첨단산업으로 반도체에 투자하겠다. 150조를 투자하겠다’, 또 김동철 사장님께서서는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의 예타 면제 건을 아침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뒷전인데 이유가 뭐냐?’, ‘여야 정쟁 때문에’.

저희요, 22대 국회의원인 돼 가지고 오늘 나 처음 봤습니다, 산자부 회의. 처음 봤는데 여야 정쟁 때문에 뒷전으로 밀렸습니까? 저희 처음 봤다니까요, 오늘.

다음 장 한번 봐 보세요.

넘겨 보세요.

맞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법안을 냈다. 맞습니다. 고동진 의원 등 29인이 6월 19일 날 냈고요. 구자근 의원님 등 10인이 6월 19일, 김태년 의원 등 48인이 7월 3일, 이것은 민주당 당론 법안입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그 위에 보면 박수영 의원님 등 20명, 송석준 의원님 등 13명 해서 11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고 법안을 낸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회의원들 때문에 이게 안 됐을까요? 저희 오늘 산자위 처음 열었다니까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여쭙려고 그러합니다. 여야 정쟁 때문에 반도체가 이렇게 안 된다고 하시니, 저희들이 내일 열지요, 빨리빨리 통과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허종식 위원님, 장관에게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여야 정쟁 때문에 이런다고 하시니까 장관님께서 여야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잘 좀 부탁해서 정말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반도체, 미래 자동차, 바이오, 먹고살아야 되잖아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답답하니까 언론도 이렇게 보도를 했겠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충분히게 시간 남아 있으니까 말씀하시고 싶은 것 있으면 충분히 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말씀 제가 꼭 명심하고 향후에 우리 반도체, 특히 산업 경쟁력 키우는 부분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 소중하게 제가 간직하고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시간 딱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 위원장님,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업무보고 자료에 지역난방공사 업무보고가 있는데 기관장이 출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간사님도 모르신다고 그래서……

○**위원장 이철규** 지역난방공사 출석 문제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되어서 가지고 불출석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철민 위원** 제가 아까 간사님께 여쭙보니까 모르신다고 얘기는 하던데……

○**위원장 이철규** 아, 그랬어요?

○**장철민 위원** 하여튼 주요 기관장들의 출석 문제는……

○**위원장 이철규** 김원이 간사님이 미처 기억을 못 하셨나 봅니다.

○**장철민 위원** 좀 정확하게 사실은 공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좀 살펴보려고 했더니 굉장히, 따로 전혀 공지 없이 불출석했길래 이런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은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냥 임의대로 불출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마 김원이 간사님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미처 답변을 하실 때 기억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장철민 위원** 그것은 사실 제 생각에는 간사님 역할이 아니라 위원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출석하고 하는 것은 행정실에서 사실은 알려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위원장 이철규** 오늘 공지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보좌진들한테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철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나중에 말씀을 하실 게 있으면 별도로 해 주십시오. 다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장철민 위원** 그러면 본질의 하겠습니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산자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관님, 도박과 투자의 차이가 뭘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도박과 투자의 차이요?

○**장철민 위원** 도박과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뭘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불법과 합법……

○**장철민 위원** 대왕고래 건은 도박입니까, 투자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투자입니다.

○**장철민 위원** 투자입니까? 그러면 왜 도박이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원 확보……

- 장철민 위원 중요하면 도박이 아닙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니요, 국가적으로 매우 의미가 크고……
- 장철민 위원 의미가 있으면 도박이 아닙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큰 자원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장철민 위원 자원개발 사업은 도박이 아닙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일본이 800개 이상의……
- 장철민 위원 예전에 석유공사가 했던 하베스트 건, 오늘 가장 많이 언급되던데 그런 종류의 투자는 투자입니까? 그게 도박 아니고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일본이 800개 이상의 시추공을 뚫어서 지금 자원개발을……
- 장철민 위원 일본이 한다고 우리가 하면 도박이 아닙니까? 중국이 하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자원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70개밖에 안 돼 있고, 중국 말씀하시는데 4만 8000개의 시추공을 뚫고 있습니다.
-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정의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도박과 투자의 차이가 저는 사실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 부분도 있습니다.
- 장철민 위원 그런데 지금 투명하게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책임 있게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철민 위원 투명하게 일을 진행하시는데 국회에 자료를 하나도 안 냅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자료를 하나도 안 내는 게 아니고요.
- 장철민 위원 왜 하나도 안 냅니까, 그러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게 같은 자료도……
- 장철민 위원 왜냐하면 투명하게 해야 국회도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지요. 도와 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 사실 몇 달 그리고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면 국회법을 초월해서 자료 제출을 하나도 안 하고 계세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 장철민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박적 사업이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는 아닌가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국가안보에 대한 예외도 있고요. 국회법에도……
- 장철민 위원 국가안보에 대한 예외는 장관이 소명하게 돼 있는데 장관님이 소명하셨습니다?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 보면 안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장,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5일 이내에 국회에 소명하게 돼 있습니다. 소명 안 하셨으면 직무유기하시고 그냥 때우신 겁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최대한 국회와 협조하면서 저희가 자료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 장철민 위원 다시 여쭙볼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구체적인 말씀으로 들어가면 140억 배럴은 탐사자원량이지요? 자꾸 매장량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면 이 140억 배럴이 예를 들면 지금 저류암층의 부피가 140억 배럴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계산식에 의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될 법한, 예를 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후자입니다.

○장철민 위원 저류암의 부피가 140억 배럴이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니요, 탐사자원량. 아까 말씀에 매장량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한 번도 쓴 적이 없고요.

○장철민 위원 아까 쓰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니요, 아닙니다.

○장철민 위원 아까 매장량이라고 몇 번 쓰셨어요. 속기록 확인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까 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반박을 못 했던 거고요.

○장철민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이것만, 저류암의 부피가 140억 배럴이에요? 지금 추정되는 저류암의 부피가 140억 배럴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니요, 탐사자원량이라고 표현하는 그 탐사자원량의……

○장철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탐사자원량 140억 배럴이 저류암의 부피,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의 부피가 140억 배럴이냐고 여쭙는 거예요. 모르시지요? 아시는 분?

석유공사 사장님,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 계산하는 것을 논문을 찾아보니까 되게 복잡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장철민 위원 저류암의 부피가 있고 그 저류암의 공급률이 있고 공급률에 따른 회수를 같은 것도 있고, 이게 다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140억 배럴이 정말로 어떤 수치로 나온 건지를 국회가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세요. 그래서 여쭙보는 거예요.

이게 저류암의 부피입니까?

○위원장 이철규 차관이 답변 좀 해 보세요.

○장철민 위원 이걸 ‘예, 아니요’로 답변할 수 있는 종류의 간단한 얘기를 제가 여쭙고 있는 것 아니에요? 140억 배럴이 저류암의 부피예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저류암의 부피로 표현돼 있지 않고요.

○장철민 위원 아니, 그래서 여쭙보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장철민 위원 모르니까 여쭙보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러니까 저도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장철민 위원 일단은 ‘예스, 노’부터.

저류암의 부피예요, 아니예요? 아세요, 모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압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면 부피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저류암의 부피라고 표현이 안 돼 있고요. 저류암의 부

피는 설명을 듣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 그러면 저류암의 부피의 뭐를 계산한 게 140억 배럴이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보고서에 표현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근원암에서 나올 수 있는 규모가 있고 저류암의 부피 등등을 감안할 때 최대치 140억 배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류암의 부피가 다 기름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장철민 위원**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국민들께서 이것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지가 추측 가능한 것 아니예요? 저는 그게 말씀드린 투명성의 핵심이라고 봐요.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객관성이 담보되는 것인가.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도 모르고 차관님도 모르세요. 저게 저류암의 부피가 140억 배럴인지, 이것의 공급률을 곱한 게 140억 배럴인지, 거기에 추정되는 회수율까지도 곱한 게 140억 배럴인지, 거기에 부피 계수를 나눈 게 140억 배럴인지 모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수학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철민 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필요한 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가이아나에서도……

○**장철민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계속 20% 얘기를 하셔서 그래요. 20%가 여기에서 기름이 있을 확률이 20%인지 아니면 이게 경제성이 있을 확률이 20%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어느 정도 단계까지가 20%인지가 지금 국회가 확인할 방법이 1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도 내고 있지 않아요.

그 와중에 하고 계신 작업이 뭐예요? 그 와중에 무슨 해외자원개발 용자 개정 고시 같은 것들은 하고 그 와중에 예타 면제로 추진하고 모든 무책임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혀 불투명하게, 완전히 무책임하게, 그런 걸 도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쭙본 겁니다.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책임성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걸 국민들이, 국회가 납득해야 돼요. 도박이 아니구나, 미래를 위한 투자구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장철민 위원님, 진정해 주시고요.

알고 있으니까,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특히나 지금 현재 장철민 위원님의 질문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분이나 그다음에 답변을 하는 정부 측 관계자나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과 서로 다를 수 있고 생각과 다를 수 있겠지만 상대를 존중해 주면서, 상호 존중하면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구요.

○**김원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분위기가 고조되는데 질문을 하면서 정부가 하는 사업을 이렇게 야당 위원의 지적, 질책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시다라는 정부 정책을 그냥 무조건 과학에서 비유하는데 적절치 않은 비유는 질의하시는 위원들도 조금은 고려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차관께서 답변하면서 조금 격앙되는 것 같은데 차관도 답변을 안정적으로 겸손하게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됐습니다.

○김원이 위원 잠깐만요, 2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아니, 간사님……

○김원이 위원 아니,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그 얘기가 그 얘기야. 됐으니까 조금 이따가 한 텀 지나서 드릴게요.

○김원이 위원 아니요, 저한테 잠깐만 발언 기회 주십시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위원장 이철규 알았어요. 잠깐만요.

○김원이 위원 위원장님, 2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1분만 드릴게요.

김원이 간사님 말씀하세요.

○김원이 위원 지금 2차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김원이 위원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웃어요? 당신들이 자료를 안 주니까 지금 현재 산업부와 국회가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자료를 받고 우리는 안 줘서 못 봤어요, 국가안보라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웃어요?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우리가 정확하게 토론할 테니까.

사과하세요! 사과하시고 지금 즉시 이 정보 비대칭 상황, 산업부는 알고 국회는 모르는 이 정보 비대칭 상황을 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토론이 되겠어요? 사과하시고 자료 빨리 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 간사님,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사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드리고 앞으로 충실하게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당사자도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위원님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절차가 길어진 부분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정진욱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은 됐습니다.

됐고, 오늘 대왕고래 해저 유전, 동해안 지역의 유전하고 그다음에 원전 이 안을 가지고 여야 간에 조금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한번 질문을 해 주시면, 의혹이 있는 부분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또 그다음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알려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 프로젝트 자체를 내가 할 때는 괜찮고 상대가 하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하게 되면 서로 여야 간에 이게 논쟁이 돼 버리지 대화와 그다음에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 충남 홍성군예산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야당 위원들께서 걱정을 하십니다. 동해 심해 유전·가스 개발이 정말 투자가 될지 도박이 될지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등이 어디서 결정될까요? 시장에서 결정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 좋은 신호가 있네요. 오늘 주요 언론보도에 보니까 글로벌 메이저 석유·가스 회사인 아람코와 에니가 투자를 검토 중이다 하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제가 그 기업까지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주요한 해외 메이저 기업들하고 석유공사가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승규 위원 그 보도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아람코와 에니 등에게 투자설명회를 갖고 있는데 이 외에도 엑슨 모빌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등이 참여 희망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는 사실 구체적인, 어떤 회사들하고 사업설명회가 이루어지는지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지금 야당 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해 심해 유전·가스전이나 개발이 문제인 대통령 때도 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때도 이런 징후들이 좀 있었나요?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때 했을 때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서 잘 안 됐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지금 야당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당시 실패를 했는데 이런 부분 등이 140억 배럴이다, 또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시추공을 뚫을 정도가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의 허위 또는 아니면 급조, 정국 돌파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람코라든지 에니라든지 메이저 회사들이 시장에서 검토를 한 투자설명회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을 때 관심을 가질 수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강승규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것 등을 잘 감안해서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는 자료를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이게 또 투자 재원 문제도 아무리 메이저들이 투자한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 국가에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야당 위원님들에게도 또 저희들에게도 충분히 자료를 설명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가 전력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우리의 전력계통이 심각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강승규 위원 총체적으로 난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용인 등에 반도체 단지를 추가 구축하게

되면 상당한 전력이 추가 소비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현재의 전력망이라든지 계통을 가지고 이게 소화가 안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강승규 위원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비롯해서 상당한 송전망 확충, 전기 발전시설의 확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실제 송전망 확충 등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국회부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통과 못 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지금 야당 위원들께서도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또 통과가 되더라도 현재 지역에서 이런 송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살던 고향도 한 10여 년 전에 이 송전망을 할 때 온 동네가 다 그냥 쑥대밭이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계통을 어떻게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가요? 어떤 전략이 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송전망 관련해서 지금 크게 서해안 쪽으로 해서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동해안 쪽에서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래도 국회에서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통 전략화 방안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승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엽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과 간부님들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 간부님들 오늘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산유국의 꿈은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꿈꾸었던 그러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영일만 석유 가능성을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여야가 다 축하하고 또 앞으로 국민들께 기대를 주는 그런 자리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동안 대통령 발표 이후에 산업부가 한 것은 보통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자료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께 기대를 갖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자료 제출이라든가 그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6월 21일 날 장관 주재 회의에 참석자도 잘 밝히지 않고 유관 학회, 연구기관, 자원 공기업, 민간기업으로 처리하면서 뭔가를 자꾸 숨기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줘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국정 브리핑 당일 날 저희 의원실에서 산업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니깐 ‘현재 외부 대응 여력이 안 되고 동해 심해 관련해 요청 주신 사항은 석유공사에서 진행한 건으로 공사에 요청 부탁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산업부가 대응도 하지 못하는 국

정 브리핑, 참으로 답답합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 2009년 지식경제부 시절 만든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탐사자원량과 발견잠재자원량의 차이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권향엽 위원 그러면 영일만 석유는 어디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탐사자원량입니다.

○권향엽 위원 탐사자원량 내의 유망 구조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가이아나의 발견잠재자원량으로 포장을 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포장한 적 없습니다.

○권향엽 위원 장관께서 그렇게 보고한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말씀드렸지만 최대치가 나오게 되면, 제가 분명히 그 설명을 할 때 과대한 기대를 할 수 있어서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최대치가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그 양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국민은 책임감 있는 대통령을 원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답변 자체도 명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탐사보고서에 보면 90%의 확률로 35억 배럴, 10%의 확률로 최대치 140억 배럴이 추정된다고 탐사보고서에 있고 그걸 설명을 드리면서 최대치 140억 배럴에 해당하는 것이 당시 시가로 따지면 그 정도 규모가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향엽 위원 장관님, 그러면 이번 영일만 석유 시추 가능성을 20%라고 하셨는데요.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권향엽 위원 장관님께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계셨을 때 2030년 세계엑스포 개최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2023년 11월 28일 날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 한 달 전까지 당시 통상교섭본부장님께서서는 기자회견에서 ‘세계엑스포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다. 막바지 유치 경쟁이 과열된 가운데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2024년 1월 3일 날 장관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에서 사과를 하셨지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부산엑스포 유치 가능성은 그때 몇 프로나 잡고 보셨던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것을 퍼센티지로 할 수는 없고요. 이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하고 저희가 경쟁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저희가 모든 정부기관의 정보를 총합을 했을 때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권향엽 위원 됐습니다.

영일만 석유 시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아나의 금세기 최대의 석유를 발굴한 그 팀이 지금 와서 한 얘기입니다.

○**권향엽 위원** 이번 결정 과정에 있어서 60%가 부정적이라고 보는 여론조사도 있고 시추에 대한 정부 예산 투입을 반대하는 여론도 51%나 됩니다.

왜 이렇게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원개발을 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마 국민들께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중복해서 이런 것을 확인했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산자부가 좀 더 명확하게 투명성 있게 이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산업자원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권향엽 위원님 시간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홍 위원** 인천 서구의 김교홍입니다.

장관님 말이에요, 오늘 위원님들 질의의 대부분이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하고 원전 문제인데, 특히 70% 정도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예요.

왜 이렇게 하지요? 이게 너무 자료도 안 주고 거기에 대해 좀 명확하고 투명성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의혹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대한민국에서 원유가 나기를 바라지 않는 위원들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자료도 안 주고, 특히 2차관 1차관 왔을 때 제가 ‘자료를 줘라. 자료 안 주면 내가 그냥 있지 않겠다’ 얘기했더니 ‘돌아가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바뀐 것도 없어요. 나는 이게 이상해.

대개 외국 같은 경우는 시추의 정당성이 필요할 때는 특정 유전을 발표하지 않고 전체 에너지 정책의 일환을 발표하면서 그게 진행이 돼요. 맞지요? 그리고 우리도 주작, 홍계, 방어 이때도 보도자료 정도 나간 거예요. 그리고 주작공 때는 보도자료조차도 없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걸 발표를 하는데, 시추계획이에요. 그런데 산자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수부장관 다 업무 협의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됐어. 그리고 이게 140억 배럴이라 해서 2270조 원 된다 이런 것만 나가니까 누가 이걸 제대로 믿을 수 있겠어요. 자료도 안 주니까 정말 저는 답답해요.

더군다나 이게 발표가 이렇게 나간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게 액트지오라고 하는 분석업체가 내놓은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김교홍 위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제한입찰로 했던 말이에요. 동해 석유탐사 분석 제한경쟁입찰을 했는데 여기 보면 솔룸베르거와 할리버튼은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규모는 큰데 심해 탐사 관련된 전문가들은 없습니다.

○**김교홍 위원** 아니, 규모도 크고 하여튼 솔룸베르거는 세계 120여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고 할리버튼은 70개 나라에서 하고 있고, 액트지오는 상주 인원도 없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탐사 인원에 관련한, 그 큰 회사가 자기들이 탐사를 할

수 있는 설비나 인력은 갖고 있지만 탐사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김교흥 위원** 이것 분석회사인데요. 어찌 됐든 이 회사의 규모나 뭐로 보나 나는 이 액트지오가 이것을 맡은 게 결국은 산자부나 석유공사의 입맛에 따라서 분석을 해 주는 조건이 아니었는가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자료를 안 주지, 액수는 2200조 원이나 된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것 액트지오가, 세금도 제대로 못 내고 법인 자격도 상실한 이 업체한테 주는 것은 산자부나 가스공사나 석유공사의 입맛에 맞게끔 분석을 해 주려고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액트지오의 대표가 미국에 있다가 브라질로 가서 시추회사를 어떻게든지 한번 만들어서 시추권을 따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명쾌하게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한 가지 더.

얼마 전에 가스공사 직원분들이 대통령이 발표하고 하니까 주식을, 우리사주를 다 팔아 버렸어요. 보유 직원이 2275명이었는데 주식을 판 직원들이 1535명이야. 그러니까 원래 2만 9800원짜리 주식이 발표가 나고 조금 있다가 6만 450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에 보유하고 있던 우리사주 104만 주가 인출이 된 거예요. 추정 금액만 518억이야, 추정 금액만. 이것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주가가 올라가니까 팔 수도 있고.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게 잘될까, 미리 팔아 버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이제 시추 계획인데 이것을 왜 대통령이 나가서 발표를 하냐고. 호주의 우드사이드사에서도 15년 동안 탐사하다가 이산화탄소가 콕콕 차 들어가 있으니까 나가 버린 것 아니에요? 철수한 것 아닙니까?

단순히 계획이요, 시추계획. 그런데 대통령이 발표를 해. 가스공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원들은 우리사주를 갖다 팔아먹어, 몇 배씩 튀겨서.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는 말이에요.

자료는 주지 않아, 산자부에서. 차관 불러서 위원이 얘기를 해도 안 줘. 이게 뭐 어떤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장관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 우리나라는 지금 수입의 1위·3위·4위가 원유·가스·석유 제품인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 가이나나보다도 잠재적으로 더 많이 매장이 돼 있을 수 있다라는 발견을 하고 나서, 이 발표를 사실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아마 대통령께서 이것은 본인이 직접 국민께 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발표를 하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김교흥 위원** 그러니까 석유가 나오면 좋은데, 이제 계획인데 그것을 왜 대통령이 발표해서 이 혼란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수입의 1·3·4 심지어 5 위까지도 다……

○**김교흥 위원** 아니, 솔직히 장관하고 상의했어요, 발표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했습니다.

○김교홍 위원 패싱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패싱이 아닙니다. 제가 가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이 사안의 중요성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신 이후에……

○김교홍 위원 그러면 자료를 다 줘야지, 자료를. 왜 자료를 안 줘!

○위원장 이철규 보충질의 때 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김교홍 위원 자료를 줘서 궁금증을 해소해 줘야지!

○위원장 이철규 언성 좀 낮추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국가안보 사항 중에 자원안보 사안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어서 시기가 조금 지나고……

○김교홍 위원 뭐가 안보예요, 뭐가 안보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나고 나면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홍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위원장 이철규 나중에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진정 좀 해 주세요, 김교홍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웅 위원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를 둔 박상웅입니다.

제가 1차 회의 때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산자위만큼은 국가발전을 위해서, 산업발전을 위해서 정쟁의 광장이기보다는 조금 더 생산적이고 대안을 낼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모범적인 위원회로 진행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초선으로서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을 경청했는데 틀린 말씀이라고 듣기에는 좀 아니고 표현을 조금 더 정중하게 해 주시면 행정부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아마 제출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됩니다.

저희조차도 여당이지만 아직까지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보고서를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되는 대로 야당 위원님들께서 접하고 있는 그런 정보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라는 그러나 이 일이 반드시 빨리 추진되고 성사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도와야 된다는 그 입장은 여야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활 문제에 대해서 잠깐 산자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유류세 인하폭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박상웅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선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즉각적으로 상승 반응을 했는데 그 내용도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박상웅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휘발유는 30.3원, 경유는 31.4원이 각각 오른 것으로

보고됐는데 대충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이렇게 되니까 당장 지금 우리 서민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반영되고 있는 만큼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표현이 산자부 발표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박상웅 위원 그렇다면 석유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산업부의 조치가 과연 시장에서 효력이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까마는 지금 당장 서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정말 근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은 충분히 보고받아서 아실 것입니다마는 산자부장관께서는 이런 소상공인이거나 서민,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서 석유 가격의 안정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적기에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관계부처와 유류세 인하 문제를 오랫동안 상의를 하고, 저희가 사실 유류세 인하를 오랫동안 지속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 불가피하게 좀 인상을 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처럼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원유 수입의 해상 루트가 해적들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회를 하면 이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런 문제나 중동 지역의 여러 가지 불안한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우리 정유사의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데 이게 일선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하는 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조금 해소되고 안정이 돼도 실제로 가격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가 민생경제·서민경제·중소기업 보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이런 유가 문제는 좀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좀 더 확실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꼭 유념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우리 한국의 연간 원유 수입량이 약 10억 배럴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지금 대왕고래로 추정되는 이 기름의 매장량이 약 140억이라는 표현이 전문가의 표현에 따르면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 어쨌든 국민이 기대하는 바가 140억 배럴인데 그게 아니라 100억 배럴이 되든 80억 배럴이 되든 우리가 연간 수입하는 총액이 10억 배럴이기 때문에 국민적 기대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20%라는 것이 도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전을 수주하지 못한 프랑스가 실패했다고 해서 확률 제로로 도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올 오어 너싱(all or nothing) 게임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마찬가지로 이 대왕고래 문제도 정부가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뭔지, 이게 아마 지금 국민들이 진짜 바라는 것 같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인데, 다만 정부에서 여기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는, 언젠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자료를 정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료 제공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당도 그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아 위원 장관님, 질의하기에 앞서서 아까 가이아나 분석팀이 대왕고래 분석에 참여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가이아나 분석에 참여했던 분들은 누구고 그중 대왕고래 분석에 참여한 분은 누구고 그들과 석유공사와의 계약 관계는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관련 자료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특정하고 지금 석유공사와의 계약 관계가 국가안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제출해 주실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책임자인 아브레우 박사가 그 당시에 책임을 했었고 지금 이번에도 이 사업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김동아 위원 팀이 참석했다면서요, 팀이. 아브레우 박사는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 팀 구성원들에 대한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책임자였고요. 책임자가 거기 팀원들을 꾸렸기 때문에……

○김동아 위원 그러니까 팀원들이 누군지 밝혀 달라고 지금 요청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아브레우 박사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그것들이 나갈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것을 왜 협의를 하십니까?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팀이 참여를 했다고? 그 팀이 어떤지를 알고 말씀하신 것 아니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내용들을 그렇게 무조건 다 공개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계약 관계에……

○김동아 위원 아니, 국가안보 사항이 아니면 공개를 하셔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게……

○김동아 위원 그러면 그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을 저희는 뭘 믿고…… 지금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까, 장관님 말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계약 관계……

○**김동아 위원** 하여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일만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있다고 2200조의 경제 효과를 발표했습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동아 위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로 인해 석유공사의 부당한 업무 집행과 학벌 카르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참 고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석유공사는 MB 정부 시절 천문학적인 자원외교 투자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재무 상태는 부채 19조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것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것 맞습니다.

○**김동아 위원** 저는 지금 대왕고래 사태가 MB 정부 시절 자원외교 사태 당시를 방불케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베스트 인수 당시에도 사업성을 평가한 메릴린치와 청와대의 커넥션이 불거졌고 지금은 석유공사 주요 인사들과 액트지오 아브레우 고문과의 커넥션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 과정을 보면 애초에 동해 심해 탐사 시추라는 답을 정해 놓고 입맛에 맞게 수행해 줄 업체만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업계에서 세계적인 톱3 회사가 아닌 담당 팀장과 텍사스대학 중심으로 연이 있는 아브레우 고문의 액트지오를 선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업체 섭외를 마친 뒤 이를 검증한 해외자문단 역시 지난해 봄 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 동해탐사팀 팀장이 자신의 지도교수였던 데이비드 모릭 교수를 전화로 섭외했고 이후 텍사스대학교 교수진들로만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담당 팀장과 학연으로 엮여 있고 액트지오와 또 인맥이 있는 텍사스대학 교수진으로만 구성된 자문단이 검증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 분야가 워낙 특수한 분야라서 전문가 그룹들이 많지 않은데 여기의 전문가들을, 이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난 전문가들하고 가서 교육을 받고 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배제하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 말이 안 되는 일인 거고요.

○**김동아 위원** 아니, 다 텍사스대학 동일 교수진이고요. 그 대학 교수 자체가 액트지오 아브레우 고문을 연결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시겠지만 텍사스가 이런 자원개발을 가장 많이 하는 데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 담당 팀장도 텍사스대학 출신이고 지금 해외자문단도 텍사스대학이고 거기서 지금 연결해 준 아브레우 고문도 그 텍사스대학 교수가 소개시켜 줬다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학벌 카르텔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워낙 작은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이……

○**김동아 위원** 그러니까 다른, 텍사스대학 말고는 저런 전문가들이 지금 구성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뭔가 관련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이상하게 얹혀서 다 그것을 봐준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아 위원** 결론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과정에서 담당 팀장과 해당 액트지오 업체와 검증단 모두가 같은 대학교 석박사 제자 관계에 있는데 그런 것을, 그 과정을 이렇게 검증 없이 그냥 넘어가라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존경하는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도 학교에 있었지만 제가 그 학교에서 알고 있는 인맥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다 편의를 봐준 다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김동아 위원** 예타 안 받으실 거지요, 지금 추가로 시추하는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이게 예타를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동아 위원** 그러면 중국은 몇만 개 했다고 하는데 몇만 개 뚫을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예타 없이 그냥 마음대로 뚫으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중국이 예타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위원님?

○**김동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뚫으시겠다는 말이나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할 수도 없고 지금 한 공당 한 1000억이 조금 넘는 규모가 되는데 우리 예타 범위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예타 기준이 2000억이기 때문에……

○**김동아 위원** 대통령 발표만 봐도 5000억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향후에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또 나중에 보충질의해 주시고요.

김동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장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동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자료 좀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MB 정부 때 석유공사가, 특히 캐나다 하베스트에 6조 원가량 투자했다가 기름보다 물이 훨씬 많이 나와 가지고 투자에 실패하신 건 잘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성환 위원** 그것 때문에 자본잠식까지 됐고 그것 때문에 제도가 바뀌었더라고요, 다 음 장 보시면.

그러니까 하베스트 투자가 2008년, 2009년도에 있었는데 하도 MB 정부 때 해외자원개

말이 실패에 이르니까 처벌도 못 했지만 제도는 좀 바꿨습니다. 이 이후로 예타 면제였던 탐사 사업을 예타를 받으라고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016년에.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성환 위원 그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세부적인 시행계획도 세웁니다. ‘공기업 투자금액 500억 이상 투자 사업에 모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성환 위원 다음 장 보시면 이것 관련해서 공운법상에도 ‘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성환 위원 그래서 2020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그 8광구의 바로 아래 지역 방어 지역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행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다음 장 보세요. 방어 지역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했습니다.

○김성환 위원 저 지도 보시면, 방어 구역이 소위 대왕고래와 딱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대왕고래도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21년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에 예산안 공통요구자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30억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대왕고래 구조는 그 당시에 나온 게 아니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8광구와 6-1 북부지역이 대왕고래 지역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 지역은 맞는데 저희가 유망 구조라고 발견한 그 구조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너무 브로드(broad)하게 지역을 설정……

○김성환 위원 같은 지역 얘기입니다. 그 옆에 내용 보시면 이것은 석유공사가……

공사 사장님 좀 앞으로 나와 보세요.

2022년도 성과관리편람 변경안에, 이것은 2022년 10월 달에 작성한 겁니다. 이게 대왕고래 그 지역입니다. 타당성 평가를 하겠다, 언제? 운영권자 사업 철수로 지분 인수 후에 예타를 추진하겠다고 성과관리편람을 변경했습니다. 그런 사실 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기억은 없습니다만 찾아보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기억이 없다고요? 산업부도 예타를 하겠다고 30억 신청을 했고 석유공사는 예타를 추진하겠다고 성과관리편람을 변경했고……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대왕고래라는 말이 나온 게 2023년 9월입니다.

○김성환 위원 잠깐만요. 됐어요.

그 공구입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아니, 그런데 영역이라는 게……

○김성환 위원 들어가 앉으세요.

그런데 예타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방어 지역은 예타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정권만 바뀌었는데 지역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타를 추진 안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타 기준이 2000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예타의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됐습니다.

○**김성환 위원** 이 사업은 전체가 5000억짜리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시추공 하나, 의무 시추공 하나일 때는……

○**김성환 위원** 시추공 하나가 1000억이라는 거지 전체 사업은 5000억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런데 아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1000억짜리 사업을 얘기하고 있는 걸 겁니다.

○**김성환 위원** 그게 아니고요.

예타의 제도는 바뀌었지만 예타의 이 전체 사업이, 한 공구당 1000억이고 전체 사업은 500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타 대상에서 빠질 수가 없지요. 예타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의 장은 예타 대상에 대해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업 추진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운법 위반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런데 위원님 이번 12월에 하기로 돼 있는 이것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4개 5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확정돼서 같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에 하는 것은 하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타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환 위원** 전체가 5개가 한 묶음이고 그중에 각각 하나씩이 1000억짜리이지 전체로 보면 5000억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5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돼 있지 현재 5개를 묶어 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의무 시공 하고 있는 12월 달에 첫 번째가 추진이 되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꺼졌는데, 이 앞의 것 다시 확인해 주세요.

2022년도에 예타를 하겠다고 30억을 받았습시다. 석유공사도 예타를 하겠다고 성과관리편람을 바꿨습시다.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여태 뭐 했습니까? 이것 명백하게 공운법 위반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예타 기준이 말씀드린 것처럼 1000억에서 2000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것에 따라서 지금 저 계획이 적용을 안 받고 있는 겁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 과정에서 예타를 왜 변경하게 됐는지, 어디서 변경했는지, 누가 변경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기 전까지 빨리 자료 제출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보충질의 전에 준비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김성원입니다.

안 장관님,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또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예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어떤 잘못된 정보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 주고 또 그렇게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제가 원래는 11차 전력수급계획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오늘 질의 나온 것 몇 가지, 장관의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140억 배럴 관련해 가지고 이게 2200조나 아니면 880조나. 어저께 KBS 대담에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바뀌지 않고, 이것이 매장량이라든가 아니면 최대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최소치·최대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면서 중간값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어제 KBS에 가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계속 최대치를 얘기하는 것이 너무 과장된 기대를 심는 것처럼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 어제는 제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중간값 얘기를 하는 그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성원 위원** 두 번째는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결과를 언제쯤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궁금증입니다. 그래 갖고 1차공 시추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12월 달에 저희가 시추가 들어가면 아마 한 3월 정도면 마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내용 정리를 하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상반기에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원 위원** 내년 상반기쯤에는 1차 시추공의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두 번째는 체코 원전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데까지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수고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감사합니다.

○**김성원 위원** 결국은 최종 계약 협상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언제쯤 최종 계약 협상이 완료가 될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내년 3월 달에 최종 계약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한수원에 발주처하고 구체적인 계약 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 나가면서 계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성원 위원**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 가지고 ‘덤핑으로 계약을 했다’ 그다음에 ‘미 웨스팅하우스에 발목이 잡혀 무산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우선 덤핑

부분은 아까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발목이 잡혀서 무산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기술 사용 권한 관련해 가지고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도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도 이런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뒤에서, 막후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EU에서는 고준위 방폐장 건립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수주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계약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고준위 방폐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고요, 체코 정부가 이미 고준위 방폐장 선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번 원전 수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저희 국내에서 원전 생태계를 제대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고준위 방폐장을 조속히 국내에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결국은 우리가 체코 원전을 수주한 것의 가장 큰 요인은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이라고 이렇게 그 인정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앞으로 우리가 온 타임 온 버짓을 체코에서 실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세계 각국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지 되는데 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저희 한국 원자력 산업계의 시공능력에 대해서 이번에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계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우리가 원자력산업을 글로벌 선도사업으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성원 위원님 시간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언 위원**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박상언입니다.

안덕근 산자부장관님에 대해서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 많이 답변하셨습니다.

한전은 매년 한전이 적자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닷새 전 언론보도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전이 지난 24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력망 투자비용이 56조 5000억 원 가량 필요한데 한전이 44조 원이 넘는 적자를 겪고 있어 현실적인 투자가 쉽지 않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박상언 위원** 그런데 산자부장관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력망 건설기간의 대폭 단축을 추진하고 전력망 건설의 부담 완화를 통해 전력망을 확충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업무보고서 45면입니다. 그러면 한전이 지금 44조 원이 넘는 적자 상태에 있는데 산자부장관님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전력망을 확충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부에서 지원을 지금 당장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조만간 전력요금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전력요금 정상화를 통해서 하겠다.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예산의……

○**곽상언 위원** 일단 한전 44조 적자는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김동철 한전 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산자부장관님의 답변 들으셨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예.

○**곽상언 위원** 최근 언론보도처럼 현재 한전이 적자 상황에 있고 그 수준이 44조를 넘는 것 맞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예,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맞아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예.

○**곽상언 위원** 한전은 그러면 언제부터 적자였고 지금도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가요? 이것 잘 모르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20년에 흑자를 한 번 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3/4분기부터 다시 소액이지만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저희 국회의원님들한테 제출한 업무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4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2022년에는 영업이익이 33조 9086억 원이고, 순이익이 25조 2977억 원입니다. 2023년에는 영업이익이 6조 5039억 원이고, 순이익이 3조 2492억 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지금 적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마이너스입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예, 적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적자 상황에서 산자부장관님이 추진하신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예, 전력망 계획은 일단 15년 동안의 것을 표시하고 있는 거고요. 매년 실제 투자금액은 한 4조에서 5조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망만요. 다른 배전망이라든가 유지비를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것이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가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전력구입비를 절감하면서 도 그러나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곽상언 위원** 좋습니다.

한전은 지금 증권거래소하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회사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한전이 전기요금 원가 관련해 가지고 다른 상장회사와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예,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어떤 기준을 사용하고 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전기요금 원가를 저희는 총괄원가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업부 고시인 전기요금산정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 총괄원가에는 적정원가가 포함돼 있고 적정이윤이 포함돼 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그 적정원가에는 한전이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적정이윤에는 매년 1조 원가량이 포함돼 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한 1.5조 정도 됩니다.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1조 원 이상의 적정이윤이 포함돼 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예.

○곽상언 위원 그 말은 뭐냐 하면 한전이 납부하고 있는 세금하고 적정이윤에 못 미치면 한전은 적자로 인식하고 있는 거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아닙니다. 이익은……

○곽상언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총괄원가에는 적정원가하고 적정이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적정원가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고요. 적정이윤에는 1.5조 원가량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그렇습니다.

○곽상언 위원 적정이윤에 못 미치면 적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요? 맞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그것을 가지고서 세금도 내고……

○곽상언 위원 그러니까 한전이 산정한 적정이윤을 얻지 못하면 한전은 적자로 발표하고 있는 거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총괄원가에서 투자보수의 적정이윤을 가지고서 이자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일단 영업외비용을 따질 때는 그 투자보수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곽상언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되게 오래 걸리네요.

안덕근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해 가스전 사업에 우드사이드사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수한 이후에 동해 가스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석유공사 관계자들이 22년 11월에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 시행을 위한 용역사들과의 협의를 위해 미국 텍사스로 갑니다.

당시 출장보고서와 입찰업체 명단 등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가자원안보,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원이 위원** PPT 하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거부한 법적 근거를 물었더니 산업부에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법이 언제 시행되느냐 하면 내년 2월이에요. 내년 2월에 시행될 법을 근거로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자료 요청을 거부했어요. 명백한 국회법 위반입니다. 시정하실 용의 있습니까? 빨리 사과하시고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자, 보세요. 우리가 법적 근거를 물으니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25년 2월 시행 예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업부가 낸 자료예요.

그런데 웃긴 것은요 산업부하고 석유공사가 이렇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해외자문단, 석유공사 출장결과보고서 등을 우리 의원실에서 다 찾아냈어요. 23년 국정감사하고 정부공개포털 등에 이미 공개된 자료들이에요. 왼쪽이 산업부에서 올해 제출한 자료입니다. 다 비워 놔어요.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23년 국정감사 자료에 저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똑같은 자료가. 어떻게 똑같은 자료가 23년에는 공개였다가 24년에는 영업기밀이고 국가자원안보입니까?

장관, 똑바로 대답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왜 바뀌었어요? 23년에는 공개했다가 24년에 왜 기밀로 바뀐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경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다음 페이지로, 하나만 더 넘겨 주세요.

이런 출장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전문가도 만나고 액트지오도 만나요. 이 자료 보면 나오지요?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면 전문가라고 하는, 석유공사에서 만났다고 하는 전문가 그룹들을 보면 데이비드 모릭 교수하고 올라리우 교수인데 모릭 교수는 액트지오 아브레우 대표하고 엑슨 모빌에서 같이 근무했었고 논문도 같이 쓰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석유공사 구 모 팀장의 스승이에요.

그리고 모릭 교수와 올라리우 부교수는 140억 배럴이 매장됐다고 가능성을 분석한 액트지오의 이 내용을 검증한 해외자문단이에요. 보면 발주처인 석유공사 팀장과 연구용역을 맡은 액트지오, 액트지오를 검증한 해외 전문가가 다 동문이고 스승과 제자고 논문 공동저자고, 그리고 이들이 텍사스 출장 가서 같은 날 만났어요. 구 모 팀장하고 이 해외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하고 그리고 액트지오 사장이 만나요. 자료 보면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입찰에 참여한 명단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료 제출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석유공사 출장결과보고서 중 전문가 그룹과의 협의 내용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어요. 이 자료가 뭐냐 하면 23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됐던 자료예요.

보면 베이커 휴즈 측 전문가 5명을 만났고요. 이 5명에는 지질학 전문가, 지구물리학 전문가 등 5명이 포함돼 있고 할리버튼 측에서는 6명의 전문가를 데리고 나와요, 이 석유

공사 팀장 만나려고. 그런데 이 중에는 지구과학 전문가, 석유시스템 분석전문가, 천공 전문가 6명이 따라 나와요. 그런데 액트지오는 폴랑 아브레우 혼자 나옵니다.

이 자료가 23년에는 공개됐는데 올해는 왜 공개를 못 하는 겁니까?

장관, 대답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

○김원이 위원 할 말이 없겠지요.

자, 보십시오. 베이커 휴즈는요 시총 40조짜리 회사입니다. 그리고 할리버튼은요 제가 알기로 시총 90조짜리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가 액트지오 이런 회사보다 못한 이유가 됩니까? 그리고 액트지오는 아브레우 혼자 나왔는데 다른 데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왜 결과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액트지오한테 가는 겁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23년에 공개됐던 자료들을 왜 24년에는 공개하지 못할까? 딱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하나들 밝혀지면 결국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석유 카르텔을 가지고 있는 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시행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석유공사가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보고서를 써 줄 수 있는 업체, 그 업체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인 연구용역, 즉 범죄 공모를 하러 간 것 아니냐는 강력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계속 감춤으로 인해서 이 의혹을, 이 의문을 점점점 대통령까지 개입한 게이트가 아닌가 하는 의문으로 키우고 있는 게 산업부예요. 정신 차리고 빨리 자료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까 말씀드렸던 큰 회사들이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이 해저 심층 사안에 대한 전문성은 아브레우 박사를 비롯해서, 이번에 아마 아브레우 박사 혼자 한 게 아니라 아브레우 박사가 가동한 글로벌 인력들이 있다고 파악을 해서 석유공사에서 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위원 대답했으니까 저도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이철규 나중에, 간사님……

○김원이 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가 석유공사에서 얘기한 컨설팅 부티크가 구축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세브론에 근무한 김태형 박사 주장에 따르면 턱도 없는 얘기랍니다. 그런 것 없답니다. 세브론에서 13년간 근무한, 세계적인 석유기업 세브론에서 근무한 김태형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전문가 그룹이 좁다고 하지만 텍사스대만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아브레우가 그렇게 세계적인라는 수식어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왜 산업부가 석유공사를 그렇게 감싸고 도는 거예요? 감사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추가질의 때 또 해 주시고, 어차피 자료가 이렇게 공개되고 또 문제 없는 것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이철규** 의사진행발언이요?

○**박형수 위원** 저는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예, 지적하십시오.

○**박형수 위원** 지금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우리끼리 질의하고 답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장관이 답변을 충분히 하나도 못 했어요. 그러면 추후에 그 답변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하나도 안 하고 답변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지났는데도 추가 질문을 계속하는 것을 다 허용해 주고 정작 필요한 장관의 답변은 하나도 못 듣고, 그러면 도대체 이것 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의사진행을……

○**김원이 위원** 자료를 갖고 있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박형수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는데 또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을…… 원만하게 진행하는 게 위원장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좀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예, 알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한테 답변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게 들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이철규** 장관이 답변을 지금 하게 되면 뭐 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답변을 하세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정리해 가지고 하세요.

○**박형수 위원**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해 줘야지요. 그래야지 바로 해결되지요.

○**위원장 이철규** 논쟁이 계속 이어지니까 시간 넘어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원칙대로 다 적용을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저는 여당 간사로서 존경하는 김원이 야당 간사님과 더불어서 본회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일정을 합의해서 전체회의 업무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 고위공무원들 또 공공기관장님들, 수백 명의 산업부 관계자분들을 모셔 놓고 계속 체크 원전 관련해서 아니면 동해 심해 가스 관련해서 두 가지를 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장관님 뭐 숨기는 게 있습니까? 왜 속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말할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아니, 중간에 장관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가만히 계시니까 계속 지금 의문이 더 커지고 있고, 자료 요구는 도대체 자료 제출 안 한 게 뭘니까? 뭐, 뭘니까? ‘제출을 못 하게 된 동기가 이런이런 자료는 냈는데 이런 자료는 이런이런 사유로 제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박성민 위원 아니, 체코 원전 관련해서 하필 제 시간에 하려고 하지 말고.

체코 원전 관련해서 24조 우선협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적자 협상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국가적인 경사이고 앞으로 우리나라 원전산업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체코 원전을 따서 우리 국부를 앞으로 얼마나 더 키울지 모르는데 여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원전 협상한 게, 따온 게 김건희 여사 특검 몰타기입니까? 맞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대통령 쌈짓돈, 무슨 통치자금 만들려고 하는 것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왜 대답을 못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도?

체코 원전 24조 탄 것 온 국민이 환영할 일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사건입니다.

○박성민 위원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해서도 요구한 자료들이 뭘니까, 도대체? 자료 제출한 것은 뭐고 제출 안 한 것은 뭘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국가자원안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공개를 못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의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못 드리는 경우에는 열람을 시켜 드리고 저희가 시간이 좀 지나면 최대한 자료 협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장관님, 해외의 유수 탐사업체들과 비밀계약을 했고 공개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그게 오히려 공개가 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지요, 자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아니,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명경쟁입찰 시행계획서, 진행 경위, 해외출장결과보고서 등은 제출했거나 열람 조치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다음에 또 제출하지 않은 것은 뭘니까?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 국내외 자문결과보고서, 공개될 시에 자원안보에 위험이 될 만한 기업 경영 영업상의 비밀,

존중받아야 될 자료 사항들 이런 것은 추가로 추후에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공개하지 못하는 자료가 뭐니까?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하시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지금 요청받은 자료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거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따가 휴식 시간에라도 간사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는 공개하기가 어렵고 어떤 것들은 열람이라도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가짜뉴스들이 우리 국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이 세계 여러 사업들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정말 우리가 온 국민이 아주 환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 계약사가 몇 명이니 누가 어떻니 이걸 가지고 논할 바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게 워낙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려 있는데다가 그야말로 국가자원안보 문제가 걸려 있어서 정보가 마구 나갈 수는 없는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람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열람을 해서라도 최대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장관님이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해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람을 시켜 드린다든지 개인적으로 하겠다든지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괜히 그런 말을 얼버무리면 오히려 의혹만 더 키울 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성민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또 그다음에 안덕근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신데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의 요구와 관련해서 핵심 자료, 도저히 밖에 나가서…… 우리 국회에 제출되면 공개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자료가 아니라면 제출을 해 드리는 게 맞을 겁니다. 국회의 요구 자료에 대해서 좀 성의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 김원이 간사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런 것들은 정부의 자료 준비가 소홀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증거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야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에 대해서 무조건 없다 거부할 게 아니라 이 자료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정보인지 또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명확히 정리를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지적을 하시고 또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지만 국민들께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객관적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이렇게 지적해서 말씀하게 되면 국회의 권위가 스스로 실추

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액트지오라고 하는 이 회사에 대해서 신뢰성을 지적하고 또 그다음에 능력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검증하는 것은 좋지만 법인격이 상실됐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아침에 제가…… 저는 산업부에서 이걸 저도 궁금해서 명확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법인격이 상실되지 않고 계약행위에 문제가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마치 우리 국민들이 방송을 통해 들으면 부도난 회사, 전혀 능력이 없는 회사에다가 맡긴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관계자들이 즉시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팩트가 아닌 것,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토를 달라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가 다른 것은 명확히 지적해 주고 넘어가는 게 국민들께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체코의 원전 수출과 동해안의 가스전 문제에 국민들 관심이 아마 원체 크다 보니까 여야 위원님들 간 주질의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자’ 드린 말씀은, 저도 야당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 특히나 소수 야당의 위원이 겪어야 할 애환을 다 겪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필요치 않은 것도, 꼭 보안이 필요하지 않은 자료를 드러내 놓고 ‘없다’ 핑계 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정부에서도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요. 또한 야당 위원님들도 지난 정부 때 여당 위원을 하셨잖아요. 그때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우리가 국민 앞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또 그다음에 정부가 잘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상대의 다리를 걸어 가지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9년도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과 체코에 원전 수출을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출장에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가 가지고 체코에 원전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다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그 계약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다 해 가지고 이게 폼훼돼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하고.

또한 가스전 사업도 역대 정부, 여야가 정권이 벌써 세 번 네 번씩 바뀌면서, 오고 가면서 계속해서 추진해 오던 사업들인데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가셔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 또는 산하 석유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단호하고 아주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 그다음 이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원체 크다 보니까 산업부가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정부에 책임을 넘기기 위해서 아마 보고한 것도 있을 겁니다, 용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이 납득하시게끔 설명을 해 드리면 되잖아요. 여기에 실패 위험이 없는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보고했으면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정책적으로 통치권적 차원의 결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고드렸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잠시 우리가 정리를 위해서 쉬었다가 휴식을 취하고 4시 30분에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들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분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석유공사 사장님 좀 나와 보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께서 대왕고래 관련해서 석유공사의 범죄집단 공모 이야기를 했는데요. 석유공사 사장님 언제 임명되셨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2021년 6월 7일입니다.

○나경원 위원 임명권자가 누구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임명되신 사장님이시네요.

그러면 저는 갑자기 석유공사 사장님이 이번에 또 범죄 공모를 해서 윤 대통령님하고 공모를 하셨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혹이 많으신데 다소 우리가 너무 의혹 제기를 지나치게 하다 보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석유공사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20%다 그러면 시추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을 괜히 정쟁화해서 결국 시추조차도 시도하지 못해서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셔서 우리가 이 정도라면 시추하는 게 맞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일본이 지금 현재 자기들 해역에 800개 시추공을 뚫어 가지고 자원개발을 하고 있고요. 중국하고 큰 희토류 분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미나미 토리섬 해역이라고 하는 데서 한 100년 정도 쓸 수 있는 희토류를 결국 발견해냈습니다. 중국은 지금 4만 8000개 이상의 시추공을 뚫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

○나경원 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자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한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한전 사장님은 잠깐 그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시고요.

한전 적자에 대해서 많이들 질타하시는데 사실은 적자 원인 중의 하나로 보는 것은, 탈원전에 반대했던 분들은 오셔서 늘 이야기하십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해서 한 에너지를 비싸게 사서 결국 싸게 공급하는 것이 적자 요인의 큰 요인이 된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예, 일정 부분 그런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나경원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생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고 한전이 비록 적자이기는 하지만 저출산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하계에는 에어컨 가동도 더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의 한도를 좀 늘려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예, 잘 알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 집권과,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질의 시간이 다 돼 버렸네요.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이철규** 위원님,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지요.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장관님, 체코 원전 수출 국가적 경사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미국 승인 없이 한국 독자적으로 이것 가능하니까, 수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수출 통제절차를 준수하게 되면 문제 없습니다.

○**김정호 위원** 문제없다고요?

작년이네요. 1월 19일 수출정보신고서 제출했는데 반려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수출정보신고서요?

○**김정호 위원** 예. 몰라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한수원이 제출했던 것 말씀이십니까?

○**김정호 위원** 한수원이 미국 에너지부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것은 절차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절차가 뭐가 잘못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미국 기업이 신청을 해야 되는 절차를 한수원이 신청하면서 그 절차가 반려됐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동의하고 신청해 줬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사용 권한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두 회사가 분쟁을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미국이 수출신고서를 반려했음에도 한수원이 기술 입찰정보를 체코에 제공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원전 수출의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승인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미 원자력법 57조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할 경우에도 웨스팅하우스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라는 외국원자력활동지원규칙도 명백하게 어겼습니다. 이런 명백한 법령 위반 때문에,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발표 직후에 웨스팅하우스 입장 성명서 혹시 보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웨스팅하우스 입장만 대변을 하고 계시는……

○김정호 위원 봤나요, 안 봤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김정호 위원 봤어요, 안 봤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봤습니다.

○김정호 위원 제가 무슨 웨스팅하우스 입장을 대변합니까? 객관적으로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봤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봤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기에 웨스팅하우스 동의 없이 원자로 기술사용 권한 없다고 입장 표명되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우리 측……

○김정호 위원 특히 원전 기술을 외국에 공유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 이게 웨스팅하우스가 표명한 성명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웨스팅하우스의 입장이고요. 한수원의 입장은 다릅니다.

○김정호 위원 들어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하고 싶으면 찾아와서 서면으로 대답하세요.

2014년에 미국 원자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규제위원회에 APR1400 인증 신청할 때 이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 있다는 점을 명시했지요? 알고 계세요?

또 12년에 웨스팅하우스와 인허가 지원 계약도 체결하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이다. 웨스팅하우스에서 한수원을 제조하면서 7일 만에 폴란드 MOU까지 체결했지 않습니까? 우선협상대상자는 아니었지만 취소되고 그것 웨스팅하우스가 가로채 갔어요. 이게 미국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어떻게 자기 기술도 아니면서 수출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잭팟을 터트리고 국가적 경사라고 그렇게 호들갑 떨니까? 24조 원 다 맞아요, 수주한 금액이?

○위원장 이철규 시간 좀 지켜 주시고요.

여기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존경하는 위원님, 일방적으로 웨스팅하우스에서 얘기하는 것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술사용 권한에 대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고 폴란드의 경우에도 민간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타당성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정부 투자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위원장 이철규 김정호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나중에 추가로 서면질의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마지막 보충질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나중에 또 상의드리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산업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루어 낸 체코 원전 수주 꽤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박상웅 위원** 이 일이 반드시 잘돼서 앞으로 세계 원전시장에 많은 성공 프로젝트가 가능하도록 이번에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박상웅 위원** 지금 국내에서 일부 우려하는 분들이 우리 한국 측이 약속한 60% 이상 현지 기업을 참여시킨다 또 현지인 노동력을 우선고용한다, 추가 금융지원 조건 등 이런 것을 고려하면 실제 한수원에 돌아올 이익은 크지 않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친 저가 수주로 규모에 비해서 돌아오는 이익이 없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들은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측면도 있고 또는 현 정권에서 이루어 낸 쾌거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평가를 절하하려는 그런 의도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장관님은 동의를 합니까?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전혀 근거가 없고요. 지금 24조 원 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100%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체코의 현지 기업들과 함께 원전 생태계를 키워 나가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기타 유럽이나 제3국 시장으로 진출을 하는, 우리의 경쟁력도 같이 키워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덤핑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의 기술력과 사업 관리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 사업 입찰에 있어서는 현지 언론이나 심지어 해외 우수 언론에서도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장관님, 잠깐만요. 제가 여쭙볼 게 있는데 질문 끝나고 답을 하셔야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원전 1호기는 체코 정부에서 예산 수립을 완료해서 문제가 없지만 2호기는 아직 미확보 상황인데 만약 우리가 이 예산을 자체 조달해야 한다면 자구책이 마련돼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다음에 과거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에서는 노동법 보호를 거의 못 받았던 동남아 출신 노동자들을 많이 썼지만 지금 현재 체코 원전은 현지 인력 고용을 약속했고 노동기준도 주 40시간으로 제한돼 있는데 바라카 원전 당시에는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이 46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40시간까지 제한돼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나 기타 노동 효율성을 고려할 때 별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이 한 100개 이상 진출해서 한 1만 4000명 정도 인력을 고용해서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에서 사업을 하는 그 역량을 저희가 이미 갖추고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예산도 현재로서는 체코 정부가 이 예산을 다 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확대가 되는 경우에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충분한 금융 리턴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언론이나 우리 국회에 그런 방안을 구체화해서 확답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장관님, 지난 6월 22일에 월성원전 4호기 핵연료 저장조에 들어 있는 냉각수가 바다로 누출된 사실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동안 저장조에 있는 핵연료 냉각수가 누수된 적은 몇 번 있었는데 바다로 직접 유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한규 위원** 냉각수는 핵연료봉을 식히기 위해서 저장조 안에 집어넣는 물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한규 위원** 이번에 누수된 양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제가 정확한 양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없이 저희가……

○**김한규 위원** 2.3t이었습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이렇게 원편처럼 외벽 손상으로 인해서 저장조에서 누수가 일어나서 바닥으로 스며들거나 이런 정도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냉각수하고 해수가 만나는 부분의 개스킷이 손상돼 갖고 2.3t의 물이 직접 바다로 방류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출된 게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유형의 사고입니다.

월성원전 사고, 크고 작은 사고가 있는데 통상 어느 정도 횟수로 일어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빈도수 말씀을 하시면 이게 지금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적은 수준이고요. 유럽보다는 지금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저희가 적습니다.

○**김한규 위원** 미국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가 상당히 오래 전에 건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금 더 노후돼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보니까 월성원전만 봐도 10년간 크고 작은 사고가 30번 정도 있었습니다. 다른 원전도 마찬가지로 더 있고요.

게다가 월성원전은 최근에 사고·고장을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4월 달에 있었던 건데 안전설비가 미작동됐는데 신고 안 하고 숨기고 있다가 옴부즈만 제보시스템으로 들통이 나서 원안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한규 위원** 우리나라에 원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설계수명이 다해서 지금 연장 운전 여부를 원안위가 검토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열 곳쯤 됩니다.

○**김한규 위원** 맞습니다. 월성원전 4호기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한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냉각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게 처음 일어난 일인데 이런 사고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고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그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 중에 있고 조사 결과……

○**김한규 위원**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지요. 예측했으면 당연히 막았을 거고. 그런데 이게 30년 전에 건설을 했다 보니까, 미국보다는 최신이기는 하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사고들이 생기고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것 보니까 월성원전 인근에 5개의 활성단층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30년 전에 몰랐던 일이지요.

그래서 다른 원전은 몰라도 최소한 월성원전은 잔고장이 많은 데인데 단층조사 결과도 30년 전에 몰랐던 거니까 이 부분도 연장 여부 판단할 때 검토해야 되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다른 원전과 달리 월성원전은 왜 이렇게 잔고장이 많은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이 원안위에서 충분히 계속운전 여부를 검토하는 데 판단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안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조금도 미비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부탁드립니다.

2.3t 많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물을 바다에 그냥 방류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안전 문제에 관하여 최선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체코 원전 관련해서 아주 간단한 질문 간단하게 답 부탁드립니다.

사전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금융지원이나 지분투자 방식으로 우리 정부의 재원이 그 사업에 들어가는 것 열어 두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1기는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서왕진 위원 아닙니다. 지금 2기까지 다 사전협상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그게 조건으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왕진 위원 아닙니다. 저는 정부 입장 원칙을 묻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그쪽에 요청하는 게 없고 만약에 그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도 OECD 기준에 따라 가지고 충분한 이자라든가 그런 금융 비용에 대한 리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왕진 위원 요청이 있다면 열어 둘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서왕진 위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큰 난제가 전력 공급 문제인데 10GW 필요분 중에서 3GW는 LNG로 우선 진행한다, 7GW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송전망을 통해서 연결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올해 1월 달에 대통령께서 민생토론회 때 반도체산업에 전력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원전이 필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최남호 2차관께서 원자력계 간담회를 하실 때 SMR을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 공급 대안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용인 클러스터에 SMR 전력 공급 검토하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정확하게 어느 위치를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가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모두 다 RE100 가입 기업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서왕진 위원 이 경우에 지금 LNG나 원전 중심으로 전력 공급을 하게 되면 RE100 충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수출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RE100 현재 녹색 프리미엄으로 많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아시는 것처럼 매년 6GW 이상씩 지금 재생에너지원도 계속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맞추려고……

○서왕진 위원 녹색 프리미엄은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가 아니고 그냥 돈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알고 계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서왕진 위원** 앞에서 대만 TSMC 언급을 했는데 대만 TSMC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대 라이벌이고 우리가 넘어야 될 대상인데 거기는 RE100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만 해협에다가 해상풍력을 대규모로 개발하고 대만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연결하고 있는데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이런 지원을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우리도 지금 해상풍력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왕진 위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가뜰이나 집중된 수도권에, 용인에 그렇게 대규모를 하기보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이나 광주 지역에 이 팸을 분산 배치하는 것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방안으로서 추진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에너지 문제만 가지고 반도체 전략을 가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전국을 활용하는 전략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왕진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은 사실은 균형발전의 책임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 반도체 산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연재해나 전력 공급 문제로 여러 지역에 팸을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의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뜰이나 수도권 집중 문제를 잔뜩 안고 있는 용인에 그것을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절대화하지 마시고 오히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산업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많은 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산업 전략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박지혜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고동진 위원님과 질의응답을 하실 때 삼성전자를 TSMC 같은 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고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앞서 서왕진 위원님도 거론하셨는데요. TSMC가 RE100 선언한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박지혜 위원** TSMC는 목표 연도가 언제일까요, RE10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확하게 그 연도를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처음 선언할 때는 2050년 선언을 했었는데요, 작년 9월에 2040년으로 앞당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TSMC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반도체 산업에서 에너지가 모든 것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삼성을……

○박지혜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냐고 여쭙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TSMC보다 더 낮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 그 에너지 부분 우리 국내 사정에 맞추어서……

○박지혜 위원 TSMC 같은 기업들이 RE100을 선택하는 이유는 시장의 요구 그리고 고객의 요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런데 오전에 질의응답을 하실 때 RE100이 아니라 CFE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질의응답이 기업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박지혜 위원 시장의 요구와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RE100을 선택한 것인데요. 정부가 갑자기 나서서 CFE가 더 나으니까 CFE를 선택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점이고요.

사실 CFE는 더 어려운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24시간 재생에너지를 계속,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무탄소에너지를 24시간 그리고 주 7일 동안 계속 사용해야지 달성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런 것을 정부가 나서서 더 낮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기업들 입장에서, TSMC가 그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의아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RE100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습니다. 무역과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으로서 RE100 달성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RE100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의 평균 이행률 이미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이행률은요, 반면에 8.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8.7%도 뜯어보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외 사업장에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 중인 RE100 가입 기업 164개사가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도 사업장이 있으니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66개사가 한국을 재생에너지 조달에 장벽이 있는 국가로 꼽았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주로 애로 사항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재생에너지 조달에 고비용이 소요되고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조달 옵션도 다양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가운데 RE100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저는 장관님에게 RE100 달성을 위해서

산업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산업부에게 여쭙었는데요. RE100은 민간기업 차원의 캠페인이기 때문에 따로 지원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인데요. RE100 대응을 위해서 산업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특히 단기적인 대책을 위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선진국 시장에서 RE100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RE100 이것이 우리 에너지정책의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우리가 탄소중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같이 키워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에 관련해 섬나라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랑 연결이 돼 있는 EU라든가 아니면 지리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RE100 같은 것을 수용하기 유리한 미국과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돼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방금 말씀드린 TSMC 같은 기업들도 대만이라는 섬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지혜 위원** 저희는 원전을 바로 중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저는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산업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TSMC만 가지고 있는 대만하고 저희를 계속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는 조선, 자동차, 기타 막대한 전원을 요구하는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혜 위원** 이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자동차기업들도 RE100을 부품사에게 2025년까지 달성하라고 요구해서 계약이 무산된 사례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재생에너지 어렵다고 수년간 얘기를 했는데 이격거리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배전망 접속 지연이 계속돼서 지금 남부지방에는 재생에너지 신규 인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고요. 해상풍력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작년 말까지 140MW밖에 공급 못 했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산업부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우리 현실에 맞게 탄소중립으로 갈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장관님, 또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보충해서 답변드리기 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고생하셨습니다, 박지혜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세종시갑의 김종민입니다.

저도 이어서 RE100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시간이 짧아서, 제가 장관님 답변 듣고 아까 점심시간에 소화가 잘 안 됐는데 이게 대한민국 산업부장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충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사안 자체가 의회의 논의와 공론을 안 거치고 지금 예타 면

제까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 사업이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정부가 발표한 직간접적 생산 유발효과가 650조입니다. 고용창출효과가 300만 명이에요. 90% 이상의 첨단전략산업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결정하는 데 에너지가 거의 결정적인 요인이예요, 이 사업의 앞으로의 전망 관련해서.

지금 TSMC 계속 얘기하는데 TSMC가 2040 RE100 선언을 했어요. 삼성전자, 2050 선언을 했습니다. 자, 빅테크들이 앞으로 CF 물건을 사지 않고 RE100 물건을 살 것으로 전망이 돼요. SK, 삼성이 지금 거래 기업이 한 25%밖에 안 됩니다, RE100 기업이. 이게 100%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지금 대전환기 아닙니까? 우리 옛날 구한말 겪어 봤잖아요. 이 대전환기에 방향 한번 잘못 잡으면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AI 반도체 전쟁에서 방향 빠듯 잘못 잡으면 우리 후손들이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지금 방향 잘 잡아야 돼요.

RE100을 지금 원 오브 템(one of them),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게 아니예요. 장기적으로 RE100으로 가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하는 거지 장기적으로 RE100으로 가야 기본적으로 반도체고 AI고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 TSMC하고 삼성, 하이닉스가 싸워서 대한민국이 경쟁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년과 올해 걸치는 과정에서 이런 고려 사항들이 논의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이러면 TSMC한테 저요.

두 번째로 에너지전환에서도 호남은 재생에너지를 하는데 쓸 데가 없어요. 송배전이 안 돼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전력이 유실되거나 이제 공급을 안 해요. 그러면 재생에너지 전환 어떻게 할 겁니까, 호남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호남에서 한 것들, 영호남에서 한 게 송배전 때문에 안 돼서 그것을 전력 공급을 안 하고 다시 또 생산을 중단하고 그러면 에너지전환도 안 돼요.

지방소멸 얘기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용 창출 300만 명 사업을 또 수도권에다 갖다 박아요.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그다음에 에너지전환, 지방소멸, 이 세 가지의 중대 과제 다 연관되어 있는 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산업부장관이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그냥 그것은 원 오브 템’이에요. 우리 다른 사업 많으니까……’. 고용유발효과 500만짜리 또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민 위원 이것은요 여기서 지금 장관님 답변 하나 듣고 끝날 게 아니고, 답변은 잠깐 한 1분 정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가 지금 쪽 제기한 문제의식의 취지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종민 위원 지금 유럽이 대세가 무슨 원전이다,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태리도

정부가 그냥 해 보겠다고 의지 표명한 것이지 여론은 70%가 반대입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원전을 신규 건설을 해도 전체적인 총량에서는 감원전이 대세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원전 부활, 활원전 이것은 대세가 아니에요. 탈원전은 아니더라도 감원전이 글로벌 대세입니다. 그 전제 위에서 국가 전략도 짜고 에너지전환 정책도 짜야 된다. 그런 점에서 그 시금석이 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해서……

정부는 결정을 했지만 국회와 국민적 합의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이것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TSMC가 공장 5개를 지었는데 300km나 돼요.

○위원장 이철규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우리나라도 용인하고 해남까지 300km밖에 안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철규 장관께서 간단히 답변하시고 서면으로……

○김종민 위원 아, 이게 얼마나 답답한 문제입니까?

○위원장 이철규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하고……

○김종민 위원 오늘 하루 종일 저렇게 안이한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장 이철규 대면보고를 해 드리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일단 답변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자세히 정리해서 정기국회 때 우리 이것 한번 꼼꼼히 따져 보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 에너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지금 2나노 기술과 AI 반도체에서 저희가 첨단기술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종민 위원 그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할 거잖아요.

○위원장 이철규 들어 보시지요.

계속 말씀하세요.

○김종민 위원 정부가 할 것 얘기하라고, 정부가 할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에너지 관련해서……

○김종민 위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해상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고민 안 하게 해 주는 것, 이것이 산업부장관이 할 일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래서 에너지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100이……

○김종민 위원 우리 실정이 아니라 글로벌 실정에 맞아야 경쟁에서 이길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철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서면답변서 꼼꼼하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철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희 위원 저는 오늘 친환경차 전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친환경차, 미래차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오세희 위원 지금 전기차 보급 현황이 2018년에 5만 5000대에서 24년 현재 60만 6000대로 돼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에 450만 대 목표를 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오세희 위원 이렇게 전환을 하면, 전환하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내연자동차에 비해서 차량 부품이 많게는 40% 줄고 정비업도 30% 줄니다. 이럴 경우, 8만여 명의 생계형 종사자가 있어요. 생계형 자동차 정비업체에도 큰 변화가 옵니다. 제가 그 그래프가 있었는데……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사라질지도 모르는 업계, 생계형 자동차 정비업의 관련 종사자 고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산업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산업전환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정보 부족, 예산 부족, 시설 부족, 여러 가지로……

이게 보면 또 제가 놀란 게 전기차 정비업체 현황 인프라예요. 국내 자동차 정비업이 3만 6000개인데 전기차 정비 가능 업체가 2936개예요. 그런데 여기에 모든 수리가 가능한 게 375개입니다. 375개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비산업의 인프라로 괜찮은지요? 부족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좀 더 많이 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래서 친환경차 전환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종사하고 있는 정비업의 대책을 세워 줘야 되고요.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 산업부가 있어요. 그런데 산업부에서는 기본계획과 정비 인프라 구축, 보조금 지원, 정비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같은 게 필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이, 4차 친환경차 계획안이 25년도까지 되어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오세희 위원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직업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친환경차로 인해서 기존 생계형 자동차 정비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장관님의 생각이 있으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위원님께서 중요하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미래차,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 전기차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인력들을 빨리 그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적인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만나 보면 자동차 정비업이 3만 6000개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전기차가 보급될 때 이 사람들의 역할, 지금 현재의 정비업이 이어 갈 수 있는 것, 부품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꼭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교육 강화하고 산업전환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오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장관님 참 답답합니다.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한테 답변 기회를 줬어요.

여기는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관님의 답변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추가로 답변을 하시다가 위원이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답변을 안 해 버려요. 그것은 장관의 의무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답변할 시간이다, 내가 국민들한테 답변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걸 하지 않고 있다가 얼버무리고 넘어가 버리면,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그러면 서면에 있는 걸 어떻게 국민들께서 아시겠습니까? 답변을 해야 될 때는 똑바로 답변을 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까 자료 문제 때문에, 출장을 간 사실을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지난번 국감 때 이미 나온 자료인데 이걸 얘기하다가요 거기에 대해서 본질을 장관이 답변을 못 했어요.

그 질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때 출장 가 가지고 액트지오사의 아브레우하고 이렇게 찹짜미를 해 가지고 이 프로젝트 자체를 전체를 다 그렇게 뭘 음모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그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한번 지금이라도 답변해 보십시오. 이걸 국민들께서 꼭 아셔야 되고 장관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해저 심층 탐사라고 하는 분야가 워낙 특수한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메이저 탐사업체들이 회사 내 부서로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거의 영업기밀사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처럼 왜 조그마한 회사한테 이걸 맡겼냐, 왜 이런 데 맡겼냐고 하지만 이런 정보와 기술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바깥에 나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세기 최대의 자원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이아나 광구를, 사실 거기에 전혀…… 우리하고 좀 비슷합니다. 거기가 기존에 발견이 됐던 게 아니라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봤던 거기에 가서 막대한 양의 자원을 발견해 냈던 엑슨 모빌의 팀장을 했던 사람이 아브레우 박사고 마침 이 양반이 나와서 관련돼 있는 글로벌 전문가들을 모아서 컨설팅회사를 만들어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지적을 하신 것처럼 몇 개 회사가 있었지만, 이름이 큰 회사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회사들이 시공이나 기타 관리 같은, 감독 같은 걸 많이 하는 회사고 실질적으로 탐사에 관련돼서는 전문가들이 회사 내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석유공사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문성만 놓고 보면 그런 정도의 전

문성을 갖고 있는 팀들을 사실 가장 합리적으로 모아서 거기에다 맡겨 가지고 결과를 냈던 것이고요. 그 결과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1월 달에 나왔는데 그것을 국내외 전문가들한테 검증을 받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해외 메이저 기업한테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서 이것은 충분히 탐사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의무…… 한 번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더라고 해서 제가 가서 이번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이렇게저렇게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지금 까맣게 까먹고 있지만 저도 옛날에 학교에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해외에 있는 교수들과 한 20편 정도 되는 논문을 쓴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못하고 제가 그 논문을 썼었고요. 그 사람들을 만났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기에 전문성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타당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탐사계획에 들어간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께서 이게 워낙 막대한 규모의 일이다 보니 직접 국민들께 브리핑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형수 위원 장관님 그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질문 하나도 못 했어요.

답변을 축약해서 하시고 끝난 다음에 그렇게 충분히 답변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일부러 제 시간을 다 쓰면서 장관님한테 답변 드린 거예요. 다른 위원님 절대로 이렇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감사합니다.

○박형수 위원 끝에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충분히 답변을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위원 아까 시간 부족 때문에, 확인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기관에 따라서 부존 자원량에 대한 분석량이 엄청 차이가 크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드사이드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탐사도 하고 시추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유공사하고 공동으로 탐사한 탐사자원량이 8억 5000만 배럴, 그런데 액트지오가 분석한 것은 크게는 그것의 16배의 어떤 차이가 난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극한 차이가 나왔을 때 과연 이 부분을,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제삼의 어떤 시추를, 탐사를 통해서 뭔가 중간값을 아니면 뭔가 오차를 줄이는 그런 작업을 할 법도 하거든요, 앞으로 투자해야 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실 희망적이지요. 그대로 되면 좋겠지요.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다가 모든 걸 정조준해서 앞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또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걸로 직진하는 것 같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확실히 불확실성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업계의 관행을 봤을 때, 가이아나 광구를 발견한 전문가가 와서 그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확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이게 충분히 탐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런데 우드사이드 회사도 호주에서 나름대로 어쨌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석유가 됐든 가스가 됐든 그 분야에서 대기업이고 전문성도 있는 기업인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런데 그 회사는 BHP라는 다른, 해저탐사가 아니라 그냥 광물자원을 주로 개발하는 회사한테 M&A를 당하면서 사업 모델이 좀 재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매우 흔한 것이 저희가 사실 개발에 성공한 미얀마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앞에 있는 7개 회사들이 다들 하다가 포기하고 나갔는데 결국 저희가 탐사에 성공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재관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기업이 한 15년 정도 했던 것을 액트지오는 사실 1년 만에 7개의 유망 광구를, 이 분야가 그렇게 실력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인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사실 어떻게 보면 중간에 하다가 나간 상황인데요. 2G 모델로 자기…… 그러니까 하여튼 방식도 액트지오가 했던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조금 더 떨어지는 형태의 탐사가 이루어졌었고 탐사가 다 완성이 된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재관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어쨌든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려 때문에 제기를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이 어쨌든 그런 리스크를 줄이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봉 위원 장관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저는 어떤 사업이든지 아무리 그것이 좋아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면 결과에 대한 신뢰를 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액트지오 회사가 4년간 영업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법인 자격이 일부 정지되어 있었던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렇게 지적을 했고 사과도 하셨었잖아요, 제대로 확인 못 했다고, 장관님께서도. 차관님이 그때 말씀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차관이 하셨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국내에서 만약에 이런 정도 상태의 기업이라고 하면 국내에 어떤 입찰을 하려고 하면 보통 서류심사 탈락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주 세법에도 ‘영업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인의 사업 수행 권리가 몰수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봐도 이런 정도의 기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17억이 넘는 큰 계약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정부에서 이런 기업하고 계약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또 아브레우 박사가 했다는 액트지오의 사업을 지금 보면,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도 여러 분이 설명했습니다마는 해외자문단이 다 학맥으로 연결되어 있지요. 또 국내에서 검증했다는 분들도 서울대와 관련된 학맥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정말 객관적으로 검증을 잘 했을까…… 전문인력이 없다고 하시지만 제가 여러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바에 의하면 전혀 없는 게 아니다, 충분히 다른 영역에서 또는 다른 관점에서 분석 가능한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학맥으로 연결되어 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오늘 계속 장관님께서 석유공사의 입장을 과도하게 대변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에 석유공사 행동강령에 봐도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등의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것이 명백한 행동강령 위반이다 저는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것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신뢰를 상실하게 만든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지 마치 이걸 계속 옹호하고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결정된 사업에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가 발표한 20%의 성공 확률이 있다, 유망 구조가 7개 있다, 다른 우드사이드는 없다고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그 의혹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제가 미국 가 가지고, 저도 미국에서 사실 박사를 받았는데 미국에서 대학 얘기하면서 학연 얘기하는 걸 저는 거의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르텔 얘기를 하시는데 전문가들 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학을 같이 나왔다는 이유로 뭘 한다는 건, 아마 우리 예전의 그런 학연, 지연 같은 것을 여기다 빗대서 자꾸 얘기를하시는 것 같은데……

○**송재봉 위원** 미국은 아닐지 몰라도 석유공사 직원의 학연은 우리 국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학연으로 연결돼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학연으로 시작됐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송재봉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브레우 박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도 지금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이 같은 서울대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무슨 과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송재봉 위원** 대학과 대학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글썄요, 저도 한때 교직에 몸을 담았던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이런 검증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더 엄격하게 검증에 들어가지 저하고 논문을 같이 썼거나 무슨 그런 학교에서 만난 인연이 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업무에서 뭘 봐준다고 하는 그런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지금 최대한의 검증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글로벌 회사들이 저희 자료를 가지고 사실상 내부에서 검증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간접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같이 검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적정한 시점에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설명해 드리도록 하세요, 장관님.

송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위원** 석유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석유공사 사장께서 저쪽 발언대로 나가시지요, 좌측. 마주 보고 대화를 하셔야지 옆에 등지고 대화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서일준 위원** 커리어를 보니까 석유 메이저 기업인 셸에서 근무하셨던데 몇 년이나 근무하셨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19년 2월 했습니다.

○**서일준 위원** 19년 근무하셨…… 전문가시네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도 잘 압니다.

○**서일준 위원** 석유공사 사장 언제 임명되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일준 위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예.

○**서일준 위원** 2021년도에 임명됐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예.

○**서일준 위원** 지난 6월 달에 에너지미래포럼에서 강연을 하면서 우리나라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없다라고 발언하셨는데요, 저는 이 발언이 어떻게 보면 이번 동해 심해 가스전과 관련한 여러 논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면서 쉬운 해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감사합니다.

○서일준 위원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 천해에서 가스전을 발견한 시기가 비슷하죠?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예, 생산은 2004년에 같이 했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렇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예.

○서일준 위원 그 뒤에 700m 이상 심해 시추 시도 횟수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세 번, 이스라엘은 스물여덟 번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지금 가스 수출국이 되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맞습니다.

○서일준 위원 이스라엘은 에너지의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가스 면에서는.

○서일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에너지, 특히 우리 자원안보는 차분하고 꾸준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일준 위원 제가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석유공사 보도설명 자료를 죽 한번 살펴보니깐 일부 언론사에서 아니면 말고 이런 의혹 제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해명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탐사 실적을 보니까 48공이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예, 전체.

○서일준 위원 일본은 몇 공입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일본은……

○서일준 위원 813공 나옵니다, 자료 보니까.

중국은 몇 공입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4만 공……

○서일준 위원 중국은 4만 8000공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17배 탐사 시추 실적이 높고요, 중국은 무려 1000배가 넘습니다.

저는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해서 명백한 가짜뉴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단호한 태도로 대응을 하고 적극적인 수단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에서 단 1초라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증 이슈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석유공사에도 사실은 많은 지올로지스트(geologist)가 있고 지오피지시스트(geophysicist)가 있습니다.

저도 글로벌 회사에서, 글로벌 스탠더드 잘 알고 있습니다. 자꾸 그런 어떤 연관을 지으시는데요. 한번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술평가 분석은 대부분 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저희 자체 인력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또 동해 방어 6-1 할 때 약간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자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해외 유력자, 해외에 슬룸 베르거라든가 이런 회사가 있지만 특히 심해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쪽에 관련 있는 전문가들이 누군가, 일반적으로 그쪽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메이저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사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도 능력 있고 기술력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심해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소문하고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액트지오사, 심해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액트지오사 보고서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우드사이드가 나간 다음에 저희들 자체에서…… 지금 보게 되면 우드사이드가 심해입니다. 심해 앞으로 해야 될 일 많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까 방어 6-1이라는 그쪽에 우리가 대륙 사면에서 했습니다. 조금 깊은 바다지만 사면에서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고압력이 나와서 깊이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저도 기술자고 교수도 해 봤고 저 나름으로 모든 어슈어런스(assurance)는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기서 보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대륙붕 그건 우드사이드 자료가 없습니다. 사면도 우드사이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심해하고 자료하고 전체를 다 합해서 이제는 종합적으로 한번 보자.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한 왜 실패했느냐, 그것 하는 데 한 몇 개월 걸렸습니다. 그 과정을 다 거쳐 가지고 우리가 그쪽에 성공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게 성공할까 안 할까 이 과정을 가장 고민한 사람은, 아마 저도 그중의 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 이야기했는데 저도 글로벌 회사에서 많이 있어 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제3, 제4 그것 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해도 되는 것을 해외에 했고, 해외 자문사에 했고 그리고 해외 메이저사한테도 다시 물어 봤습니다. 그 메이저사가 아주 괜찮다고 우리와 같이하자고 투자 의향까지 보였습니다. 이것으로 그 증명이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검증에 대해서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으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장관, 버즈 오브 어 페더 플록 투게더(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이런 말 들어 보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정진욱 위원 무슨 뜻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유유상종이라고……

○정진욱 위원 유유상종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정진욱 위원 미국은 달나라입니까? 미시간대는 그런 것 없습니까? 내가 해 봤는데 내가 다녀 봤는데 그런 것 없다. 아브레우 박사는 브라질 사람이에요. 브라질이 우리나라 보다 투명성이 높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나마 투명성이 제일 높은데 지금 이 모양이에요. 그렇게 떼뻗하면 왜 자료를 못 내요?

석유공사 사장님!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예.

○정진욱 위원 그렇게 떼뻗한데 왜 자료를 못 내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차근차근 드리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무슨 차근차근 줘요, 지금 당장 줘야지! 그렇게 당당하게 검증했고 명확히 증거가 있는데, 바로 내세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충분하게……

○정진욱 위원 앉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지금까지 자료가……

○정진욱 위원 앉으세요!

○박상웅 위원 소리를 그렇게 질러야 돼요?

○정진욱 위원 소리 그렇게 질러야 됩니다. 지금 전 국민의 지성을 모독하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거짓말이라고 말씀할, 어느 부분이 거짓말입니까?

○정진욱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검증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 봤는데, 내가 해 봤는데, 내가 거기 그런 걸 해 봤는데로 지금 모든 걸 다 통치고 지나가는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제가 뭘 통치고 지나갔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정진욱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알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장관,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 줍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저희가 26조 정도 되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정진욱 위원 보조금은 아직 안 줬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돈으로 줄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우리 실정에 맞는 지원 정책을 이번에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요.

○정진욱 위원 잠깐만요.

아까 모 위원님께서 TSMC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우리가 TSMC처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겁니까? 경로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IDM 아닙니까,

설계하고 제조하고. TSMC는 처음부터 파운드리로 출발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러면 팹리스 할 수 없는 거고 하더라도 아주 미약한 거고. 돈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방식이 그 당시에는 최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처럼, 물론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기다 돈 주면 다른 데 못 줍니다. 그것 명확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정진욱 위원 산자부는 그동안 대기업들 뒤흔다꺼리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한 것 하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우리나라 산업기술을 그렇게 폄하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욱 위원 폄하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해 온 일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니, 대기업 뒤흔다꺼리라고 말씀을 하시면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를 너무.....

○정진욱 위원 제가 지금 여기 두 가지, 광주와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려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도와주자는 것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광주에서 5월 30일 날 산업부가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냅다 대고 올해 9월부터 31년 12월까지 7년 4개월간 광주지역에서 발전 못 합니다, 전남에서도 못 합니다, 전북에서도 못 합니다. 전력망 포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작정 결정해도 됩니까? 지역 발전 자급률로 보면 광주는 8.4%입니다. 왜 광주가 이런 피해를 입어야 돼요?

○위원장 이철규 질의 정리해 주시고요.

○정진욱 위원 잠깐만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아니, 별도로 질문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세요, 장관님.

○정진욱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지역별 발전설비용량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규 존경하는 정진욱 위원님!

○정진욱 위원 그리고 이렇게 막아 버리면,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이 호남입니다. 호남에서 더 이상 발전을 못 하게 하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결정 내리지 마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런 적 없고요.

○정진욱 위원 유예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삼성전자도 돕는 길입니다. 앞으로 RE100 요구되면 그 전기를 어디서 갖고 오겠습니까? 호남에서 가져옵니다.

이것 제가 서류로 다시 하고요.

○위원장 이철규 질문은 그만 중단해 주시고 장관 답변할 수 있으면 지금 답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전력 관련된 정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네에 아무것도 못 하게 한 게 아니고요. 지난 몇 년 동안에 과다하게 보급 위주로 좀 무질서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전력계통상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최대한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아니, 잠깐만요. 무질서하다고 그러셨지요? 기업은 무질서한 거예요.

○**위원장 이철규** 저기 위원님, 서른 분의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정진욱 위원** 대기업을 하는 것만 질서 있고…… 경제의 활력은 그런 무질서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무질서하다고요?

○**위원장 이철규** 정리해 주시고요.

○**정진욱 위원** 그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할 일입니까? 기업가는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철규** 정진욱 위원님 중단해 주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이종배 위원입니다.

장관님, 미안마 가스전 신화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현장 가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현장은 못 가 봤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 당시에 미안마 가스전에 대해서, 이게 시추거든요.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시추를 해서 줄줄이 실패를 했는데 그 당시에 대우인터내셔널에서 마지막 한번 해 보자, 다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잭팟 터트린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지금 포스코로 바뀌었는데…… 그때 저는 현장을 가면서 이 조그마한 가능성도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석유공사 사장님도 계시고 석유공사 직원들도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비록 호주 우드사이드 기업에서 철수를 했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충분하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평가업체에 맡기고 자문을 얻고 이래서 20% 가능성을 발표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에 아주 적극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협력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다가 한 3일 뒤부터 좀 얘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재명 전 대표께서는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다’ 이렇게 하시고 정청래 전 최고위원은 ‘석유 게이트로 비화할 수 있다’, 원내대변인은 ‘이것은 국면 전환 정치쇼다. 시추 강행 시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시추하지 마라 이런 압박, 압력 아닌가 생각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지나친 거고 실패 가능성도 충분히 부각시켜야 된다, 지나친 희망은 좀 자제해라 이렇게 가는 게 옳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주로 얘기하는 게 대통령께서 왜 이걸 발표했느냐 그러는데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국민 희망 프로젝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드뭅니다. 국가적인 중대 사안이고 대통령께서도 이게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4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발표했고 또

1차 시추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는 나올 것 아닙니까? 1차 시추는 그래도 가장 유망한 것을 시추할 것 아니겠어요. 내년 상반기면 결과가 나올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담을 안고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신 겁니다. 책임을 지겠다 이런 거지요, 책임. 내가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발표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액트지오에 대해서 1인 기업이니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액트지오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 기업이고 왜 이 액트지오가 선정이 됐고 자문을 거쳐서 그래서 20% 가망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게 이번에 많이 안 나온다 그래서 실패가 아니고요. 지금 자원개발 정책이 사실 저희가 한참 열심히 하다가 거의 방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중간에 몇 분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곁에 있는 일본은 지금 연근해에 800개 이상의 시추공을 뚫어서 자원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석유공사, 가스공사 이런 게 있다가 이걸 통합을 해 가지고, 영어로 조그멕(JOGMEC)이라고 하는데 그게 광물에너지안보기구라는 이름으로 해서 에너지안보라는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여기에 특화돼 있는 금융 기능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수년 전에 자원개발을 하다가 잘 안 된 것 때문에, 그다음에는 정책이 완전히 거꾸로 와서 이걸 거의 손 놓다시피 지금 돼 있어서 대학에서 지질학과들도 많이 없어지고 지금 이것 하던 인력들이 많이 없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개발에서 도출되는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 영토 내의 자원 개발에 매우 중요한 기본 데이터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높은, 객관적으로 보기에 업계의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확률이 높아서 저희가 이것은 꼭 앞으로 열심히 추진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위원** 석유공사 사장님, 그 자리에서만……

죄송합니다. 석유공사 말고 한전 사장님.

한전 사장님, 그냥 서서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전에서 KBS 방송 수신료 징수 계속 대행하고 계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물론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고지·납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리고 수신료 대행, 징수 대행의 수수료 1년에 400억 이상씩 받고 계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이번에 분리고지, 7월 달부터 일부 시행이 되고 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예.

○허성무 위원 그래서 전체 가구가 2200만 가구인데 1000만 가구만 분리고지가 징수되고 있고 1200만 가구는 분리징수가 안 되고 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일반 세대는 저희 한전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기는 장소에 공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에 관계없이? 사람은 계속 이주하고 이사 다니고 하지만 전기는 그 장소에 공급하는 거라서,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단지까지만 한전이 공급을 하고……

○허성무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그러다 보니까 한전이 개별 세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허성무 위원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확인만 하는 겁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예.

○허성무 위원 그래서 1200만 세대는 어쩔 수 없이 여전히 통합고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요? 1000만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통합고지는 아니고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전기료와 수신료를 분리해서 고지……

○허성무 위원 분리하지만 어쨌든 관리비에 포함해서, 지금 관리비처럼 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그렇지요. 관리사무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미 이렇게 고지가 되었고 많은 시민들의 항의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예.

○허성무 위원 그것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장님, 앉으시고요.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허성무 위원 2023년 7월에 방송법 시행령이—대통령령이지요—개정이 됐습니다. 그것 개정할 때 ‘TV 수신료 납부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한다’ 이렇게 정부가 했고 그렇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지난 6월에 분리고지 중에서 1200만 가구를 예외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대통령 시행령을 바꾸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바꿔요. 그렇게 하면서 1200만 가구는 분리고지가 안 되도록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TV 수신료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의식을 낮추기 위해서 분리고지를 못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기술적으로 저게 어려워서 그런 것……

○허성무 위원 그렇지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허성무 위원** 그러면 작년에 분리고지를 정부가 발표하고 공론화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갈 때 그때 많은 국민들은 KBS 장악 의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때 KBS 직원들 또 노조원들 간에 갈등을 유발하고 내부에 공포감을 조장해서 경영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체하려고 이랬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의문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KBS 경영진에 이 정부의 코드에 맞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고 나서 보니까 대통령령을 다시 또 바꿔서 이제 분리징수를 안 해도 되도록 1200만 가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정부 내에서, 그것도 대통령령을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꿔서 서로 모순되게 바꿔서 형해화시키는 게, 한 정부 내에서 이게 옳은 행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는 그런 의도로 한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의도가 어찌 됐든 간에 대통령령이 지금 서로 모순되게 바뀐 것 아닙니까? 하나는 분리고지를 하도록 바뀐 거고 하나는 1200만 가구가 다시 분리고지가 안 되도록 바뀐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런 식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것으로.....

○**허성무 위원** 그러면 기술적 어려움도 모르고 초기에는 그렇게 바꾸어서 주장을 했던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방송법 관련된 내용이 저희가.....

○**허성무 위원**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요, 장관님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국무회의에 들어가면 이것과 관련해서 검토, 심의, 부처의 의견도 제출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허성무 위원** 그래서 대통령령 시행령을 이렇게 다시 바꿀 때, 공동주택법 시행령을 바꿀 때 장관님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때 제가 특별히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게 한전을 관리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렇게 모순되는 시행령 개정이 생겼을 때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부의 의도가 어쨌든 간에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의견 제출을 하셨어야지요. 왜 의견 제출을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허성무 위원님, 이제 정리를 해 주시지요.

○**허성무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취지를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허성무 위원** 결국은요.....

○**위원장 이철규** 답변을 나중에 드리세요.

○**허성무 위원** 물론 서면답변도 더 주셔야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한 정부 내에서 이런 모순되는 대통령 시행령의 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철규** 오늘 여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 대기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장관님, 자료 요구인데요. 조그맥(JOGMEC) 관련된 것 몇 번 얘기하셔 가지고,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제가 지금 구글링해 보니까 잘 안 나와서, 그러니까 조그맥이 지원한 게 800개인지 직접 한 게 800개인지가 확인이 잘 안 돼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 질문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저희 대전 한전기술에 원전설계본부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장철민 위원** 제가 지금 자료 보니까 실제로 한전기술 원전설계본부 쪽에서 수출형 원전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실제로 주변 기관하고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지금 맨아워(man-hour) 기준으로 3만 시간 넘게 위원회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김천으로 데려가네 마네 막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복잡해지고 있어요. 오히려 체코 원전 업무 제대로 수행하는 데에 복잡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원전 설계본부 다시 건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대전의 입장도 있고 지금 김천의……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오늘 장관님 보니까 원전 생태계를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지역적으로 보면 원전 생태계의 90%가 사실 연구단지에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전력기술이 협업하는 기관들을 보니 대부분이 한수원 연구소 그리고 원자력발전연구원이라서 굉장히 많은, 전체 업무의 한 14%의 시간을 대전에 있는 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제 생각에는 장관님께서 원전 생태계를 망치는, 그래서 체코 원전에 관련된 사업들도 망치는 그런 일을 하시지는 않을 거다라고 믿고 있는데 혹시 장관님 생각 잠깐 여쭙봐도 될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래서 그냥 원전설계본부 어떻게 하실지만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시간이 짧아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계획한 바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별한 상황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계획한 바대로라면 다시 이전하고 등등 파견 인력을 다시 늘리려고 하는 것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은 이전 계획에 따라 가지고 추진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하여튼 원전 생태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체코 원전 설계하고 하는 데 분명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해외자원개발 용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석유공사가 이 용자 사용할 수 있게 앞으로 개정하실 예정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철민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게 해외자원개발협회지요, 용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맞습니다.

○**장철민 위원** 용자 심의를 협회가 하는데 협회장이 석유공사 사장님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장철민 위원** 그러면 사업을 신청한 게 석유공사고 심의하는 게 석유공사 회장님이 있는 협회가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 재원 자체를 제한적으로 국내 개발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런 식으로 현재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아니, 아무리 제한적으로 해도 신청한 사람이 심의하는 대출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 형식논리적으로 아예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런 방식으로 사실 산자부가 고시 개정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아니 이걸 어떤 후진국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텐데 약간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어떠한 정책자금도 우리 국회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게 활용되고 어떤 조건을 붙여서 집행되는지를 저희가 보고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구조를 바꾸는 고시 개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석유공사가 성공불용자하던 시대에 2000억 넘게 손해를 본 이것을 산자부가 자의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얘기 좀 드리고……

○**위원장 이철규** 장철민 위원님, 취지가 전달이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

장관님, 지금 즉시 답변하시려면 하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 심의 자체는 용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개정하시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석유공사가 이걸 활용하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고요.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박성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박성민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하실 말씀은 다 많으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김원이 간사님하고 저하고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오늘 회의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물론 합의도 7분 하자 5분 하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되도록이면 발언 시간을 좀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지고 나서 계속하기 시작하면 서로 간에 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다음에는 시간을 더 길게 잡을 테니까 발언을 서로 간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철규** 두 분 간사님이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 강승규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야당 위원님들의 걱정이나 시각을 제가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니 첫째는 이 프로젝트가 투자 성공률이 있느냐, 이것 도박에 가까운 것 아니냐,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데 액트지오 등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작을 한 게 아니냐, 카르텔이 형성된 게 아니냐 이런 게 두 번째 제 시각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 이것 시추해 봐야 실현할, 성공 가능성이 없다, 시추하지 마라 이런 시각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민주당 위원님들이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자원개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자료를 하나 찾아봤더니 이런 자료가 있네요.

지난 21대 고양에서 국회의원을 하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의 홍정민 위원께서 해외자원개발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해외자원개발은 전형적인 모험사업이다’, 여기는 도박이라고 표현은 안 했습니다. ‘모험사업이다. 성공이 10곳을 투자해 한 곳을 성공하기 쉽지 않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이 21년 5월 해외자원개발 현황을 분석해서 발표했는데 실제 해외광물자원개발 성공률이 9.5%다. 316개를 시도했는데 30개 성공했다. 그래도 성공한 사업의 투자비는 2조 4700억을 했는데 회수액이 한 7조 3500억이다. 투자금의 3배에 달한다. 실패한 사업 286개의 투자비도 4조 380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회수액이 1조 2000억이다. 전체로 보면 그래도 6조 8500억을 투자해서 8조 5500억 정도를 해외자원개발에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 등이, 해외자원개발은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제1차 해외자원개발을 해서 시작을 했고 MB 정권 때도 해외자원개발을 시행했다. MB 정권 때 다소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 대한민국 산업을 위해서는 자원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이 요지입니다.

지금 액트지오 등에서 20% 성공 가능성, 여러 가지 장관께서 답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사업은 도박도 아니고 조작도 아니고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가능한 사업도 아니다,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꼭 명심하고 지금 해외 메이저들 상대로 석유공사가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에 제대로 구조를 갖추어서 좋은 결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엽 위원**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권향엽입니다.

장관님 오늘 고생 많으신데요.

한국석유공사법 제16조에 보면 ‘산업부장관은 석유공사의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개발 및 생산에 대해 지도·감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문단 구성이라든가 동해탐사팀장 관련한 인맥으로 구성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의문을 제시한 것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탐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성공률을 높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더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꼭 유념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장관님, 국가산업단지 정전 사고에 대해 파악하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권향엽 위원** 자료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만 해도 여수와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그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확한 피해액은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이에 대해서 혹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국가산단의 정전사고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관리라고 말씀하시면, 저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최대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한국전력 사장님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배전망 관리시스템을 통하면 정전사고 발생 시에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차세대 배전망 관리시스템 구축률은 얼마나 되나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지금 금년 말까지는 전 지역본부에 그것을 다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산단 정전 통계 수집하실 건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예. 투자가 다 됐기 때문에 배전단에서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전부 탐지가 가능, 감시·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런데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산업의 전기화가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은 앓아 주시고요.

산업단지 정전 통계자료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명확지가 않습니다. 산업부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서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리고 전력수급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가산업단지 정전 문제 같은 것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흥 위원** 장시간 동안 장관님과 산하단체 기관장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관님, CCUS라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교흥 위원** 탄소중립은 이제 환경 이슈에서 경제 이슈로 가는 거예요.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교흥 위원** 그런데 보면 내년 2월에 CCUS법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어떻게 준비가 잘되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런데 2030년 NDC에서 CCUS를 통해서 연 1120만 t 감축 달성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가능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좀 도전적인 과제지만 저희가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것을 장관이 짚막하게라도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동해 가스전에도 할 계획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것 언제부터 합니까? 언제부터 동해 가스전에 이 CCUS를 적용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실제로 사업 시행하는 시기 말씀이십니까?

○**김교흥 위원** 예,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1120만 t의 감축 달성이 가능하다고 이 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동해·서해, 해외에 각각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는 되어 있는데 시행하는 시점은 아직 정확하게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장관님 있잖아요, 사실은 CCUS를 적용하는 게 우리가 유전, 가스·석유를

시추해서 빼내는 것과 시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 6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이미……

지금 24년도면 30년까지 6년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 동해 가스전은 30년까지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호주가 지금 진행되는데 호주는 28년부터 가능하다고 그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런데 호주는 호주 것도 물어야 되고 일본 것도 물어야 되고 우리 것도 묻으면 이 1120만 t 턱도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레이시아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 계획이 안 돼 있고.

이것 어떻게 무슨 계획 가지고 1120만 t 감축 달성하겠다 그런 것이지요? 그냥 발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호주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김교흥 위원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CCUS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꼭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3% 정도 세제 혜택을 받는데 국가전략기술로 되면 15% 정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 투자하고 하려고 할 텐데, 제조업 비중이 높고 온실가스 다배출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인데 앞으로 이런 걸 국가전략핵심기술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런 검토는 안 한다는 얘기니까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위원장 이철규 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흥 위원 공무원들이 검토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적극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오케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교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아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면서 2022년 여주시와 여주시 지역에 반도체 기업 입주 지원, 사회공헌사업 및 반도체 역량 지원, 여주쌀 지원 구매 등을 약속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동아 위원 또 같은 해 12월에는 용인시, 용인시 원삼면 주민들과 지역주민 우선채

용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고 또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는 15평 규모의 전시관을 600평으로 40배나 늘려 신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 역시 좀 아실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동아 위원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는 본사가 있는 이천 지역을 중심으로 2011년부터 많은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확인해 보니 기부금을 322억 원이나 모았더라고요. 그중에 수혜자가 한 8만 7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는 기업 ESG경영 관점에서 이런 지역사회 공헌활동이 바람직하고 또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혹시 어떠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물론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기업들의 이런 활동들이 더 촉진돼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저도 이렇게 지역사회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검찰 논리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여주시에 대한 사회공헌의 대가로 공업용수 사용 인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용인시와 이천시로부터도 사회공헌의 대가로 인허가 편의 등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SK하이닉스의 사회공헌활동이 제삼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권의 국무위원으로서 이런 SK하이닉스의 사회공헌활동이 인허가를 대가로 제삼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아 위원 예,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SK하이닉스의 사회공헌과 동일하게 성남시에 있는 두산과 네이버 등 기업이 성남지역의 축구단인 성남FC와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제삼자 뇌물이라고 기소했고 지금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SK하이닉스도 처벌돼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것은 사안의 특징적인, 특수한 상황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김동아 위원 구체적으로 사안을 비교해 보더라도 성남FC는 광고 계약으로 계약 관계가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아무런 대가 없는 무상 증여에 가까운 사회공헌으로 더 뇌물성이 강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문맥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검찰 수사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사회공헌을 축소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고 실제 경기도 등 지역에서는 검찰 수사가 무서워서 소극행정으로 기업 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장관님, 모두 질의 때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기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안 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런가요?

○김성환 위원 예,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자료 화면 하나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산업부의 올 6월 달 동해 가스전 관련한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동해 심해 탐사 성공률이 약 20%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5공구 시추 및 2024년 12월 1차공 시추 개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따로 떼어 놓고 하면 이것은 예타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입니다. 어느 자료에도 이것이 별개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타 면제 기준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5개 공을 시추하겠다고 그중에 첫 번째 공을 먼저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저희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 한 5개 정도가 맵시몹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김성환 위원 사업계획에 5개를 시추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만약에 예타 면제를 했다면 어떤 과정으로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미 산업부가 예타를 하겠다고 했고 석유공사도 사업 철수로 지분 인수 및 예타 추진을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안 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이게 공운법 위반이고 예타 면제 기준 위반이면 사업 정지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지금 시작하는 것은 의무 공 시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별개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후속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게 전부 다 재정 지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관련해서 예타를 추진해야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세요. 알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가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시간이 짧아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건설 원가·단가가 심지어 중국보다 더 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저가 수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국의 무어사이드에 일본 도시바가 원전 사업을 하려다가 영국

이 조건을 까다롭게 합니다. 건설비 전액을 부담해라, 직접 운영해라 이렇게 하니깐 실제로 수익이 생기지 않아서 도시바가 철수를 합니다. 한전도 참여하려다가 말았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영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매출이 얼마고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얼마가 나온다,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일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UAE의 바라카 원전 얼마나 수익이 생겼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김성환 위원 아니, 그것 설명할 것 없고, 바라카 원전 얼마나 수익이 생겼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게 워낙 기간이 긴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얼마라고 지금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딱 안 잘라도 좋으니까 자료로 제출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 체코 원전 얼마나 수익이 생길 것 같은지, 삼성전자랑 비유하면 매출이 얼마다 하는 건 나옵니다. 그런데 수익이 얼마다 안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총사업비가……

○김성환 위원 바라카 원전 안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바라카 사업……

○김성환 위원 바라카 원전에서 얼마나 지출이 있었고 거기서 얼마나 한전 등에 수입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바라카 원전이 총사업비가 1기당 한 7억 정도 된다고 보면 지금 체코는 1기에 12조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김성환 위원 수익이 얼마나 생기는지에 대해서 삼성전자처럼, 현대자동차처럼 보고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게 최종 계약이 되려면 내년 3월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철규 장관님, 나중에 최종 계약 단계에 가면 김성환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체코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바라카에서 진행됐던 바라카 원전은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 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바라카도 지금 정산은 안 끝났지만 최대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장관님 말고 최남호 차관이 답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김성원 위원 지금 이것 국민들이 알기에 잘못 착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1차 시공을, 그러니까 시추를 하는데 그것하고 전체 발표를 했을 때는 한 5개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5000억이 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은 1차고 그다음에 이 4개는 또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김성원 위원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해야지 안 그러면 500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금 꿈수로 예타 면제를 한다 이렇게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하셔야 돼요. 답변을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일단 예타를 할지 말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의무 시추로 확정된 것은 1차 시공, 1차 시추밖에 없기 때문에…… 2022년 12월 21일 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예타 기준이 2000억 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김성환 위원 그 얘기가 바로 쪼개기 아닙니까?

○위원장 이철규 들어 보시지요, 김성환 위원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뒤에 2차공 이후의 사업은 아직은 확정이 아닌 상태기 때문에 1차공에 대해서만 예산을 넣어 놓은 관계로 뒤에 있는 2차공 이후의 사업을 한꺼번에 볼 거냐, 분리해서 볼 거냐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성원 위원 그럼요. 2차공 이후의 사업은 그때 가서 예타를 받든가 해야지 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1차공 탐사 시추 이후에 결과를 봐서 정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로드쇼 중에 해외 투자 방안도 같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2차공 이후의 시추비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성원 위원 장관님, 체코 원전 수출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원전 생태계 복원을 해야지 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생태계 어떻게 복원하실 계획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대외적으로는 일단 우리가 탈원전을 했었던 기간 때문에 생긴 신뢰 손상을 저희가 지금 빨리 회복하는 문제가 좀 있고요. 국내 원전 생태계를 최대한 빨리 키우고 인력들을 확보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을 같이 끌고 가는 이 생태계를 지금 복원시키는 작업들을 빨리 저희가……

○김성원 위원 원자력산업 인재 육성 부분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에다가 넘긴 상황인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옛날 지경부 시절에는 산자부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김성원 위원 이 부분은 산자부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올해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입학생 2명이고 울산과기원이 1명이에요. 이것 완전히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 부분도 원전 생태계 복원에 있어 가지고 산자부에서 같이 신경 쓰면서 나가야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력 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서 저희가 그 부분 유념해서 국가 입장을 한번……

○김성원 위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광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상언 위원 광상언 국회의원입니다.

일단 안덕근 산자부장관님께 다시 한번 여쭙볼게요.

아까 제가 김동철 한전 사장님께 여쭙봤었는데 한전의 적자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장회사는 모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고 있고 당연히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이윤을 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광상언 위원 만약에 세금과 적정이윤을 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세금을 원가와 관련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과 같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광상언 위원 그렇지요. 매출이 자신이 산정한 적정이윤에 미달하면 무조건 적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정이윤을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광상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한전의 적정원가에는 한전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전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도 전기요금과 관련한 비용으로 처리하는 셈인데 알고 계시는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게 우리……

○광상언 위원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광상언 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한전은 대략 한 1조 원가량의 적정이윤을 원가에 포함해서 이에 미달하면 적자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곽상언 위원 그러면 김동철 한전 사장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한전은 지금 44조 원의 적자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렇게 적정이윤 빼고 세금을 빼면 그래도 적자입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총괄원가 개념은……

○곽상언 위원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적정이윤 빼고 한전이 납부하는 세금을 빼면 그래도 적자입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빼기 전에 그러니까 적정이익이나……

○곽상언 위원 지난 10년간 납부한 세금이 얼마이고 적정이윤이 얼마인지 구체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곽상언 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말씀하세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총괄원가를 하는 것은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니고. 그리고 한전이 이익이다, 적자다 하는 것은 그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한전 적자의 원인……

지금 계속……

사장님!

○위원장 이철규 김동철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언 위원 한전 적자의 원인이 탈원전에 있다는 그 사실에 답변하셨는데요. 만약에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자력을 원전으로 하는 전력발전량이 줄었을 텐데 지금 저희 업무보고에 보시면 원자력의 설비용량은 전체의 17%인데 발전량이 31.6%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현황을 보더라도 2019년 70.6%에서 2023년 81.8%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11%가량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한 것이 맞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보게 되면 오히려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탈원전한 것이 맞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그러니까 지금 원전이 한 25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원전이 한 10개 정도 적게 돌아갔으니까 그만큼 썩 원전에 의해서 발전한 전기가 공급되지 못한 만큼 원가가 올라갔다고 보는 겁니다.

○곽상언 위원 2019년 70.6%에서 2023년 81.8%로 증가했어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그것은 비중이지 않습니까? 비중이고 전체적인 총발전량에

서 본다면 그만큼 탈원전 기간 동안에 원전에 의해서 발전한 전기만큼……

○**곽상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탈원전이 한전의 적자에 금액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미쳐 왔는지 자료 꼭 제출해 주세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이 위원** 장관님, 아까 물었던 출장보고서, 해외 전문가들의 리스트와 평가, 23년에는 공개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국정감사 자료로 다 제출됐던 자료들이에요. 24년에 기밀로 분류되어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대답해 주세요.

자원개발이 왜 퇴조했느냐, 왜 민주당은 저러냐, 이렇게 억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이 있어요. MB 때 26조 투자해서 23조 날렸어요. 물론 실패할 수 있지요. 자원 투자라고 하는 게 모험성이 강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런 모험적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26조 투자해서 왜 23조를 날리게 됐는지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당시 MB 때 어떻게 처리했냐? 그 과정에 대해서 불투명했고요 사회적 논의가 상실됐고요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니다, 그 실패에 대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다시 되풀이될까 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들의 자산이, 세금이 그냥 공중분해되거나 몇몇 이익집단의 주머니로 몰래 들어갈까 봐 그것을 걱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드사이드가 심해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안 맡는 것으로 아까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산업부차관님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드사이드가 BHP와의 합병을 앞두고 자산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동해 유전 개발을 포기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2차관님, 아직도 이 입장 변함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김원이 위원** 변함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김원이 위원** 화면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사실은 이미 23년도에 공개됐던 자료인데 이것을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안 줘요. 우리 보좌관들이 찾아낸 자료예요.

이 자료가 뭐냐 하면 석유공사가 태평양에 보내는 법률 자문 의뢰서인데 뭐냐 하면 시추 대상, 우드사이드가 사업 철수 의사를 전달해 왔는데 이 사업 철수 의사가 법적으로 타당한 거냐 합법적인 거냐, 이것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해 달라고 태평양한테 보냈고

태평양은 뭐라고 보냈냐면 여기 보면 우드사이드의 철수가 높은 탐사 리스크 및 소규모 자원량 등의 사유를 들어 사업 철수 의사를 밝혔다면 합법적임을 회신해 줍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석유공사에서는 우드사이드가 왜 철수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우드사이드가 석유공사에다 얘기해 줬거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법률 자문까지 구했는데……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산업부2차관님, 석유공사가 이런 법률 자문했던 것 알고 계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알고 있었습시다.

○**김원이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거짓말 친 거잖아요. 우드사이드가 사업 구조조정하면서 물러났다라고 왜 거짓말 쳤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사업 구조조정 과정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김원이 위원**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브리핑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제가 브리핑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산 재조정 과정에서 우리 동해 광구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자산 재조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시다.

○**김원이 위원** 자, 다시 국어 시간 해 봅시다.

자산 구조조정하고 높은 탐사 리스크 및 소규모 자원량 등 사업이 사업성이 없어서 철수한 것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분명히 앞에다 전제를 달았잖아요. 합병을 하면서 자산 구조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산 구조조정이 어떻게 높은 탐사 리스크와 자원량이 소규모여서 사업성이 없다라는 것하고 이월이 됩니까? 거짓말 친 거잖아요, 차관님.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거짓말이 아니라……

○**김원이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산업부의 이런 태도, 석유공사의 이런 태도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또 MB 때처럼 돈 23조 날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논의 거쳐서 검증해서 투자하자는 거예요. 투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그래서 배우면서 해서 나중에는 남기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어떻게 야당의 동의를 구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원이 간사님, 진정 좀 하시고요.

○**김원이 위원** 태도를 보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진정하십시오.

○**김원이 위원** 장관님, 아까 말씀하셨던 왜 23년에는 공개된 자료가 24년에는 공개되지 못하는 겁니까? 그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개인정보인데 당시에는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 하고 그냥 올렸다가……

○김원이 위원 개인정보요? 이번에는 또 개인정보입니까?

○위원장 이철규 됐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리세요, 자료 문제는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김원이 간사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까.

우드사이드가 영일만에 가망성이 없다고 했다는 뉴스가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사업 재조정 과정에서 철수를 했고요. 그 당시에 미얀마, 페루, 캐나다……

○박성민 위원 어느 게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BHP사하고 합병을 하면서 철수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시추까지는 여러 단계가 있을 텐데 우드사이드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당시에 탐사 단계였었고요. 2D 정도의 자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추 전 단계인 유망 구조화 사업이라고 거기까지도 못 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못 갔습니다.

○박성민 위원 거기까지도 못 가서 우드사이드는 아예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여기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할 입장이 못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게 사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게 핵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액트지오 법인 자격 박탈했다고 하는데, 체납액이 200만 원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법인 자격이 박탈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등록을 하는, 일종의 일부분 페널티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박성민 위원 계약 체결은 가능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물론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계약 체결도 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 자격 박탈이나 이게 전부 다 가짜뉴스다, 이런 이야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법인격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박성민 위원 19년부터 액트지오는 미국 외에 다른 다수의 기업과도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분명하게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인 자격이 박탈당했거나 아니면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은 가짜뉴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다음에 액트지오의 그런 자료에 의해서, 우리 국내 자문도 거쳐 봤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어디 해 봤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국내 지질연구원에 있는 박사들하고 학계에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검증을 받았습니다.

○박성민 위원 액트지오의 분석 방법이 적정하다고 결론을 받았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국내 자문단의 검증 절차도 철저히 거쳤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이런 모든 사실을, 팩트를 자료도 제공하고 또 국민들에게 이것을 소상히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희는 지금 홈페이지에도 다 올라가 있고요. 저희가 수차, 언론에서도 그게 많이 설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물론 국회에서 여러 가지 실패를 가정해서 검증은 하되 가짜뉴스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부에서도 자료나 발표를 좀 더 명료하게 해서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꼭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소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홈페이지와 석유공사 홈페이지에도 그런 관련돼 있는 사실관계들이 다 소명이 돼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위원님들 추가질의까지 전부 다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22대 국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상임위 구성 이후에 첫 번째 업무보고 받는 자리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산업 정책에 대한 또 에너지 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그다음에 우려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몇 가지만……

○정진욱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가 있는데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철규 위원님, 여기는 30명의 위원들이 함께 하고 있는 회의장입니다. 또 여기에는 교섭……

○정진욱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아니, 잠깐만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있습니다, 간사 위원들도 계시고요. 또 비교섭단체 위원님도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공동체 질서를 어느 정도 따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면서 무슨 편파적으로 진행을 한다든가 또 그다음에 경우 없는 사회를 보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기회를 드렸고요. 또 어찌 보면……

○정진욱 위원 아니, 편파적인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철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가로채고 이렇게 하시면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잠깐 위원으로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관님, 체코 원전 수주는 오랜 시간을 두고 준비해 온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특별히 갑자기 무슨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헐값으로 원전을 수출한다든가 할 이유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정부가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심지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지난 정부에서도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당시에 저도 당시 여당 위원이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함께 체코에 원전 수주를 위해서 출장을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폄하되거나 또한 우리가 단순히 원전을 수출해야 된다는 목적 때문에 국부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리고요.

동해안의 가스전 관련해서 오늘 굉장히, 야당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와 또 여당 위원님들은 빨리 해야 된다는 상충된 의견들이 개진됐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업화를 가능하게 했던 고속도로의 건설 당시에 ‘고속도로는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차 타고 다니기 위해서, 놀이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할 때 ‘이 나라에 지금 무슨 초고속통신망이냐, 전화 있고 하면 되지’ 하면서 반대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고속도로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가능했고 초고속통신망이 구축됐기에 대한민국의 IT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이후에 한미 FTA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식민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한미 FTA 문제를 통치권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준 지도자가 계셨기에, 또한 지금 제주에 강정 기지를 건설한 이런 결단을 내린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번영된 오늘을 만들어 오신 분들입니다. 그 과정에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부처의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또 사명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해안의 가스전 개발 사업, 대한민국 미래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사업입니다. 여기에 한 치의 착오도 없이 또한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일을 진행해 주시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요. 이 가스전 사업을 발표할 때, 이것이 정치적으로 지금 잠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을 발표해 가지고 얻는 이익과 잘못됐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하고 어느 것이 더 큼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저는 국가적인 신뢰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발표를 한 것이 훨씬 나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니까 발표함으로써 성공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큰 부담이 오겠어요, 불과 1년 이내에. 그렇지만 이것을 추진하려면 결국은 범정부 차원의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하기에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 과정에 오해가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위원장 이철규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여야 위원들께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시급한 현안인 가스전 문제 또 체코의 원전 수출 문제를 두고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하자고 양당 간사 간에 협의가 돼서 의장께 승인을 받고 오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회의 전에 주질의와 보충질의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말씀은 빠짐없이 부처에서 챙겨서 또 개별적으로 보고드릴 분들에게는 보고드리고 또 행정실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면질의를 제출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저를 포함하여 강승규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 김교홍 위원님, 김원이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송재봉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허성무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일준 위원 위원장님, 저도 서면질의했는데……

○위원장 이철규 제출하셨습니까?

○서일준 위원 예, 저도 넣어 주세요.

○위원장 이철규 서일준 위원님의 서면질의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잠시……

우리 위원회에 비교섭단체 위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위원님과 또 새로운미래의 김종민 위원님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위원님의 소위 배정은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두 분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례에 따라 가지고 결정해 주시고, 내일 오전 회의 시작 전에 별도로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님들의 소위 배정 안건

을 정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직전에……

○박지혜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끝나기 전에 제출하기로 한 자료들, 아까 김성환 위원님도 못 받으셨다고 했고요, 저도 못 받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원장 이철규 그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오늘……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게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처에다가, 정부 측에다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법에 금지 규정이 없고 또 법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내용은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법을 떠나서 사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도저히 뭐 하다면 비공개로라도, 대면보고를 해서라도 위원님들의 양해와 동의를 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출석 위원(30인)

강승규 고동진 광상언 권향엽 김교홍 김동아 김성원 김성환 김원이 김정호
김종민 김한규 나경원 박상웅 박성민 박지혜 박형수 서왕진 서일준 송재봉
오세희 이언주 이재관 이종배 이철규 장철민 정진욱 주호영 허성무 허종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유인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제1차관 강경성

제2차관 최남호

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통상차관보 양병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대자

산업정책실장 이승렬

산업기반실장 오승철

에너지정책실장 이호현

무역투자실장 최우석

첨단산업정책관 이용필
에너지정책관 최연우
전력정책관 이옥헌
재생에너지정책관 정경록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원전산업정책국장 안세진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진종욱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한국가스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동섭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황주호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사장 김희천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사장 김호빈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사장 박형덕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사장 이승우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사장 김영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직무대행 최철규
대한석탄공사
사장직무대행 김인수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황규연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장영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조성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유정열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이상훈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박지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박경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이상훈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정동희
전략물자관리원
원장직무대행 조재일

【보고사항】

○의안 회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9)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6)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2024. 7. 8.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이상 4건 7월 9일 회부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24. 7. 9.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8)

이상 2건 7월 10일 회부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0)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2024. 7. 10.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이상 2건 7월 11일 회부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5)

이상 3건 7월 12일 회부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1)

7월 15일 회부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2024. 7. 15.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0)

이상 6건 7월 16일 회부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9)

7월 17일 회부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2024. 7. 17.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8)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17.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7)

이상 6건 7월 18일 회부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0)

이상 4건 7월 19일 회부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2)

이상 5건 7월 22일 회부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7)

이상 4건 7월 23일 회부됨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8)

7월 24일 회부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5)

이상 2건 7월 25일 회부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5.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3)

7월 26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8)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7. 8.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4)

이상 4건 7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4. 7. 10.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1)

7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24. 7. 18.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6)

7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 7. 22.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6)

이상 2건 7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4. 7. 23.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7)

7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11	5	2	1	38
중소벤처기업부	5	1	7	1	13
특허청			2		6